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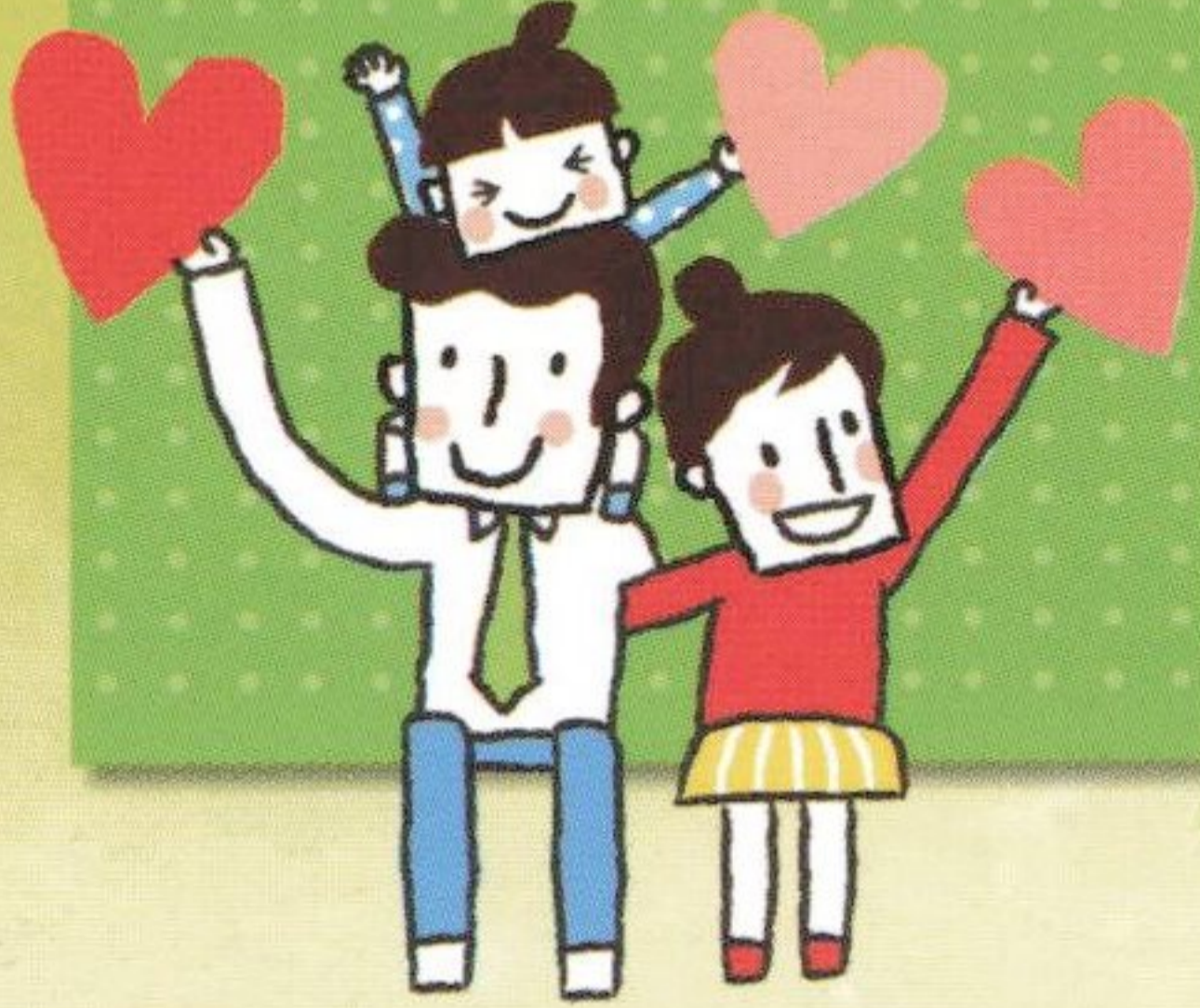
4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April Vol.256

국악칸타타
기획공연 동래성 붉은 꽃



가정의 달 기념

5월



가족사랑 콘서트
천원의 행복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가족과 함께 듣는 클래식

지휘자 이효삼

2013. 5. 9 (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2013. 5. 10 (금) 오후 7:30 영도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악전문단체 타로와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TARO 타로

2013. 5. 10 (금)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2013. 5. 30 (목)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사랑의 노래

2013. 5. 23 (목)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013. 5. 28 (화)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힐링 콘서트

2013. 5. 31(금) 오후 7:30 영도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광역시
주 관 :: 부산문화회관, 각 區 문화회관
문 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공연과 051) 607-6057
예 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4월 1일 티켓 오픈

입 장 권
전석 1,000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찬란한 유산

2013. 5. 30 (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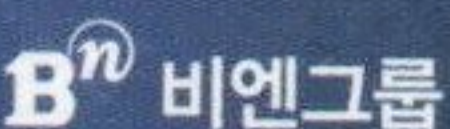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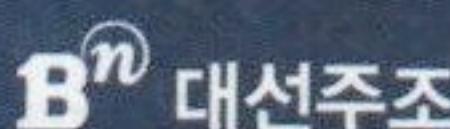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1번 작품13
정덕기 · 교향적 모음곡 「나의 기억속에서...」

RACHMANINOV Symphony Series I

Maestro Oh Choong-Keun & Busan Symphony Orchestra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시리즈 I

2013년 4월 15일(월)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KWANG 조광페인트  Bⁿ 비엔그룹  Bⁿ 대선주조  윈스틸  Oh Choong-Keun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티켓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 A석 1만원 (학생 50%할인)

예매 부산은행 전지점, 문화포털 팝부산 www.popbusan.com

문의 051)621-4577 www.bso21.com



제 19회 을숙도 명품 콘서트

4월,
그를 만나다.

Clarinetist 김한

박주희 Entropie-Kreis
Mozart Concerto for Clarinet and Orchestra in A major, K.622
Dvorak Symphony No. 9 in E minor, op.95 'From the New World'

2013.4.11 (목)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T.I.F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부산원음방송, 사하인터넷뉴스, 팝부산, 흥플러스장림점, 롯데마트 장림점
입장료 | 전석 2,000원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문의 | 051-220-5812
예술감독 | 김원명, 무대감독 전광수, 음향감독 이광섭, 조명감독 오종영

T.I.F심포니오케스트라

CONTENTS

2013 April Vol.256 culture.busan.go.kr

- 06 커버스토리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
- 10 프리뷰
- 12 문화가 화제 | 2013 부산국제연극제
- 16 반갑습니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철호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베이징의 전통을 만날 수 있는 후통(胡同, 골목길) 여행 _ 허정애
- 22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⑩ | 차리투스이라는 이렇게 말했다1_ 이동신
- 24 불멸의 거장 - 드뷔시 ④ | 작품을 통해서 본 드뷔시의 음악세계1_ 최윤희
- 26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⑩ | 부채그림 서원아집(西園雅集) _ 변광석
- 28 그곳에 가면 | 해운대 秀 아트홀
- 30 우리는 문화가족 | 아마추어 첼로동호회 라온첼로
- 32 리뷰 | 이자람의 판소리 '억척가' _ 신설령
'봄의 색을 말하다'전 _ 박미경
- 34 테마가 있는 여행 | 신라 천년문화 보고 경주로 떠나는 봄여행
- 37 Culture Life
- 61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4월호 통권 256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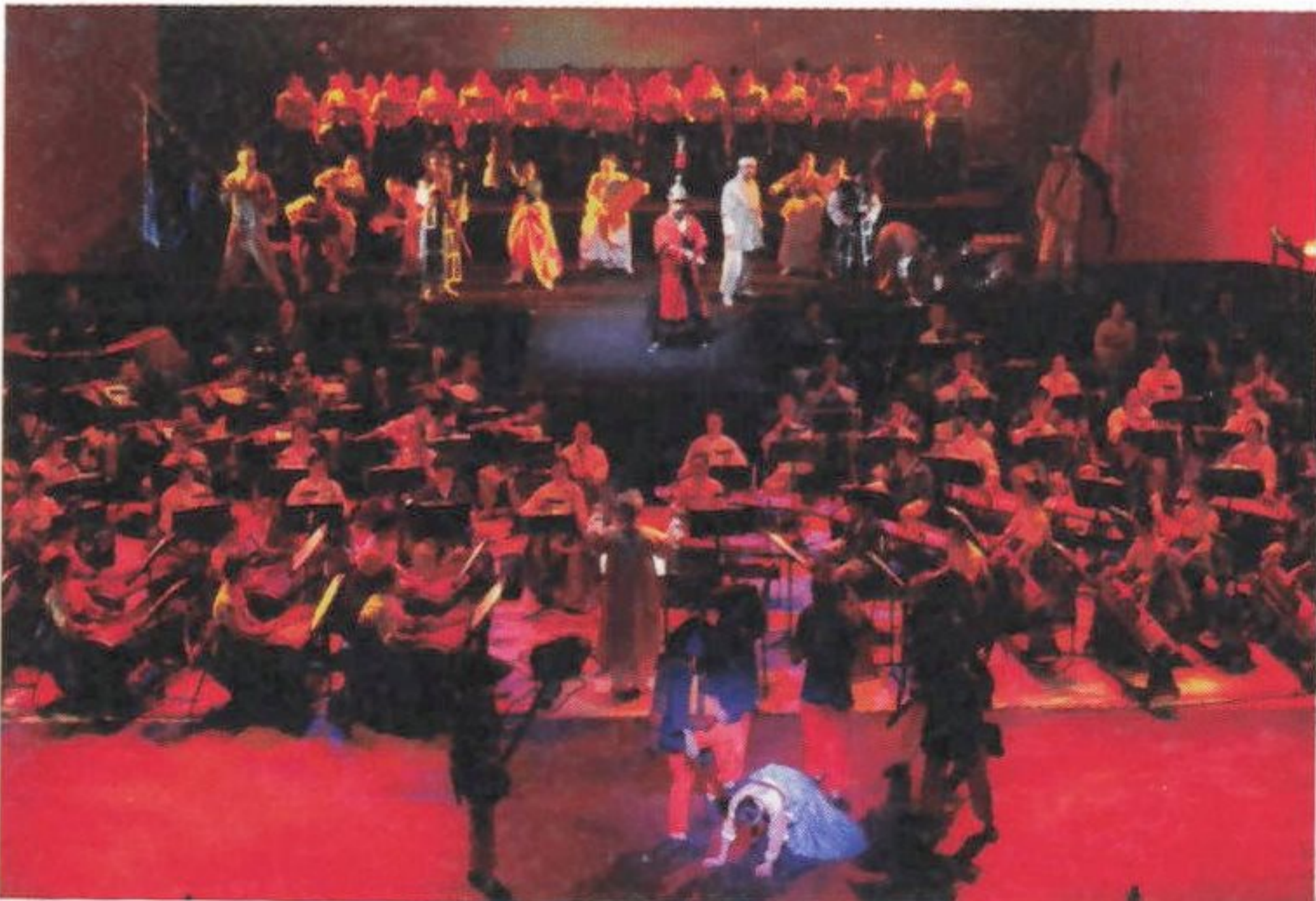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3년 3월 25일

인쇄처 | (주)대주애드 Tel. 051)803-6631



국악칸타타

동래성

부은 꼬깃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공연

국악칸타타 - 동래성 붉은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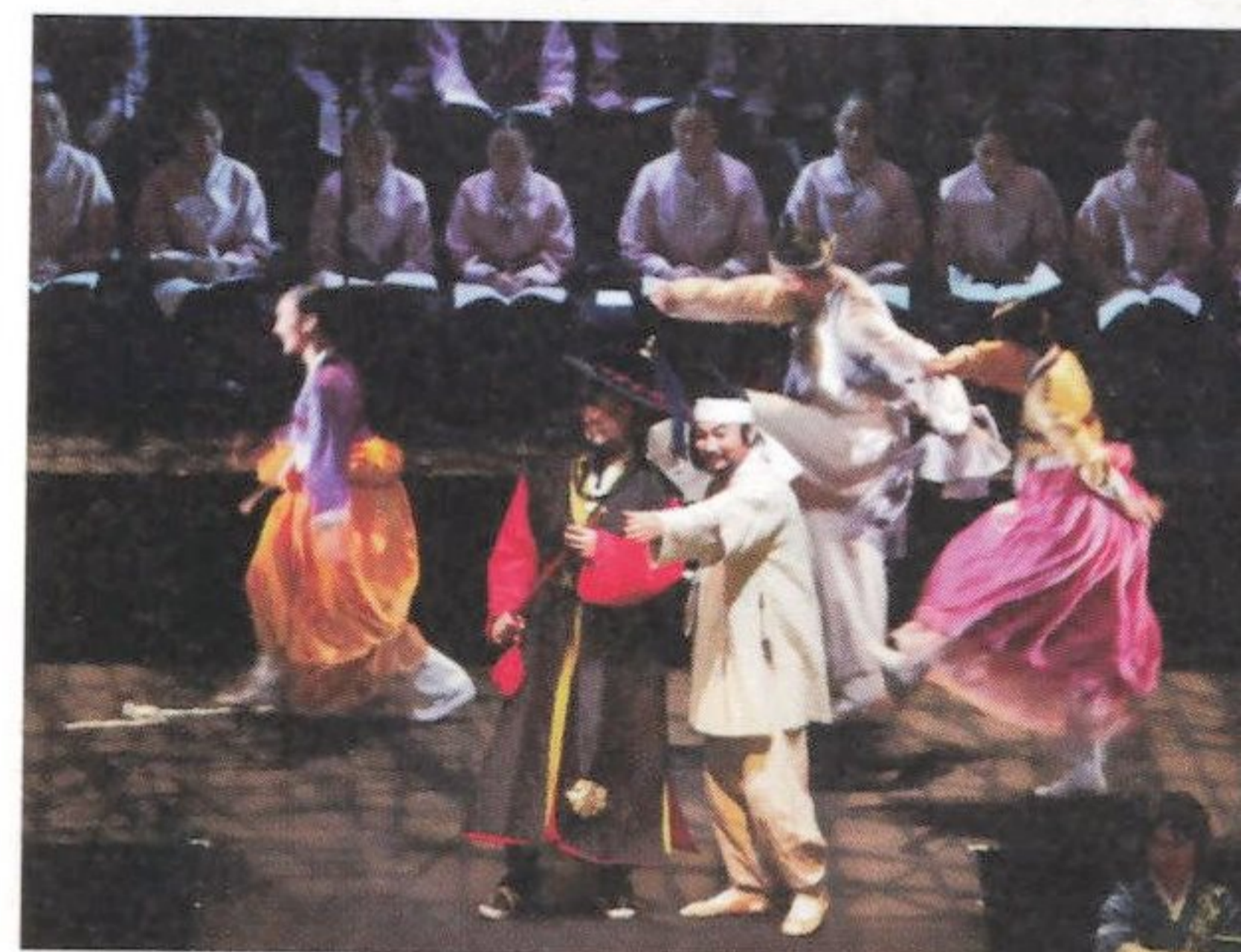
왜군에 맞서다 장렬히 전사한 송상현 동래부사의 결의와 인간애, 동래성을 지키다 목숨을 다한 동래읍성민들의 충(忠)과 의(義)를 현대적인 감각의 국악칸타타 형식으로 제작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이 4월 25일부터 3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2011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예술단 합동공연으로 초연된 '동래성 붉은 꽃'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의 깊이 있는 음악세계와 웅장한 사운드에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등의 합창, 연극, 무용이 더해진 대규모 총체극으로, 동래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인물을 새롭게 재조명해 청중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레퍼토리에 도전하기 위해 대본과 음악을 보완, 극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전체 2막으로 구성된 '동래성 붉은 꽃'은 국악의 틀에 서양의 칸타타(바로크시대에 발전한 성악곡) 형식을 가져왔다. 전체 음악을 이끌어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외 합창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성악전공자 등 200여명의 출연진이 참가, 화려하고도 웅장한 무대,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동래성을 지키다 목숨을 버린 송상현 부사와 동래읍성민들의 애국충정을 오늘, 지금에 되살려낸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김철호 수석지휘자가 예술총감독을 맡아 이끌고, 국립극단의 이병훈 상임연출가가 이 작품의 총연출을 맡는다. 두 사람은 현재 우리 음악과 연극계의 중심에서 있는 실력파로, 그동안 많은 작품을 통해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감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감각화하는데 탁월함을 보여 왔다.

현재 극단 미추 예술감독, 아스테지(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이사, 과천한마당축제 이사, 운영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병훈 연출가는 국립국악원 '화평 기원의 마음을 담아', 명동예술극장 개관공연 '맹진사댁 경사', 베세토연극제 동경공연 '리어왕', 국립오페라단 '아랑', 국립국악원 '왕조의 꿈 태평서곡', 국립극단 '키친' 등 수백회의 연극, 뮤지컬을 연출하는 등 폭 넓은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대본은 초연 작업을 함께 한 백훈기, 음악은 강봉천이 맡는다. 예술집단 페테 (FETE) 대표, 중부대학교 뮤지컬 음악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백훈기는 연극 '망우리 만복이' 변안 및 연출, 연극 '달링' 연출, 뮤지컬 '천사 키오' 극작 및 가사, 뮤지컬 '탁탁 총총 그리스 한국 신화' 대본, 뮤지컬 '인터넷 데이팅'



일 시 4월 25일-26일 목-금요일 오후 7:30, 27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50% 할인, 가족요금제 1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으로 선보이는 樂歌舞

각색 및 연출, 퍼포먼스 '우리들의 장례식' 극작 및 연출 외 다수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국악원 원장, 가야금양상블 '현의 사랑' 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및 고법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강봉천은 그동안 국악관현악 '탈의 춤' '처용별곡' '절영의 전설' '우삭도', 무용곡 '꽃나무 풍장', 중주곡 '바람의 소리' '바다에 피는 꽃' '아이누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발표한 바 있다. 초연 당시 선보인 대본과 음악에 드라마틱한 구성과 웅장한 음악이 더해지면서 이번 공연은 초연 당시 1시간 10분이었던 공연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조정되었다.

칸타타를 이끌어 갈 송상현 부사는 2011년 초연에서 송상현 부사역으로 호평 받았던 바리톤 박대용이 다시 한번 송상현 부사에 도전, 구국의 충정을 노래한다. 동아대학교와 이태리 주셉배 니콜리니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박대용은 이태리 프란체스코칠레아 성악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다수 콩쿠르에서 수상하고 그동안 오페라 리골렛토,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라보엠, 피가로의 결혼 등 다양한 무대에서 청중들과 만나왔다. 막이 오르면 프롤로그로 소년소녀합창단과 합창단의 구음과 합창으로 임진왜란 당시 죽어간 동래부사 송상현과 백성들의 넋을 기린다. 이어 임진왜란 당시 동래의 성벽 바깥에 있던 초라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무덤이 소개된다. 동래성을 무너뜨린 후 왜장은 송상현의 기개와 정신에 감복하여 그의 장례를 치른다. 송상현이 죽은 지 보름여 만에 침입에 대비하지 않았던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몰래 수치스러운 피난길을 떠난다. 임금 떠난 빈 궁궐에 백성들이 부르는 절망과 원망의 노래가 죽은 송상현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대비되듯 울려 퍼진다.

이어지는 1막은 당파에 가담하지 않는 것도 당파가 되는 시대에 벼슬에 오르게 된 송상현이 임진왜란이 벌



어지기 전 해 동래부사로 부임하면서 백성을 돌보고 묵묵히 왜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이야기.

2막은 조선을 거쳐 중국과 인도까지 정벌할 뜻을 밝히며 바다를 건너온 풍신수길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송상현과 동래읍성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송상현은 부모가 살아있는 관노와 관비들에게 북문으로 빠져나가 고향으로 가라고 명하지만 송상현을 존경하고 깊이 사랑했던 이들은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겠다며 성내에 남는다.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은 내주는 것은 어렵다'고 왜장에 맞서 대응했지만 왜적의 화력에 동래성은 허물어져간다. 패배를 피할 수 없음을 안 송상현은 관복으로 갈아입고 임금과 부모가 계신 북쪽을 향해 네 번의 절을 올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부모에 대한 마음을 담은 글을 부채 위에 피로 쓰면서 왜적의 칼에 쓰러진다. 동래성을 완전히 점령한 후 왜장은 송상현의 기개와 정신에 감복하여 북진을 하기 전 그의 장례를 치러준다.

한편 고향의 송상현 모친은 아들이 올라탄 대나무가 하늘로 오르는 꿈을 꾸고는 자신이 어린 상현을 대나무처럼 키우고자 했던 지난날을 회상한다. 해설자가 암울한 시기에 더욱 고결하게 드러났던 그 낮을 기리는 노래가 이어지고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의(義)의 사람 송상현의 정신과 아름다웠던 동래성의 모습이 합창단의 노래로 그려지며 공연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구성

▶프롤로그

거기에 사람이 있었네(소년소녀합창단 구음), 낮의 소리(합창), 동래성 성벽 아래(백성들), 피난길 위에서(선조, 백성들)

▶1막

거기에 사람이 있었네(합창), 부산의 아침(연주 음악), 생선 사소(백성들), 갈매기는 평화롭고(송상현), 우리는 일본 상인들(일본 상인들), 전쟁이 온다네(일본 사신, 합창, 송상현), 왜적의 침략은 없다(사신들 합창), 하루 이틀(송상현)

▶2막

전쟁(합창), 검은 구름(합창), 나와 함께 했던(송상현), 쏟아져 들어오는(합창), 오라 죽음이여(송상현), 혈선발-쏟아져 들어오는 Reprise(합창), 북향사배(해설자, 송상현), 동백꽃 떨어지네(합창, 해설자), 어머니의 꿈(송상현 모), 신실하게 대하는데(합창), 거기에 사람이 있었네 Reprise(소년소녀합창단 구음), 기나긴 7년의 전쟁 - 낮의 소리 Reprise(해설자), 천곡선생이여(합창)

INTERVIEW



송상현 동래부사 바리톤 박대용

2011년 초연에 이어 송상현 동래부사 역을 이번에도 맡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은 우리의 역사를 무대 위로 고스란히 옮겨 놓은 작품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야말로 그런 작품입니다. 훈이 담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주옥같은 소리, 음악, 시립합창단과 시립극단, 시립무용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전통 소리와 음악, 합창, 춤 등으로 조화를 이루어 수많은 출연자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내는 '동래성 붉은 꽃'은 우리나라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창작극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상의 나라사랑 정신, 훈이 담긴 이런 교육적인 작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10대와 20대는 물론 극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칸타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9회 정기연주회

브루크너 심포니 IX



■ 지휘 리 신차오



■ 피아노 슈에 샤오추

2013년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베토벤 사이클'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4월 9일 중국 출신의 라이징 스타 슈에 샤오추가 협연하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과 브루크너의 마지막 교향곡 제9번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은 고금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가장 널리 애호되는 곡 중의 하나이다. 1874년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던 차이코프스키가 음악원장이자 명 피아니스트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에게 헌정했으나, 루빈스타인으로부터 심한 혹평을 받고 한스 폰 뷔로에게 다시 이곡을 헌정, 1875년 10월 뷔로에 의해 초연되어 널리 호평을 받았다. 이 곡은 러시아적 정서와 투명감이 흐르는 가운데, 슬프도록 아름답고 로맨틱한 선율이 세련된 감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중후하고 굵은 선과 색채적인 관현악법이 매력을 한껏 자아낸다.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난징 태생의 젊은 피아니스트 슈에 샤오추는 2004년 홍콩에서 열린 제3회 차이나 워크 피아노콩쿠르에서 '황하' 협주곡 부문 2위에 입상,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슈투트가르트 국립 음악공연예술대 학장의 추천을 받아 전액 장학생으로 이 대학에 입학하였다. 이후 2006년 3월 세르비아의 제3회 이시도르 바이지 국제 피아노콩쿠르 청소년 부분 1위를 차지한 슈에 샤오추는 제11회 미주리 서던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2007년 제7회 파드노프스키 국제피아노콩쿠르(폴란드)의 중국 예선 1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2010

년에는 유니버설 뮤직의 최연소 클래식 아티스트로 계약, 화제를 모았다. 슈에 샤오추는 유니버설 뮤직에서 발매한 첫 피아노 앨범 'Magic Finger'가 대만 메이저 차트인 'GMUSIC 클래식 뮤직 세일즈', 'KKBOX', 'EZPEER' 3곳에서 1위에 랭크되었고, 최근 2년간 대만 전체 클래식 음반 최다 판매량, 대만 독주회 3일 만에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우며 플래티넘을 달성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두 번째 음반 'Silent Songs'를 발매, 수많은 젊은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5개의 주요차트를 휩쓰는 등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에 이어 2부에서 연주될 메인곡 브루크너 '교향곡 제9번'은 브루크너의 유작이다. 1887년 작곡에 착수한 후 7년 동안 3악장까지 완성하고 건강악화로 마지막 피날레를 완성하지 못한 브루크너는 자신이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마지막 강의에서 이 작품의 피날레가 미완으로 끝났을 경우 그가 작곡한 '테 데움'을 그 대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암시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작품은 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과 함께 '가장 위대한 미완성 걸작'으로 평가되며 교향곡이야말로 그가 이룬 업적의 마지막 결정체라고 믿었던 브루크너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대작이다. 브루크너가 죽은 지 7년 후, 제자 뢰베(Lowe)에 의해 상당부분 개찬되어 1903년에 초연되었으며, 이후 음악학자 오렐(Orel)이 교정한 비판판에 의해 오리지널판이 1932년에 초연되었다.

이번 연주는 뢰베와 오렐판을 수정, 보완하여 2000년에 출판된 코어스(Cohrs)판으로 연주된다.

일 시 4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춘향전



■ 지휘 이동신



■ 연출 유철우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청중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한낮의 음악선물 2013 웰빙콘서트 시리즈 오페라 하이라이트 두 번째 무대가 4월 25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2월 '리골레토' 무대에 이어 4월에는 1950년 초연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오페라 '춘향전' 하이라이트 무대. 작곡자 현제명의 지휘로 초연된 '춘향전'은 현제명이 춘향전을 19세기 이탈리아 그랜드 오페라 형식으로 옮긴 작품이다. 당시 유치진이 연출을 맡아 호평을 받았고 6·25 전쟁시 온 국민이 전쟁의 혼란 속에 있을 때 피난지 대구와 부산에서 1951년 7월, 다시 공연되어 음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경치 좋다 광한루, 오월단오, 온 누리엔 봄빛, 물위에 나는 기러기, 달아달아 밝은 달, 한번을 보아도 내 사랑, 나는 이곳 제일가는 사또님인데, 동편 하늘 밝아온다 등 전통설화의 익숙한 장면들을 아리아와 함께 만날 수 있다.

오페라 '춘향전'의 감동을 살리며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동신 지휘자가 지휘와 해설을, 오페라 전문 연출가 유철우가 연출을 맡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릭터들을 생동감있게 그려낸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졸업하고 도미, 뉴욕타임스로부터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소프라노'라는 격찬을 받으며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신민원이 춘향으로, 대구 성악콩쿠르(1999) 및 고태국 성악콩쿠르(2000) 우수상, 이탈리아 베르디 국제성악콩쿠르(2002) 3위, 이탈리아 FERMO 국제성악콩쿠르(2003) 2위, C.D.M 국제성악콩쿠르(2003) 특별상 등을 수상한 테너 홍지형이 몽룡으로 출연한다. 그 외 이탈리아 Novara 'Guido Cantelli' 국립음악원을 최고점수로 수석졸업하고 이탈리아 Ravenna 'I Giovanni Per I Giovanni' 콩쿠르 1위, 이탈리아 Porana Lirica 국제콩쿠르 특별상(Premio Mozart), 이탈리아 Citta' Di Lissone 콩쿠르 Musica Da Camera 부문 1위 등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 합창단' 지휘자, 영도경찰서 '태종대 콰이어' 지휘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한정현이 변사또로, 부산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을 역임한 소프라노 정재연이 향단, 부산 YMCA 오페라합창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정하가 방자로 열연한다.

일 시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1: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소프라노 신민원



■ 테너 홍지형



■ 바리톤 한정현



■ 소프라노 정재연



■ 테너 김정하



부산국제연극제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스페인 YLLANA Production '파가니니' [개막작]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Digilog(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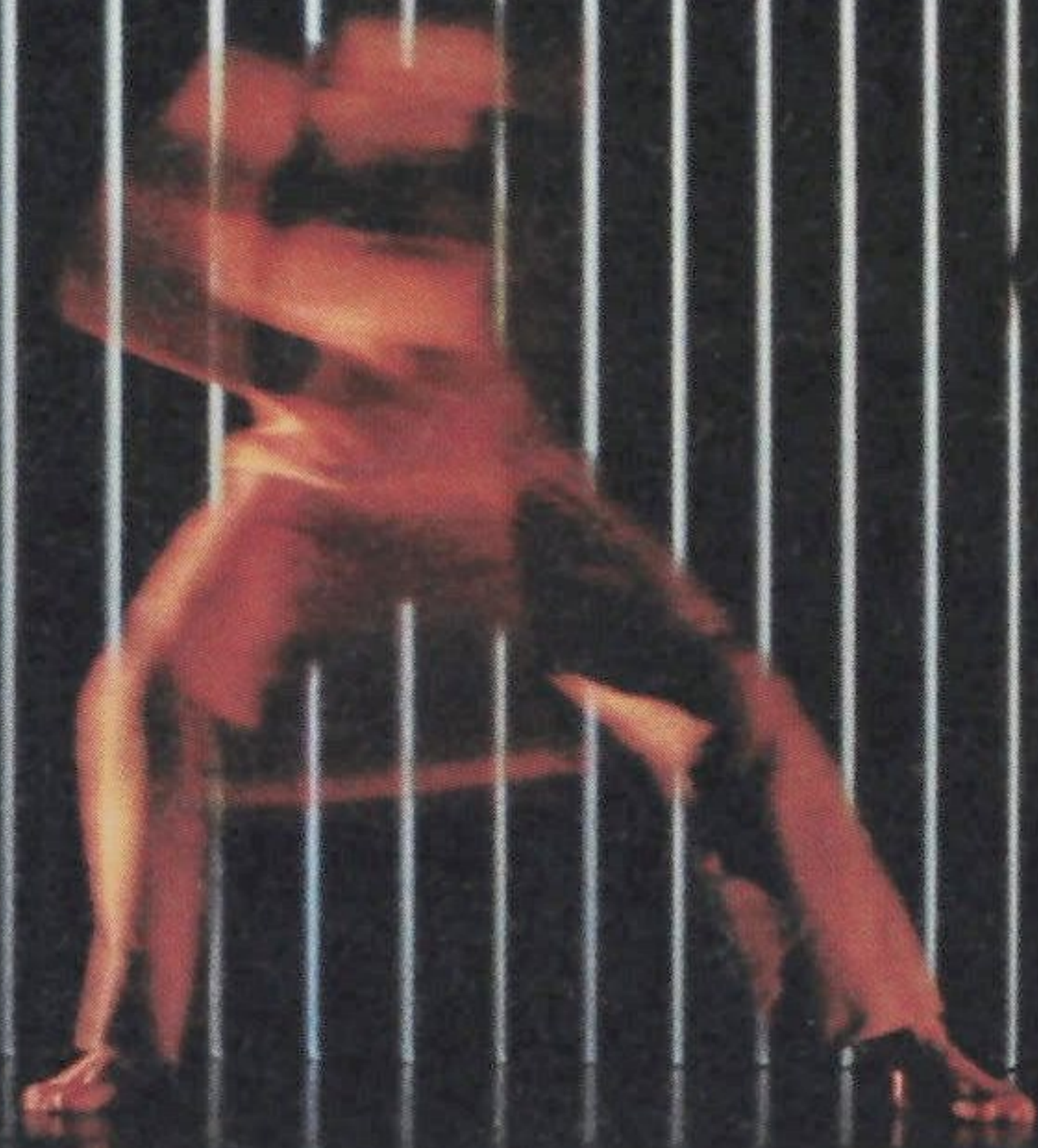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가 5월 3일부터 12일까지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부산지역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부산국제연극제의 컨셉은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Digilog(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올해는 컨셉을 주제로 한 화제작을 선보이는 'BIPAF CONCEPT', 형식과 컨셉, 장르에 제한 없이

국내외 우수작을 소개하는 'BIPAF OPEN'을 통해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 한국 등 7개국 27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의 그 화려한 막을 여는 개막작은 스페인 신체 코미디극 극단 YLLANA Production의 '파가니니'. 파가니니는 2009년 부산국제연극제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역대 참가작 중 관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부산국제연극제 1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부산을 찾는다. 2008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최고작품

5월 3(금)-5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예노소극장
액터스소극장, 공간소극장 등
부산 시내 공연장



■ 오스트리아 Klaus Obermaier '유령'[폐막작]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일본 등 7개국 27개 작품 참가

상을 수상한 '파가니니'는 천재음악가 파가니니의 삶과 작품세계를 아름다운 음악메들리로 풀어낸다. 폐막작은 음악, 연극, 뉴미디어 분야를 넘나드는 오스트리아의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안무가, 작곡가인 클라우스 오베마이어(Klaus Obermaier)의 미디어 퍼포먼스극 '유령'으로 선정되었다. '유령'은 라이브 공연과 사운드가 프로그램으로 투영되어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준높은 무대 기술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공연 예술의 볼거리를 제시한다.

또, 기존 초청작 외에 2014년 프랑스 아비뇽 OFF축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Go, 아비뇽 OFF' 경연은 올해 규모를 더욱 확대해 모두 17개 작품이 경연에 참가, 부산국제연극제 기간동안 열띤 경쟁을 펼친다. 지난해 시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에 마련된 BIPAF ZONE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신청한 작품으로 꾸며지는 '야외공연'과 시민들의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10분 연극제'가 펼쳐진다.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올해 처음 마련되는 '야외공연'은 '축제 속의 축제, 모두에게 열린 또 다른 축제의 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극, 음악, 무용, 퍼포먼스, 마술 등 총 14개 작품이 봄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밖에 'BIPAF CONCEPT'에 초청된 작품 관람에 앞서 그 작품에 참여한 기술진과의 대화를 통해 작품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Digitalk)'과 배우와 관객이 만드는 소통의 시간 '관객과의 대화', 현대 프랑스 연극계를 이끌어온 세계적인 연출가 베르나르 소벨과 함께하는 'BIPAF 워크숍'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 입장료 | 균일 10,000원

5+2 Ticket(초청작 5편+GO, 아비뇽OFF 2편)
50,000원, 전 공연 프리패스 카드 100,000원

■ 문의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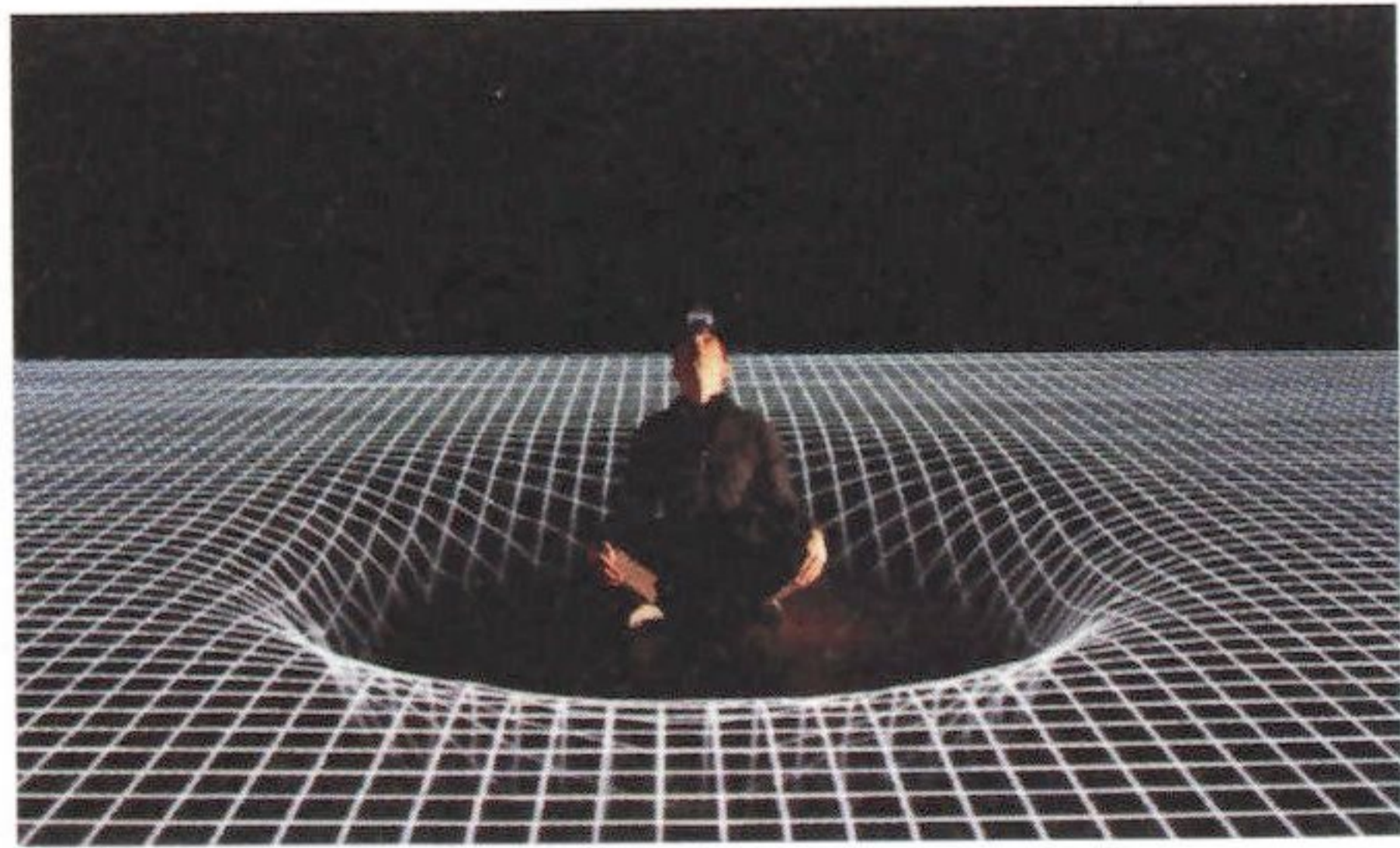
■ 대만 Mobius Strip Theatre '일그러진 도시'

▶ BIPAF CONCEPT

프랑스 Adrien M/Claire B '시네마띠크'

5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두 무용수의 퍼포먼스를 통해 유쾌한 감성, 풍부한 상상력을 펼치는 디지털 퍼포먼스극.

한국 극단 하땅세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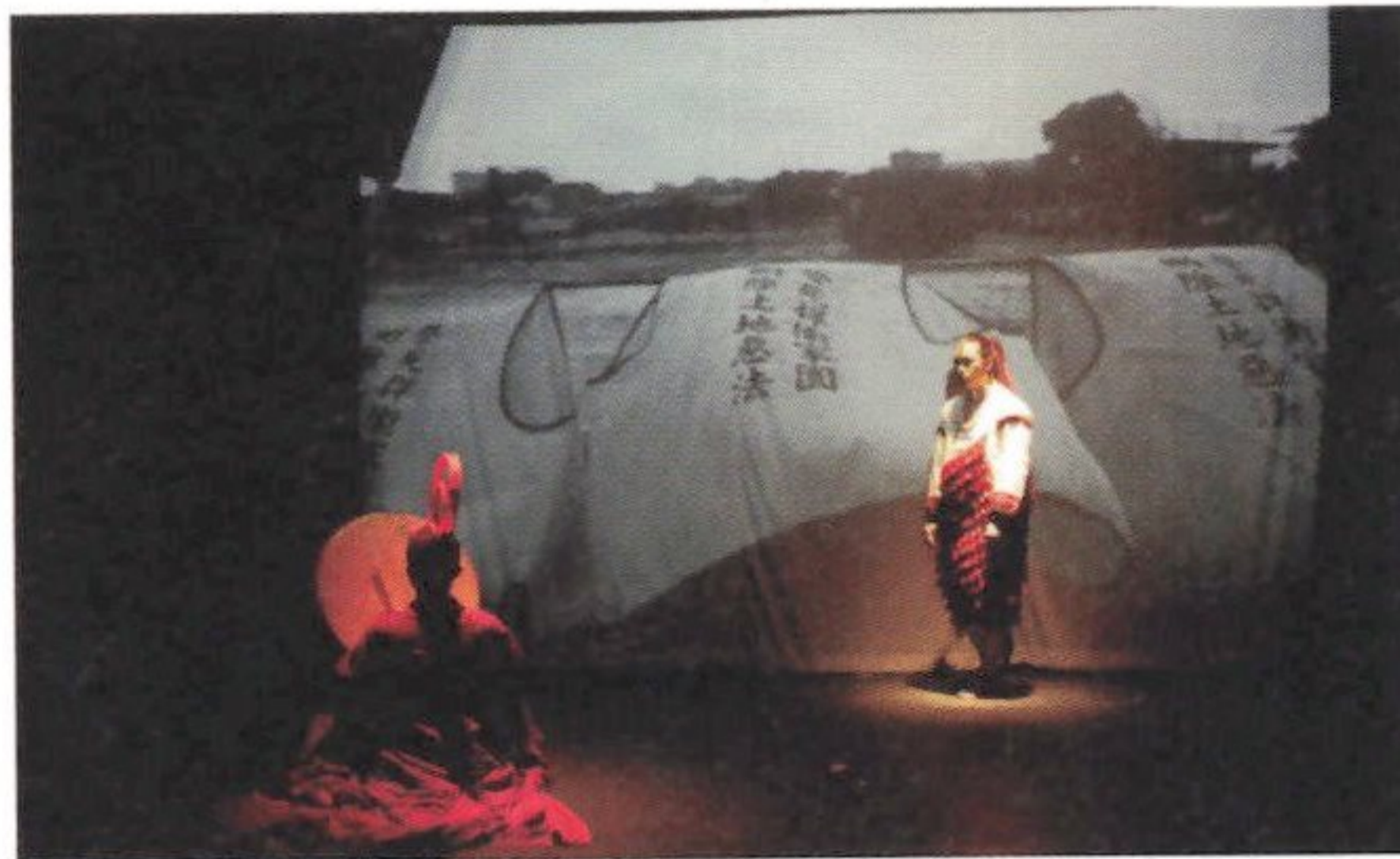
5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2:00, 5: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여행 속 작은 세상을 배경으로 배우와 인형, 영상이 어우러지는 마법같은 세계. 서울국제어린이연극상 최우수작품상, 최고인기상 등 수상.

대만 Mobius Strip Theatre '일그러진 도시'

5월 5일 일요일 오후 6:00, 6일-7일 월-화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디지털 아트와 전자음악, 드럼을 이용, 대만의 전통노래를 통해 인류의 본래적 성향을 다룬 작품.

스페인 'NAIF'

5월 7일-8일 화-수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일본 신주쿠양산박 '도우겐의 슬픈 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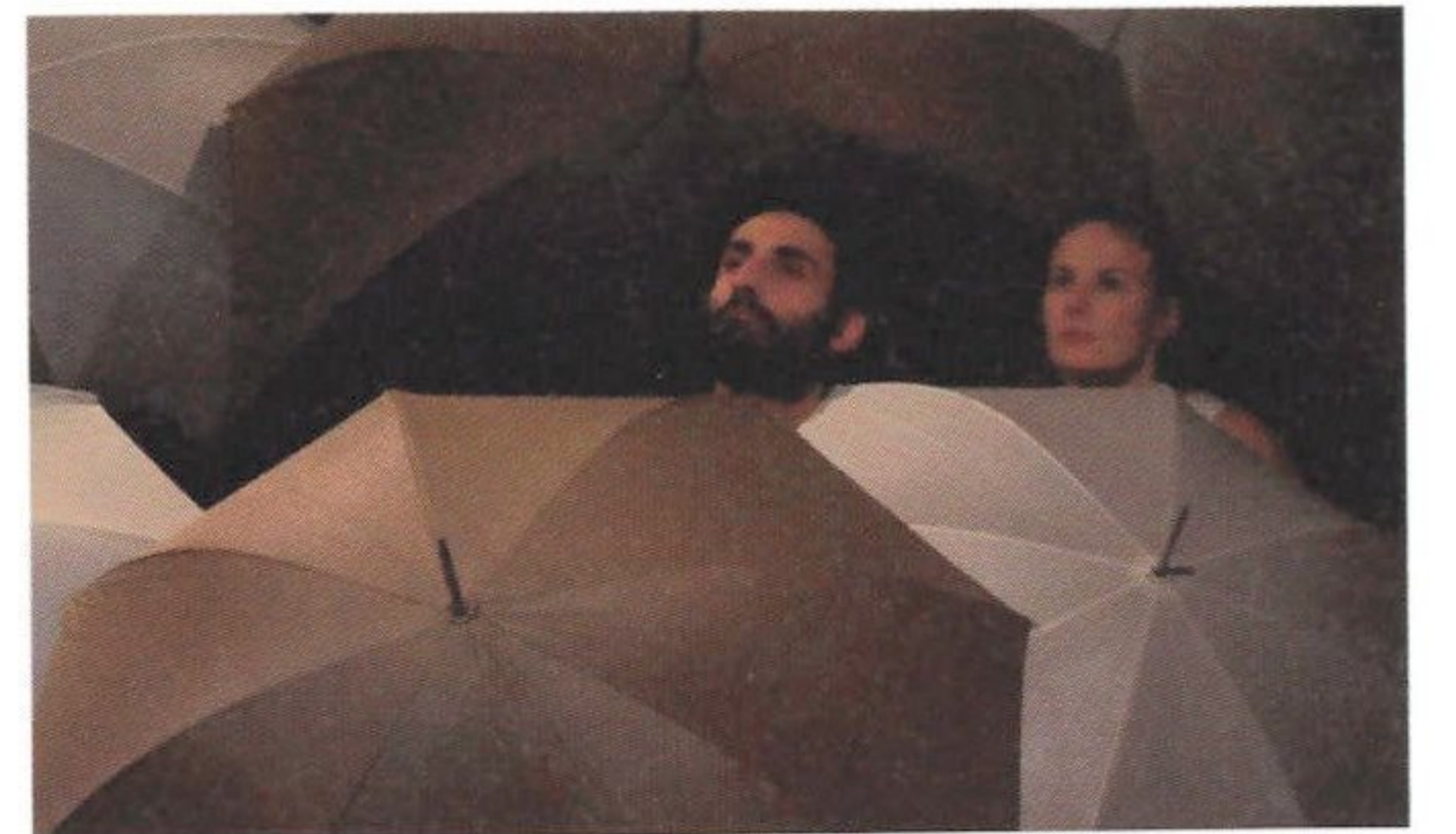
5월 8일-10일 수-금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일본 현대 연극계의 기수 고바야시 코지와 김수진이 연출한 에도시대와 현재를 넘나드는 비극적 사랑이야기.

영국 Anomic Multimedia Theatre 'Chapter6:인생'

5월 9일-10일 목-금요일 오후 8:00, 11일 토요일 오후

6: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죽음의 운명에 직면한 어린 소녀의 마음을 통해 떠나는 여행.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멀티미디어를 통해 펼쳐진다.

오스트리아 Klaus Obermaier '유령'[폐막작]

5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디지털 시대, 관객들에게 새로운 공연예술의 불거리를 제시하는 미디어 퍼포먼스로 라이브 공연과 사운드로 투영,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 BIPAF OPEN

스페인 YLLANA Production '파가니니' [개막작]

5월 3일 금요일 오후 7:00, 4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치있는 유머와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클래식 퍼

포먼스극. 2008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최고작품상 수상.

2013 부산연극제 대상작

5월 7일-8일 화-수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운(雲) 프로젝트 그룹 'Ugly Man' [BIPAF 공동제작]

5월 10일 금요일 오후 6:00, 11일 토요일 오후 4: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삶을 살고 있는 광대들의 일상을 우화적이고 코믹하게 풀어낸 난버벌극.

▶Go, 아비뇽OFF

극단 까망 '나는 처용'

5월 3일 금요일 오후 3:30, 4일 토요일 오후 6:30
공간소극장

난버벌 퍼포먼스와 무용, 디지털이 처용 설화와 만나 오늘의 감성을 담아낸 작품. (작, 안무, 연출/강만홍)

예술다리 전설의 삼선교 '꽃담'

5월 3일 금요일 오후 6:30, 4일 토요일 오후 9:30
공간소극장



을미사변 뒤 9살에 궁에 들어간 궁녀 연이와 염쟁이 천삼 등 역사 뒤 숨겨진 소박한 민초들의 이야기를 신명과 해학으로 풀어낸 작품. (연출/안치선)

극단 장이 '어떤 사건'

5월 3일 금요일 오후 9:30, 4일 토요일 오후 3:30
공간소극장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 그 관계속에서 싹튼 비틀어진 욕망을 갈구하는 인물들을 엉뚱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 (연출/이성호)

극단 누리에 '쥬'

5월 4일 토요일 오후 1:00, 5일 일요일 오후 7:00
액터스소극장

권력과 계급에 의해 드러나는 인간의 욕심과 잔인함, 인간 내면의 어두운 본성을 파헤치는 작품. (작, 연출/강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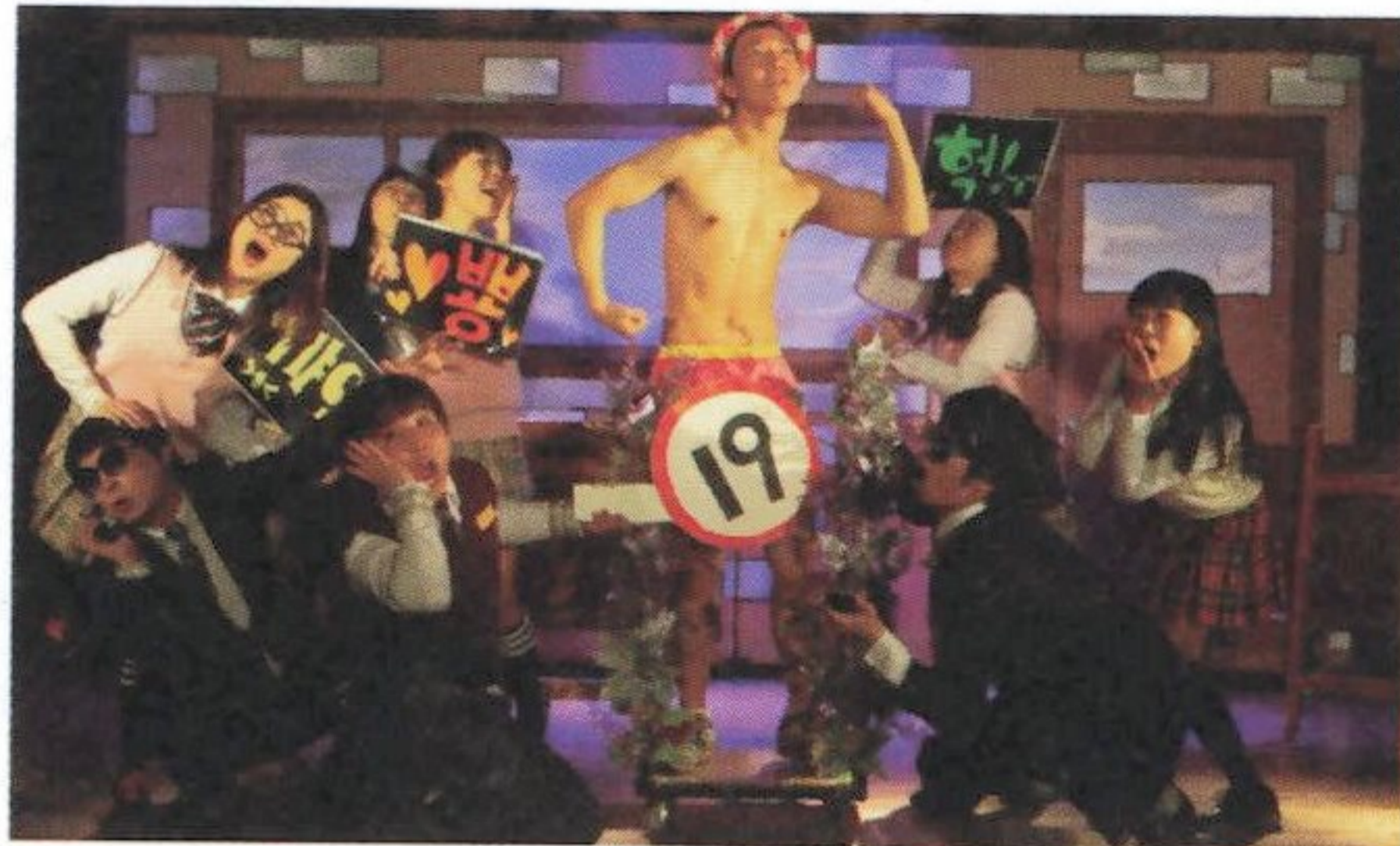
극단 76 '상대방의 자리'

5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5일 일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부조리한 상황 속에 놓인 인물들을 통해 연극보다 더 부조리한 우리네 삶을 되돌아보는 작품. (연출/김국희)

극단 디아코노스 '네가 그리는 동안에'

5월 6일 월요일 오후 3:30, 7일 화요일 오후 9:30
공간소극장



학교 폭력에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작, 연출/이경미)

예술창작집단 몽우

'집은 임금ियो, 그대들은 황제이다'

5월 6일 월요일 오후 6:30, 7일 화요일 오후 3:30
공간소극장

탈을 쓰고 권력가들의 부정을 꾸짖던 해학의 신명을 현재로 가져와 재해석한 작품. (연출/박정현)

극단 소리 '별'

5월 6일 월요일 오후 9:30, 7일 화요일 오후 6:30
공간소극장

종횡무진 자유를 찾아 떠나는 록 뮤지컬 콘서트. (작, 연출/정기환)

극단 기차 '구름에 걸린 구두'

5월 7일 화요일 오후 1:00, 8일 수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자그마한 구둣방속에서 벌어지는 커다란 세상이야기. 대사가 없는 난버벌 형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 (작, 연출/이나경)

극단 노가리 '붉은 장미의 탱고'

5월 7일 화요일 오후 4:00, 8일 수요일 오후 7:00
액터스소극장

관능적인 탱고와 전쟁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 (연출/박민국)

친구네 옥상 '요한 프란츠'

5월 7일 화요일 오후 7:00, 8일 수요일 오후 1:00
액터스소극장

보이책이 받았을 가족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무대에 형상화한 작품. (연출/한관희)

극단 나무 '이야기 하루'

5월 9일 목요일 오후 3:30, 10일 목요일 오후 6:30
공간소극장

환상적인 종이 오브제와 아코디언 음악이 만난 인형극으로 하루 할아버지의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여행이 펼쳐진다. (연출/기태인)

트러스트 무용단 'Yom'

5월 9일 목요일 오후 6:30, 10일 금요일 오후 9:30
공간소극장

거리춤의 형식에 '마법과 인형극단'의 옥종근이 제작한 오브제를 접목시킨 색다른 형식의 작품. (안무/김형희, 연출/김윤규)

창작집단 거기가면 '반호프'

5월 9일 목요일 오후 9:30, 10일 금요일 오후 3:30
공간소극장

마스크 난버벌과 한국적 감성이 만난 새로운 난버벌 퍼포먼스극으로 현대적인 감성으로 한국문화를 소개. (총괄기획/마창훈)

극단 해오름 '꿈을 파는 가게 신문 공주'

5월 10일-11일 금-토요일 오후 1:00 액터스소극장

오브제와 두드림, 몸짓을 이용한 가족극으로 관객들에게 꿈과 동심을 심어준다. (연출/강선아)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머무르다'

5월 10일 금요일 오후 4:00, 11일 토요일 오후 7:00
액터스소극장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 꿈꾸고 싶은, 현대인의 외로움을 그린 작품. (작, 연출/윤우진)

극단 DR '경련'

5월 10일 금요일 오후 7:00, 11일 토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현대사회의 지칠대로 지친 자들의 두려움을 부조리극으로 표현, 우리네 삶의 정답을 찾는 작품. (연출/이혁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철권 호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

부산의 정신을 담은 대표 레퍼토리에 도전

2011년 새로운 형식의 국악칸타타로 호평을 받았던 '동래성 붉은 꽃'이 4월 25일부터 3일간 새롭게 막이 오른다. 공연 일정이 다가오면서 '동래성 붉은 꽃'을 진두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수석지휘자와 예술단원들이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다.

전체 2막으로 구성된 '동래성 붉은 꽃'은 국악의 틀에 서양의 칸타타(바로크시대에 발전한 성악곡) 형식을 가져온 새로운 형식의 무대이다. 특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합창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체극인 만큼 김철호 지휘자는 '싸우다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키기는 어렵다(戰死易假道難)'며 마지막까지 왜군에 대항한 송상현 부사의 결연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작품 준비에 임하고 있다.

“지휘자 취임 후 부산지역의 이야기, 역사를 중심에 둔 작품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단원들과 함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을 근대 도시로 알고 있지만 의미 있는 역사를 가진 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영도, 동백섬 전설 등 많은 역사적 사건을 찾던 중 송상현 동래 부사에 접근하게 되었죠. 송상현 부사는 3천명이 채 되

지 않았던 동래성 병사들과 3만명이나 되는 왜군에게 대적해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며 음악적인 감동을 살린 국악칸타타 제작에 뜻을 모아 2011년 '동래성 붉은 꽃' 초연무대가 이루어졌고, 당시 서양 음악의 양식에 우리의 정서를 담아낸 신선한 작품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김철호 지휘자는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을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초연 이후에도 줄곧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해왔다.

초연 무대에 이어 이번 4월 무대에서도 국립극단의 이병훈 상임연출가가 연출을, 예술집단 페테(FETE) 대표 백훈기가 대본을, 촉망받는 부산의 작곡가 강봉천이 작곡을 맡아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의 의의를 다지고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태었다.

음악계에서는 오랫동안 예술적 교류를 가져온 김철호 지휘자와 이병훈 연출가 두 거장의 만남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은 특히 우리 음악과 연극계의 중심에서 있는 실력파로,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감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감각화하는 데 탁월함을 보여 왔다. 이번 무대는 음악과 드라마적인 요소를 보강해 공연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어나고 웅장함과 화려함에 잔잔한 재미를 더해 부산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선보일 예정이다. 초연 무대에 이어 바리톤 박대용이 성의와 신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충과 의를 다한 송상현 부사역을 맡아 열연한다.

“지금은 동래성에서 선조들이 보여 준 애국심, 기개,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대표하는 장군이지만 임진왜란 초기 송상현 장군과 동래 읍성민들이 없었다면 전쟁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장 고니시도 예를 갖추어 송상현 장군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치러주었을 정도로 장군은 만인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인 기존 정기연주회와 달리 합창, 무용, 연극적인 요소와 무대, 조명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대작이라 김철호 지휘자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그는 전 단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민들이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을 통해 송상현 장군이 남긴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면서 예술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베이징의 전통을 만날 수 있는

후통(胡同, 골목길) 여행

■ 허정애_ 베이징 온바오 팀장





■ 엔다이세제

베이징 여행의 최고는 후통(胡同, 골목길) 여행이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베이징의 전통을 만날 수 있고 베이징 서민생활을 느낄 수 있다. 베이징 후통에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알고 후통을 거닐면 중국 역사의 산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포근해지는 봄 기운을 느끼면서 가벼운 옷차림과 카메라 한대 챙겨서 후통을 따라 느릿느릿 걸어본다.

베이징의 빼놓을 수 없는 멋은 도심 곳곳을 휘감아 도는 후통(胡同)과 반듯한 네모 형태로 지어진 단아한 쓰허웬(四合院, '口'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북경의 전통 주택 양식). 골목 하나, 쓰허웬 한 채마다 담긴 사연은 어느 것 하나 정겹지 않은 게 없다. 베이징 토박이들의 생활과 일상이 녹아 있는 후통은 고관대작의 행차를 피해 뒷골목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서민들의 생활터전으로 700년 전쯤부터 별다른 변화 없이 보존되어 왔다. 옛 교통수단인 삼륜인력거를 타고 골목골목 돌면 스차하이에서 불어오는 봄바람도 기분 좋다. 서쪽을 지나 인딩교(銀錠橋)를 거쳐 구러우(鼓楼)로 올라 베이징 옛 도성의 모습과 팔방으로 통하는 후통을 내려다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허우하이로 가서 평범한 쓰허웬에 들어가 베이징 사람들과 이것저것 대화도 나눠보면서 그들의 생활도 엿보자.

엔다이세제(烟袋斜街 담뱃대거리)

엔다이세제(烟袋斜街)는 베이징의 오랜 전통거리 중 하나로, 이 거리의 모양 자체가 긴 담뱃대의 형태라는 것이 재미있다. 300m정도의 거리는 담뱃대의 대 모양으로 서쪽 입구 끝부분에 이르면 남쪽으로 굽어져 있는데 인딩교(銀錠橋)로 통한다. 이곳은 마치 담뱃대 중 담배를 담는 부분과 아주 흡사하다. 엔다이세제(烟袋斜街)의 담뱃대 가게는 대부분 높은 층계로 되어 있고 문 앞에는 잘 꾸며진 1m정도의 목제 담뱃대가 간판으로 세워져 있어 누구나 담뱃대를 파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거리는 원나라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청대 말부터 1920~30년대까지 담뱃대(烟袋)와 물담배대(水烟袋) 등의 담배도구와 골동품, 서화, 표구, 문구 및 먹거리 가게들이 즐비했다. 오늘날 이 골목에는 주로 공예품, 의류소매업과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들이 들어서 있다. 이곳의 건축은 소박하고 우아하며 짙은 옛 북경의 정취가 있어 베이징 사람들은 이곳에 특별히 깊은 감정을 갖는다. 특히 이곳은 예부터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딩교를 지나면 스차하이(什刹海)가 나온다. 10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해서 스차하이(什刹海)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곳은 치엔하이(前海), 호우하이(后海), 시하이(西海) 등 3개의 호수 주변을 말한다. 예전에는 인딩교를 기준으로 동쪽은 상업구, 서쪽은 고관대작들의 사택, 남쪽은

기생가(주점), 북쪽은 서민지역(빈민가)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곳에는 청 말기에 정권을 휘두른 서태후와 한때 정권 다툼을 벌였던 공친왕(恭親王:청나라 7대 황제 문종(文宗)의 동생)의 집인 공왕부(恭王府:현존하는 중국에서 가장 큰 쓰허웬)가 있다. 그리고 중국 혁명의 아버지 '쑨원(孫文, 손중산. 청나라를 붕괴시키고 중화민국을 창건한 인물로 중국에서는 국부(國父)로 불림)의 부인 쑹칭링(宋庆齡)이 살던 집과 신중국 시기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역사학자 귀모러(郭沫若)의 고가가 있다.

최근 들어 삼륜자전거를 타고 스차하이 주변의 후통과 사합원을 유람할 수 있는 '후통 유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난뤄구샹(南锣鼓巷)

후통만이 줄 수 있는 고즈넉한 분위기 덕분에 외국인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스팟이 된 거리. 아무렇게나 셔

터를 눌러도 다 작품 사진이 나올 것 같은 독특한 거리 풍경이 바로 이곳 '난뤄구샹(南锣鼓巷)'의 최대 매력이다. 옛 베이징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조용히 사색하며 거닐 수 있는 이 골목길은 그 어떤 명소보다도 베이징을 베이징답게 만들어준다.

난뤄구샹은 베이징 동청구(东城区 동성구)의 아주 오래된 거리 중 하나로 너비가 그리 넓지 않으며, 원나라 대도(大都)의 당시 거리 및 후통을 여전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래된 쓰허웬을 카페로 개조해 아늑한 분위기와 고즈넉함이 평화롭다.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상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는 재미도 솔솔하다. 소박하고 정겨움이 넘치는 중국식 전통 가옥이 트렌디한 카페나 레스토랑, 바, 빈티지 숍 등으로 탈바꿈했다. 관광객이 많이지면서 매년 가을에는 난뤄구샹 축제도 열린다. 2009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 명소로도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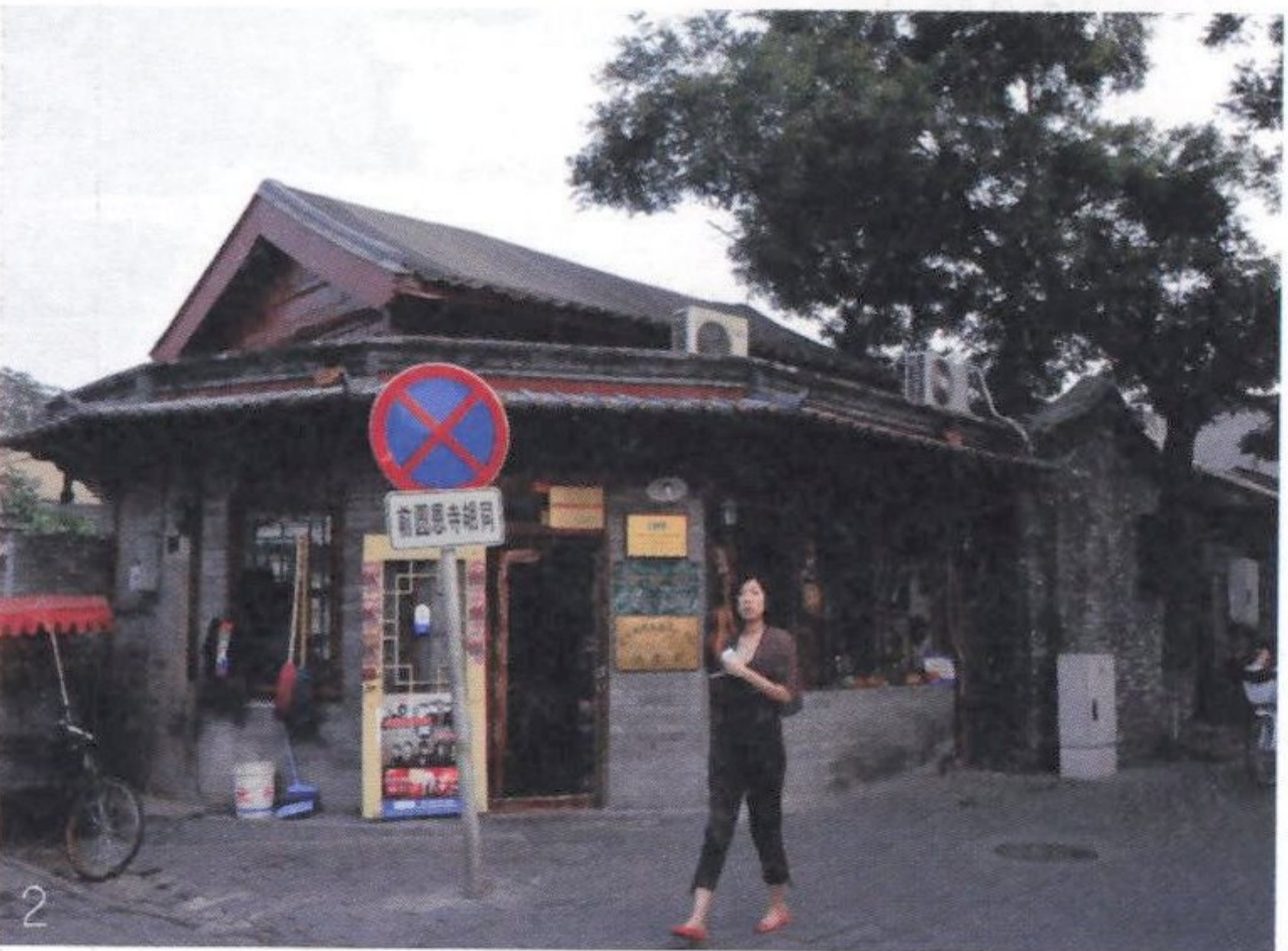
귀쯔젠거리(国子监街)

귀쯔젠거리(国子监街)는 동쪽으로는 융허궁다제(雍和宫大街)에서 시작해 서쪽으로는 안딩먼네이다제(安定门内大街)로 이어진다. 교육기관인 '국자감(国子监)'이 있기 때문에 '국자감거리'라 불리웠고, 원나라 초기에 형성되었다. 귀쯔젠거리는 베이징에서 옛 길과 골목의 풍모를 잘 간직하고 있는 몇몇 거리 중 하나다.

베이징에서 파이루(牌楼)를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거리로, 우뚝 솟은 파이루(牌楼)와 길

■ 귀쯔젠거리 입구





1. 삼륜자전거를 타고 스차하이 주변을 유람하는 '후통유람'
2. 난뤄구샹 거리풍경

■ 후통에는 이웃끼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흔한 풍경이다

양쪽으로 늘어선 오래된 화나무, 양변의 크고 작은 저택들과 묘당(廟宇), 어디 하나 옛 모습 아닌 것이 없으며 수려하고도 고요한 풍경까지 더해져 옛 도시의 내음을 은은하게 풍긴다. 귀쯔젠거리(韓愈街)는 당대에 이름을 크게 떨쳤던 문학가 한유(韓愈)를 기념하는 한문 공사당(韓文公祠)과 명대 건축물 화신묘(火神廟)와 부뚜막신 조왕야(灶王爺)를 제사 지내는 조군묘(灶君廟)도 있다.

류리창 문화거리(琉璃厂文化街)

텐안먼광장(天安门广场 천안문광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류리창은 쉬안우구(宣武区 선무구)에 위치해 있다. 전체길이 8백 미터로 서쪽은 난베이류샹(南北柳巷, 남북 류향)으로 시작해서 동으로는 옌서우쓰제(延寿 연수사가)까지 이르고 있다. 요·금 시대 하이왕촌(海王村, 해양촌)으로 유명했던 이곳은 원·명나라 때 국영 가마터를 건설해 황궁에서 사용하는 유리 기와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류리창'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청 강희(康熙)부터 건륭(乾隆) 연간 동안에는 점차적으로 골동품을 판매하는 유명 문화거리로 변모했다. 건륭 연간에 들어서면서 기와 제작은 중지됐지만 '류리창'이란 명칭은 지금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다. 현재는 도서, 옥석(玉石), 도자기, 조각, 청동기, 문자와 그림, 문방사육 등 고품격 문화예술품들이 모인 곳이자 고대 수도의 풍모를 느낄 수 있는 관광구역이 되었다



니체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

■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의 대표작이다. 니체는 목사 집안에 태어났으면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거부한다. 또한 헬레니즘의 두 요소 중 이성적이며 조화를 추구하는 아폴론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열적이며 도취적인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으로 인간을 파악하기보다는 의지로 인간을 파악하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그는 맹목적 의지에 반대하고 권력에의 의지와 운명애를 통한 영원회귀사상에 이른다. 권력에의 의지를 실현하는 인간은 곧 '초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나 이성적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 새로운 가치 세계의 발현을 외치는 예언자이다. 니체는 19세기말 당시 유럽의 시민적-기독교적인 세계의 타락상과 독일 사회문화의 경직성을 보면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 즉 '초인'이 겪어야 할 운명과, 그가 누릴 자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려고 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철학을 계승하는 '생의 철학'의 기수이며, 키르케고르와 함께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지칭되는 니체(1844-1900)는 독일 레켄에서 태어났다. 목사인 아버지를 다섯 살 때 여의고 어머니, 누이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에서 자라났다. 열네 살 때 슈포르타 공립학교에서 엄격한 고전교육을 받았고 스무 살 때 본대학에 입학하여 고대그리스, 로마 문학에 몰두하였다. 스승을 따라 라이프치히대학으로 옮겨 공부하는 동안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서 깊은 감명과 영향을 받았고, 또 바그너를 알게 되어 그의 음악에 심취하였다.

스물다섯 살에 스위스의 바젤대학 고전문헌학의 교수가 되었고 스물여덟 살 때 쓴 〈비극의 탄생〉을 통해 그리스 비극의 탄생과 완성을 아폴론적,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두 가지 원리로 해명하고, 소크라테스적 주지주의에 의거하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몰락을, 그리고 바그너의 음악에서 그것의 부흥을 고찰한다.

〈반시대적 고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는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의 승리에 도취한 독일국민과 그 문화를 비판하고 유럽 문화에 대한 회의를 표명한다. 또 과거의 이상을 모두 우상이라 하고 새로운 이상으로의 가치전환을 의도하였다. 이미 고독에 빠지기 시작한 니체는 이 저술로 인하여 바그너와도 결별하였고, 건강의 악화, 특히 시력감퇴로 결국 서른다섯 살에 바젤대학을 퇴직하고, 주로 이탈리아 북부·프랑스 남부에서 요양하면서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니체는 〈여명〉, 〈환희의 지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성숙기에 접어든다. 〈선악의 피안〉에서는 근대를 형성해 온 그리스도교가 삶을 파괴하는 타락의 원인이라 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 〈도덕의 계보학〉에서는 약자의 도덕에 대하여 삶의 통일을 부여하는 강자의 도덕 수립을 시도하였으며, 미완의 역작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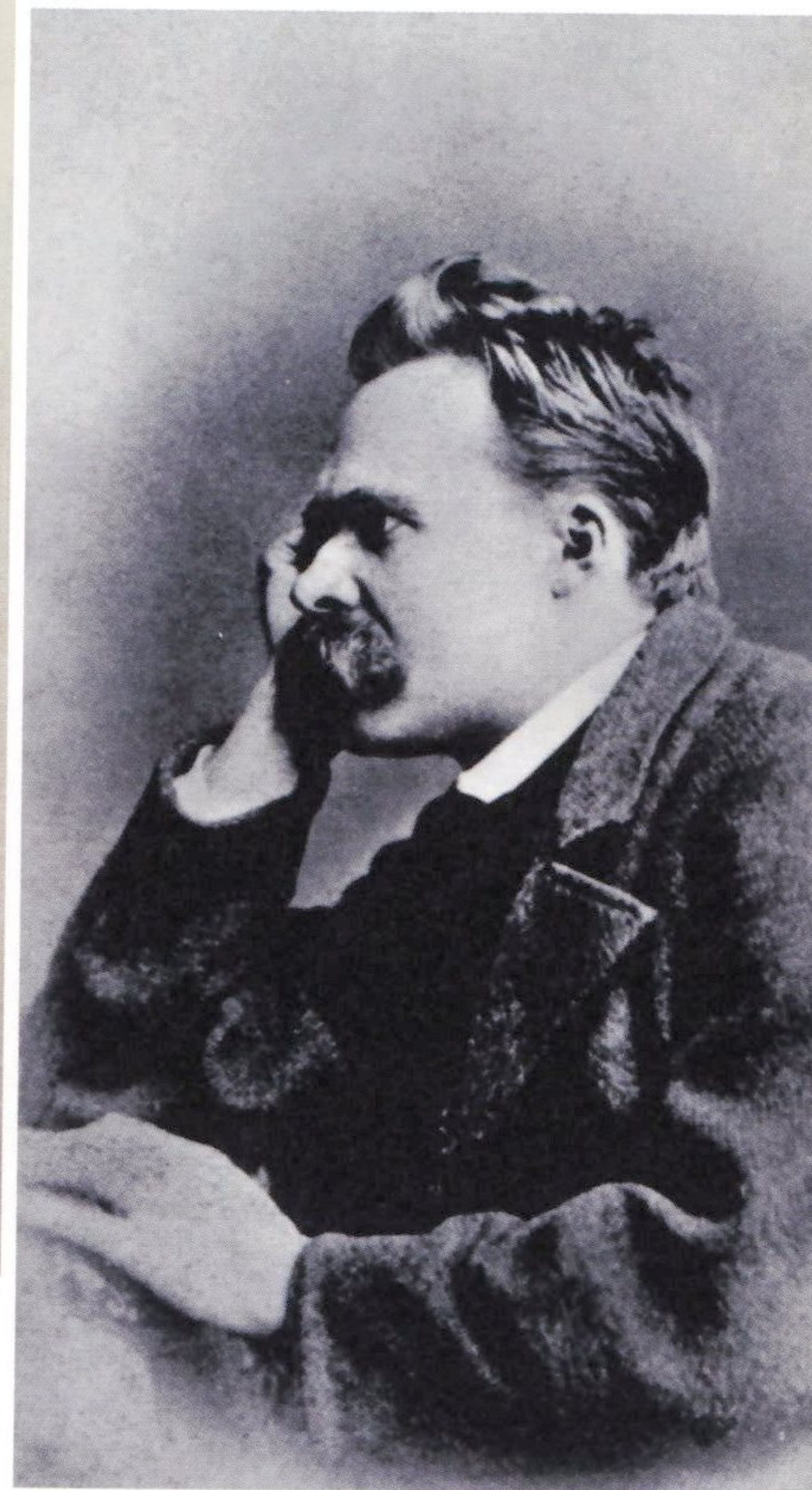
■ 음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력에의 의지》에서는 삶의 원리, 즉 존재의 근본적 본질을 해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흔네 살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그는 다음해 1월 토리노의 광장에서 졸도하였다. 그 이후 정신착란인 채 바이마르에서 사망하였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후기작품에 속한다. 니체는 먼저 1부와 2부를 1883년에 출판했다. 3부는 이듬해에 출판했고 마지막 4부는 그 이듬해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주지 않아서 사비를 들여 40부만 인쇄했다. 이 책은 페르시아의 종교창시자이며 예언자였던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의 내적 정신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한다.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니체

제1부는 차라투스트라가 산중에서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혼자 간직할 수 없어 하산하여 군중에게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인간이란 초극되어야 할 존재이다’라고 외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평범한 일상적인 인간은 참된 인간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인간은 생애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 언제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지만 회피하지 말고 감내하여 이겨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이를 극복하여 자유를 획득하고 자기의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창조자는 고독해지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형제여, 그대의 사랑과 창조와 함께 그대의 고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정의는 절름거리며 그대를 따를 것이다. 나의 형제여, 나의 눈물과 함께 그대여, 나의 눈물과 함께 그대의 고독으로 돌아가라.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여 멸망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제2부에는 새로운 초인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의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이미 신은 죽었기 때문에 신에 의존할 절대적 가치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근본적인 근거는 자기초극이다. ‘그 의지 자체이며, 권력에의 의지, 끊임없는 생산적인 삶의 의지’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선과 악-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꾸준히 그 자체를 초극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하여 선악에 있어서 창조자가 될 자는 우선 파괴자가 되어 가치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진리를 위해 파괴할 수 있는 것을 파괴하자!”

제3부에서는 부정되고 파괴되어야 할 현실의 긍정을 보여 준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그만큼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삶이란 환희의 샘이요, 부정을 통해 새로운 긍정을 성취하는 일이다. 현실이 부정된 성질의 것이라면 그러할수록 더욱 강한 용

기와 의지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욕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또한 창조한다. “항상 그대들이 추구하는 바를 행하라. 그러나 그에 앞서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제4부는 초인의 사상을 실행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니체는 결코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약간의 고귀한 사람들만이, 진실로 용기 있는 자만이 자기 초극에의 험한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왜소한 대중들은 그러한 고귀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그들에게는 초인의 윤리와 가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귀한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완전한 초인의 모습은 아니다. 자기 초극에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자들의 처참한 모습이다. 니체는 아직까지 한 사람의 초인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기에 모든 가치의 파괴와 도덕의 부정에 역점을 두어 저 허무의 세계에 이르고, 이 허무를 되씹으며 일어서는 초인의 탄생을 소망한다.

니체의 사상은 결코 체계적인 이론은 되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인간상의 제시는 현대철학과 현대문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품을 통해서 본 드뷔시의 음악 세계 1

“나는 음악만큼이나 그림을 사랑한다” 드뷔시는 대표적인 인상주의 음악가로 알려져 있고 그에 걸맞게 그림을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다. 드뷔시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연주자에게는 귀로 듣는 음악을 보이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상상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모차르트, 슈만, 쇼팽, 리스트 이외에 쿠프랭, 라보, 바흐 등의 음악이 드뷔시의 음악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드뷔시는 미술 뿐 아니라 문학에 큰 관심이 많았다. 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그는 다독을 통해 스스로를 교육했다. 보들레르, 에드가 알렌 포 등 상징주의 대표 작가, 그리고 당대의 시인 말라르메, 폴 베를렌, 라포르그 등을 좋아했고, 영국의 대표 작가 셰익스피어와 디킨스, 19세기 말 앨저넌 스윈번과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등의 시인에게 관심을 쏟았다. 드뷔시는 분명 인상주의 작곡가로 불렸지만 문학의 상징주의를 빼고 그의 음악을 생각하기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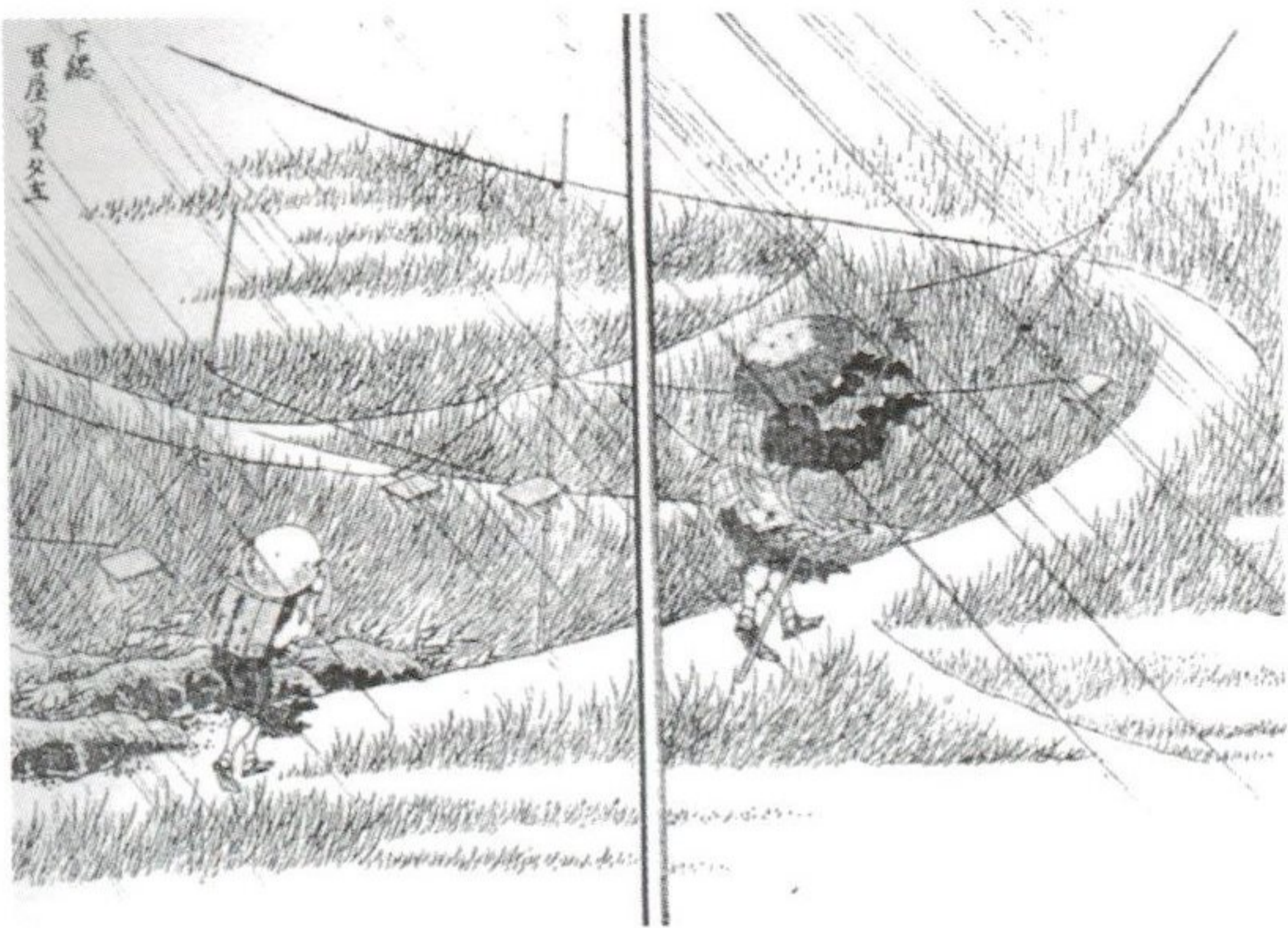
많은 작품 중 피아노 곡 ‘판화(Estampes)’는 드뷔시의 특징을 아주 잘 말해주는 곡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까지는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이 부족했다면 이 작품은 1903년에 썼고 새로운 세기를 열기에 충분한 곡이라 할 수 있다. 세 개의 악장 중 첫 악장 ‘탑(Pagodes)’과 둘째 악장 ‘그레나데에서의 저녁(La soirée dans Grenade)’은 소리로 시작된다. 청중을 상상속의 세계로 초대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 악장 ‘비오는 정원(Jardins sous la pluie)’에서는 바흐와 쇼팽의 스타일을 재해석한 새로운 피아노 작곡기법이 엿보인다. 이 악장은 빠르고 정확성 있는 리듬이 매우 흥미로우며 클라이맥스의 큰 소리는 낭만시대의 기교 중심의 피아노 작곡과 맞먹는 작품이다.

드뷔시는 곡 뿐만 아니라 초판의 표지에도 신경을 썼다. 그는 표지의 디자인과 색상에도 정성을 쏟았고 제목 ‘판화’는 당시 파리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1850년 이후로 파리에선 일본스타일이 유행을 했고 드뷔시 또한 일본 판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동양이라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꿈과 환상을 생각했으며, 동양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유대, 터키, 아라비아, 그리스, 페르시아 및 스페인 까지도 포함되는 무엇인가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드뷔시의 작품 ‘판화’ 역시 일본의 판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첫 악장 ‘Pagodes’에서 우리는 자바의 가멜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 곡은 자바의 무희들을 연상케 하는 춤곡이다. 물론 pagodes(불교나 힌두교의 탑)가 자바에 있는 것은 아니나 제목 자체로 매우 동양적인 인상을 준다. 앞서 설명했듯 당시 파리인들에게 동양이란 가까운 이웃나라가 아닌 무언가 이국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둘째 곡 ‘La soirée dans Grenade’는 하바네라 춤곡에 기초를 둔 곡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 집

■ 최윤희

피아니스트, 고신대학교 및 동대학원 출강



■ 가쿠시카 호쿠사이: 제방을 걷는 두 사람



■ 1904년 6월의 드뷔시, 행복감이 드러난다



■ Jean-Antoine Watteau, 시세라를 향한 출발

시 기타를 타는 듯한 소리도 듣게 된다. 드뷔시는 두 번째 악장에서 동양이라는 무대에서 스페인으로 무대를 옮기고 있다. 이 두 곡에 나타나는 작곡기법은 갑자기 무드를 변화시키거나 방향성을 전환시키는 등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어붙이기 기법이다.

실로 드뷔시는 사진이나 영화에도 관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 악장 'Jardins sous la pluie'는 18세기 초반의 쿠프랑의 하프시코드 영향을 받았으며 기교적으로 볼 때는 바흐나 쇼팽의 전통적인 기법이 쓰였다. 이 곡에서 드뷔시는 프랑스 동요 두 곡을 삽입한다. 따라서 무대는 다시 프랑스로 옮겨진다. 상상의 세계가 먼 이국에서 가까운 자국으로,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 보았던 일본 판화의 비오는 풍경이 드뷔시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프랑스 동요의 가사 "우리는 더 이상 숲 속에 가지 않겠어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사납기 때문이에요"가 그에 대한 뒷받침이 된다. 이 곡은 프랑스의 미래 메시아를 예견하는 곡으로 애매모호한 인상주의라기보다 일본 판화의 섬세함이 더욱 돋보이는 곡이다.

드뷔시는 보들레르의 영향 또한 많이 받았다. 그의 프렐류드 'Les sons et les parfums tournent dans l'air du soir(소리와 향기가 대기에 떠돈다)'는 보들레르의 시를 인용한 것이다. 드뷔시는 이 곡을 통하여 표현할 수 없는 갈망을 보여준다. 이 곡의 시작에서 그는 강박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고 오래된 왈츠리듬을 암시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 고독, 그리고 질투 등이 녹아 있는 것이다. 그는 19세기의 생각인 '음악은 표현을 하는 수단이다'라는 생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음악은 단지 느낌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느낌 그 자체이다"고 했다. '저녁 공기의 소리와 향기'라는 무언가 설명하기 힘들고 모호한 그것 자체가 상징주의이며 드뷔시는 음악을 통하여 상징주의를 실현시키고 있다.

'기쁨의 섬(L'isle joyeuse)'의 United Music Publisher의 표지에는 18세기 프랑스 화가인 '장 앙투안느 와토(Jean-Antoine Watteau)'의 L'embarquement pour Cythère라는 작품이 디자인되어 있다. 이 작품은 Fête galante 라는 예술장르를 연 최초의 작품이다. Fête galante는 매혹적인 사랑을 표현하며 저녁녘의 공원과 정원에서 산책하고 호숫가

에서 춤추며 연주하는 것 등을 표현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Cythera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탄생지이다. 와토의 작품에서 젊은 연인들이 아프로디테의 상 주변에서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당대에 매우 유명했던 작품으로 드뷔시 또한 와토를 '18세기의 가장 천재적이며 훌륭한 예술가'로 존경했고 이 작품을 잘 알고 있었다. '기쁨의 섬(L'isle joyeuse)'은 Cythera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드뷔시와 그의 연인 Emma가 함께 보냈던 1904년 여름을 이야기한다. 이 곡은 우아하면서도 가볍고 와토의 그림 또한 그러하다. 이 곡의 도입에 나오는 카덴차는 사랑에로의 초대이며 곡은 가벼운 춤곡으로 되어 있으나 단순한 춤곡이 아니라 공기와 바다와 태양 등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18세기 특유의 우아함을 가진 쿠프랑의 건반 악기 작곡형식이 나타나 18세기 예술장르에 대한 드뷔시의 재해석이 드러난 곡이다.

시인 베를렌 또한 와토를 존경했고 그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 달빛이라는 시를 썼다. 드뷔시는 와토와 베를렌의 영향으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Suite Bergamasque)'에서 '달빛(Clair de lune)'을 작곡했다. '달빛'은 베를렌의 시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리듬의 악센트가 없고 모호하며 루바토의 자유가 있다.

시와 그림과 음악은 이처럼 드뷔시의 인생에 떼어 수 없는 예술 장르들이었고 그의 음악은 소리에서 그림, 언어 또한 추억으로 이어주는 아름다운 통로라 할 수 있다.

부채그림 서원아집(西園雅集) 정원에서 열린 문사들의 고상한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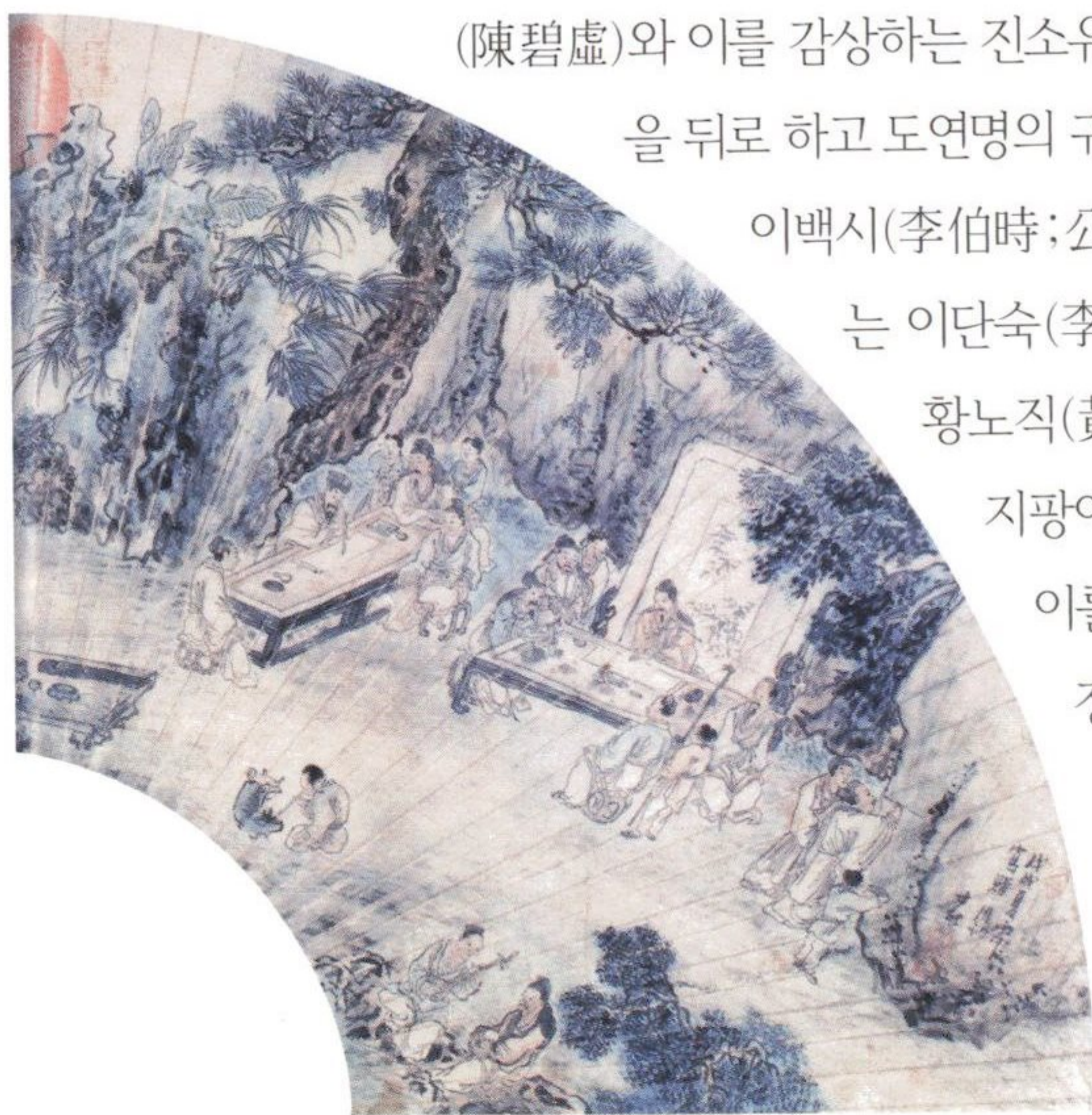
■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단원 김홍도는 29세에 영조의 어진과 세손(정조)의 초상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했다. 어진화사의 반열에 최연소 기록이었다. 그의 능력이 인정되어 이듬해에 장원서(掌苑署)·사포서(司圃署)(왕실정원의 화초나 채소재배를 관장)의 별제(別提)에 임명되었다. 이후 1년간은 그의 화사로서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사포서의 실무 주재관으로서 공무에 몰두했던 것 같다. 이어 32세에 그린 유명한 <군선도(群仙圖) 8폭병풍>을 비롯하여 이 시기에 도가나 유가풍 소재의 무르익은 작품이 많다.

오늘 감상할 작품은 부채그림 <서원아집(西園雅集), 비단담채, 27×80.3cm, 국립중앙박물관>이다. 1778년 단원이 34세 때 그렸는데 중국 인물들의 고사를 소재로 한 우아하고 격이 높은 작품이다. 그의 서원아집 병풍은 국립박물관 소장 외 개인 소장품도 몇 점 전하고 있다. 원래 중국의 고사인물의 취미나 완상을 소재로 한 그림은 무척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이 작품은 여느 유형보다도 더 사실적이고 인물 묘사가 뛰어나다. 이 그림의 배경은 중국 북송시대 유명한 화가 왕진경(王晉卿;王詵)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친구 소식(蘇軾;東坡)을 비롯한 학자와 승려·도사(道士)가 모여 담소와 풍류를 즐기고 있는 장면이다. 이른바 유불도 삼교의 모임이다. 조선후기 당시 정원에서 시와 풍류를 즐기는 모임이 사대부들에게 유행했으며, 이 문화는 중국의 고사인물 중에 소식을 애호하는 남인(南人)과 친남인적 성향을 지닌 소북(小北)세력들이 주축이었다. 이 작품은 소북출신 문인서화가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晷;1713~1791)이 그 전해(1777년)에 미리 장문의 제발(題跋)을 써놓았고, 그림은 이듬해에 그려진 것이다. 단원이 미리 스승인 표암에게 제발을 부탁해 놓은 터였다.

그림 내용은 표암이 써놓은 글을 통해 읽을 수 있다. 등장하는 문사는 모두 16명이며 다섯군데 주제로 배치되어 있다. 화면 오른쪽부터 보면 요지는 이렇다. 석벽에 글을 쓰는 사람은 미불(米芾;元章)이며 뒤에서 왕중지(王仲至)가 고개들어 보고 있고, 동자가 벼루를 들고 있다. 앞쪽 회나무 등치에 걸터앉은 두사람은 비파를 연주하는 도사 진벽허(陳碧虛)와 이를 감상하는 진소유(秦少游)다. 대나무 그림이 있는 큰 병풍막

을 뒤로 하고 도연명의 귀거래도를 그리고 있는 용면산인(龍眠山人) 이백시(李伯時;公麟)가 정면으로 보인다. 그 좌우에 구경하는 이단숙(李端叔), 조무구(晁無咎), 소자유(蘇子由), 황노직(黃魯直), 진무기(陳無己)가 앉았고, 동자가 지팡이를 받고서 서있다. 그 옆에서 탁자 위에 종이를 놓고 글을 짓고 있는 소동파를 중심으로 장문잠(張文潛), 채천계(蔡天啓), 왕진경(王晉卿)이 빙 둘러 앉았다. 뒤로 두 명의 여종이 서있다. 화면의 맨 왼쪽 대숲에서 정좌한 두사람은 서화감상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분위기다. 실개천 위 다리 건너 원통(圓通)



■ 서원아집(부분)



■ 서원아집(전체)

스님이 유거제(劉巨濟)에게 무생(無生)에 대해 강론을 펴고 있다. 마당 가운데선 동자가 한창 차를 끓이는 중이다.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문예와 인생철학에 한가닥 트인 사람들이다. 북송의 유명한 서화가 미불은 고서화를 무척 좋아하여 엄청나게 수집했으며, 때로는 배에다 싣고서 강호를 즐겨 유람하였다. 그래서 그를 미가서화선(米家書畫船)이라 불렀다. 비파 연주를 감상하는 진소유는 문장의 대가였다. 일례로 조선중기 사헌부에서 나라의 문장인 율부(律賦)를 바로잡는 데에 대해 아뢰던 내용중에 “신(臣)들이 율부의 체(體)에 대해 상고해 보니 이는 육조(六朝)에서 시작되어 당나라에서 행해지고 송나라에 이르러 크게 정비되었으며 고려에 와서 더욱 상밀(詳密)해졌습니다. 송나라의 범중엄·범진·왕안석·진소유 및 고려의 김부식·최자 등의 작품이 체제(體製)에 딱 들어맞는 것이니...” <명종실록> 9년 5월 4일(계묘) 라는 말에서 보듯이 이들은 정밀한 문장쓰기엔 당대의 고수였다. 또 이백시는 장대관음(長帶觀音) 등 불화를 많이 그렸는데 당나라 오도자(吳道子;道玄)와 함께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물·사실의 근거 변증에 해박했던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이덕무의 손자였던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경사편3, 釋典總說)에 자세히 실려있다. 한편 소동파야말로 <적벽부(赤壁賦)>로 널리 알려진 북송대 최고 시인이면서 철학적 시상을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다. 문사라면 누구나 그의 시집 한 권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시를 쓰는 미불, 그림 그리는 이백시, 글을 짓는 소동파. 이 세 장면은 널리 알려져 있어서 각각 별도의 간략한 그림으로 제작할 정도로 인기있는 아이콘(像)이었다.

그림구도는 좌우로 넓은 공간감을 주는 정원 속에 중앙의 우람한 노송을 중심으로 하여 명자나무, 참나무, 파초, 대나무 등이 어울려 평온한 숲을 이루고 있다. 나무에 먹의 농담을 자연스럽게 쌓아가면서 한국적 숲의 풍치를 묘사해내는 성의를 놓치지 않았다.

화면의 맨오른쪽에 “무술년(1778) 여름 비오는 날 그려서 용눌에게 주다. 사능으로부터(戊戌夏雨中 寫贈用訥士能)”라고 쓰여있다. 그림을 받은 이는 바로 김홍도보다 열 살 아래인 이민식(李敏植: 1755~?, 자:용눌(用訥))이었다. 김홍도에게는 일생동안 사대부

양반, 선후배 화원, 서예가 및 주장가 등 매우 가까이 교류하는 인물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그의 물질적 후원자인 기술직 중인층들이 김홍도의 그림을 많이 받은 주장가들이었다. 이민식도 그 중의 한사람이었다. 이민식은 1774년(영조50) 역과에 합격한 뒤 역관과 주부(主簿) 벼슬을 지냈다. 용눌은 단원에게 여러차례 그림 주문을 했던 모양이다. 이 작품 외에도 이듬해엔 <신선도(神仙圖) 8폭병풍>도 받았다. 단원은 “이용눌은 그림에 대한 애정이 골수에 박혀있다. 내가 용눌을 좋아하는 것은 용눌이 그림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라고 칭찬했다. 아마 용눌은 공무상 중국에 자주 왕래하면서 그곳의 서화풍의 추세를 보면서도 단원의 조선적 화풍, 조선적 문화를 애호했던 모양이다.

이 작품은 표암의 말대로 단원이 그릴 때 중국을 본떠서 그대로 그리지 않고, 나름대로 인물배치와 화법을 새로이 구사한 수작이다. 표암은 그의 제발 맨 끝에서 이렇게 써놓았다. “뒷날 이것을 구경하는 자는 오직 그림만 볼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인물들을 방불하기도 족할 것이다. 정유년 칠월 하순 쓰다.(後之覽者不獨圖畫之可觀 亦足方弗其人耳 丁酉七月下澣書)”. 경치 좋은 정원에서 열린 우아함 모임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당시 사람들의 기문이재(奇文異才)와 풍류를 음미하는 것 또한 멋있다는 얘기가.

바야흐로 창 밖엔 매화가 만개한 춘삼월이다. 원숙한 시심(詩心)이 맴돈다.



연주자와 관객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秀아트홀**

연주자의 작은 숨소리, 땀방울 하나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소극장은 연주자와 관객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외형적으로만 크고 화려한 것만 찾는 요즘, 신선한 기획력과 수준높은 무대로 승부수를 띄운 야무진 소극장 秀아트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해운대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秀아트홀은 동부산대학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옥 씨의 꿈이 담긴 공간이다. 김옥 관장은 부산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이탈리아 로엔 까발로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러시아 글린카 마그니타고르스크 국립음악원 연주박사과정에 있다. 성악가를 꿈꾸던 음악도 시절부터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장을 꿈꿔온 김옥 관장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바쁜 와중에도 지난해 5월 秀아트홀을 개관했다.

“오래전부터 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많은 예술인들이 쇼아트홀의 취지에 동참해서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공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김옥 관장. 90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쇼아트홀은 피아노를 갖춘 110석 규모의 무대와 대기실, 조명, 음향시설에 녹음, 영상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딱딱한 공간을 지향하기 위해 객석과 무대는 언제나 변화가 가능하다. 김옥 관장은 관객들이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 앉아 공연을 보는 등 다양한 음악적 시도도 계획하고 있다. 소극장 한켠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공연이 없는 날이라도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쇼아트홀에는 김옥 관장의 지인인 프로연주자들과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관현앙상블 및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다. 아직은 창단 초기라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무대를 통해 관객과도 만날 예정이다.

쇼아트홀은 개관 후 준비와 휴식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쇼아트홀 개관을 기념하는 수요 기획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2월 7일 테너 김현식 초청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시작으로 그동안 쇼아트홀을 다녀간 연주자들만 10여명. 피아니스트 김아사, 바이올리니스트 원희선, 베이스 황상연, 첼리스트 Jaroslaw Domza(폴란드 국립쇼팽음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박치상(경북도립교향악단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박미선(계명대 교수), 피아니스트 박미경(안동대 교수), 소프라노 Jolanta Omiljanowicz(폴란드 국립 쇼팽음대 교수), 바리톤 이영기(계명대 교수)와 로얄 오페라단 로얄앙상블이 이곳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4월에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예술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올레그 시틴과 제2회 아시아태평양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싱가포르 출신의 피아니스트 샤운 추가 3일과 10일 이곳을 찾는다. 특히 샤운 추는 중국 그로트리안-슈타인베그 피아노 콩쿠르, 독일 ZF 뮤직프라이스, 헝가리 쇼팽 콩쿠르 등 세계 유명 콩쿠르에서 7번이나 입상해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차세대 음악가로, 음악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쇼아트홀 수요음악회는 앞으로 미래 뮤지션들을 위한 비전콘서트, 중앙, 지역 창작 교류 발표회, 듀오 피아노 연주회 등 작지만 신선한 기획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실력있는 연주자는 물론 앞으로 우리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연주자를 발굴해 무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올 연말에 영 아티스트 콩쿠르도 계획하고 있는 김옥 관장은 앞으로 쇼아트홀을 해운대지역 공연 예술인, 공연예술 단체들의 작품발표 공간으로도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연예술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힘차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지역주민, 공연단체, 지자체 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는 김옥 관장. 쇼아트홀이 예술향 가득한 문화공간으로 오랫동안 남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_ 쇼아트홀(744-1415, www.sooarthall.com)



■ 소프라노 김옥 씨의 꿈이 담긴 쇼아트홀은 지난 2월부터 쇼아트홀 개관을 기념하는 수요 기획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아마추어 첼로동호회

라운첼로



“인간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첼로는 바이올린처럼 화려하지도, 피아노처럼 현란하지도 않지만 그 어떤 악기도 대신할 수 없는 신비한 매력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E마트 연제점 2층에 자리한 문화센터 교실의 문을 열자 나직한 저음의 첼로선율이 흘러나온다.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교실 내에는 20여명의 ‘라운첼로’ 회원들이 뿜어내는 음악적 열정으로 가득하다.

‘즐거움’의 순 우리말인 ‘라운’에서 그 명칭을 가져온 ‘라운첼로’는 우리 주변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아마추어 첼로동호회이다. 성별도, 연령도, 직업도 다 다르지만 그저 첼로가 좋아 모인 ‘라운첼로’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서로 조금씩 채워가며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더 큰 즐거움을 첼로연주를 통해 느끼고 있다.

‘라운첼로’ 탄생에는 첼리스트 김은주, 송미경 씨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학교 선후배지간이기도 한 그들은 첼로를 좋아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일반인들을 위해 고민하다가 동호회 결성에 뜻을 같이 했다. 김은주, 송미경 씨의 문하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센터 수강생들까지 40여명이 현재 ‘라운첼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기적인 모임보다는 개인별 실력향상에 치중하고 있지만 연주회 일자가

잡히면 저마다 바쁜 일정에도 모두 연습에 참여한다.

‘라온첼로’는 지난 2010년 5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20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클래식명곡과 재즈, 뮤지컬, 영화 OST 등 다양한 연주곡을 앙상블 무대로 선보여 참석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올해 8월 열리는 ‘제4회 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에 초청받으면서 시민들과의 본격적인 만남에 벌써부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라온첼로’와 첼로앙상블의 매력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실력차이가 나는 회원들이라도 함께 앙상블을 이룰 수 있는게 합주의 매력”이라는 김은주 씨. 일찍이 국제교사자격증을 취득했을 만큼 첼로 교수법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첼로를 가르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한다. ‘라온’ 첼로를 지향하는 만큼 언제나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도 늘 고민한다는 김은주 씨는 지난 2012년 우리민요를 첼로로 연주하는 색다른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당시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클래식악기나 국악기, 다른 나라의 전통민속악기 등 다양한 악기와 앙상블 무대를 통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보고 싶다.

제작년 겨울, 송미경 씨가 진행하는 문화센터 강좌를 통해 첼로와 인연을 맺은 이경희 씨. 현재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로 있는 그는 노후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첼로 연주에 도전했다. “잘하는 것 보다 자신이 즐기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경희 씨.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첼로를 연주할 수 있어 연습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같은 대학교에 재직중인 남편 김병기 씨 역시 페루 민속악기인 께나를 연주하고 있다며 얼마전에는 남편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Musicoofessordp’에 신규단원으로 입단했다. 이경희 씨는 오늘도 엘가의 ‘사랑의 인사’ 연주를 목표로 즐겁게 첼로를 안는다.

‘라온첼로’ 회원이자 김은주, 송미경 씨를 도와 단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소이 씨. 이모인 김은주 씨의 영향으로 9살때부터 첼로를 시작한 그는 현재 인제대학교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있는 음악도이다. 전공자로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라온첼로’ 회원들의 열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게 된다는 그는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라온첼로’만의 끈끈한 유대감 때문에 연습시간을 빠질 수 없다. 함께 앙상블을 이뤄 무사히 연주회를 마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는 김소이 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첼로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자신의 힘을 보태고 싶다.

문의_ 라온첼로 송미경(010-5012-8188, cafe.daum.net/RAONCELLO)



■ 첼로연주를 통해 하나되는 즐거움을 느끼는 아마추어 첼로동호회 ‘라온첼로’

이자람의 판소리

억척가

■ 신설령_음악평론가

3월 공연소식에서 이자람에 대한 아무 사전 지식 없이 판소리와 브레히트의 이상한 조합을 보고 한 번 공연을 보기로 했다.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는 관객이 극을 보면서 극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격효과' 혹은 '낯설게 하기' 기법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한 마당에서 관중과 호흡을 함께하는 판소리와 브레히트라니. 그래서 브레히트가 요구하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무장을 하고 공연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장해제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소리꾼 이자람의 탁월함은 도입부부터 빛을 발하여 청중을 순식간에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자람의 탁월함은 먼저 대본에서 드러난다.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원작도 그러하지만, 전쟁터를 유럽으로 잡지 않고 적벽가를 끌어와 한국 땅의 여인이 중국 땅까지 나아가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이야기로 내놓는다. 브레히트가 작품을 통해 사회를 고발하듯이 이자람 또한 이야기 사이에 오늘날의 세태를 슬쩍 슬쩍 건드린다. 극의 시점은 오래 전의 전쟁 때지만 이자람의 대사와 노래가사에는 오늘날의 언어를 사이 사이에 흘뿌려 관객으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를 오가게 한다. 이자람의 또 다른 탁월함은 뛰어난 연기에 있다. 1인 15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자람은 감당하고 있다. 그것도 능히. 때로는 큰 아들로, 때로는 둘째 아들로, 말하지 못하는 막내딸로, 거들먹거리는 장군으로, 코믹한 사병으로, 술집 여인으로, 사이비 도사로, 억척네 등 15인의 역할을 흠잡을 데 없이 연기한다. 그것도 무대장치의 변화 없이 그냥 부채 하나와 보자기 하나, 그리고 입고 있는 이중 색깔의 치마로 등장인물의 특징을 짚어낸다. 관객은 등장인물 15명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음을 극 몰입도로 증명한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장치는 있다. 함께 공연하는 세 사람의 악기 연주가 그것이다. 처음에는 1고수 1명창의 방식으로 시작되나 어느덧 여러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 악기 연주는 극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공연의 가장 탁월한 점은 바로 이자람의 소리다. 연기뿐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리로 등장인물의 특징을 드러낸다. 군대 간아들의 이야기도, 수화로 부르는 막내딸의 슬픔도, 잔인한 군

인의 호령도 음색을 바꿔가며 혼자 풀어낸다. 그녀의 소리는 자식을 잃고 우는 억척네의 피를 토하는 듯한 울음에서 전율을 느끼게 한다. 울음까지도 '소리'로 나타내어 억척네의 뱃속 깊은 고통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자람의 〈억척가〉는 숨죽여 보는 공연이 아니다. 공연 초반에 추임새를 가르쳐 외치게 하고, 공연 중간 술집 장면에서는 막걸리 잔을 돌리며 극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두 시간이 넘는 공연이 지루하지 않게 한다. 당연히 연출을 비롯한 스태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녹아들어 풍성한 무대가 된 것일 터이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자람의 탁월함이다. 판소리는 창자 한 사람의 역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르이다. 창자의 탁월함은 필수지만 이자람의 판소리가 관객에게 가치평가의 기준이 될까하는 염려다. 이자람의 〈억척가〉가 다양한 판소리를 불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뿐이다. 어쨌든 과거의 것으로 인식될 뻔했던 판소리가 우리 앞에 새롭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자람이 말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판소리 한 자락 들을 수 있으니 어찌 아니 즐거운가." 〈억척가〉를 보고 난 필자는 그 말에 동의하게 된다.



갤러리 화인 기획

‘송호준, 엄윤숙, 장경숙-봄의 색을 말하다’전

■ 박미경_서양화가

봄의 시작은 역시 꽃이며 꽃은 색으로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한다. 겨울을 지낸 마른가지에선 물이 올라 가지색이 붉게 변하고 꽃망우리가 팝콘을 뿌려놓은 듯 달려 있음을 볼때 봄이 왔음을 느낀다.

봄의 시작과 함께 때마침 봄소식을 가득 담은 기획전이 갤러리 화인에서 열었다.

송호준, 엄윤숙, 장경숙 작가의 꽃그림으로 전시장 가득 밝고 화사한 봄의 기운을 전해준다.

송호준 작가는 화폭 가득 붉은 색의 동백꽃을 그렸다. 작가는 ‘어느 날 문득 선물처럼 동백이 다가왔다. 빨간 태양을 안은 듯 웅크린 봄을 깨우듯 내게 다가온 꽃’이라고 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꽃을 제일 먼저 피우는 동백은 기다림과 애타는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다. 꽃말에서 느껴지듯 오랜 기다림의 열정에서 사랑과 강직함을 가득 담고 있다. 화폭 가득한 붉은 물감은 동백꽃의 변하지 않는 색채와 시들지 않는 자태로 우리의 마음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엄윤숙 작가는 태양을 따라 꽃을 피우는 해바라기를 꽃이 핀 것과 씨만 남은 것들과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들로 다양한 모습들을 화폭에 담았다. 각각의 해바라기들은 크기와 색채로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뜻함이 느껴지는 옐로우 계열의 색이 서로 어우러져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장경숙 작가는 기억의 흔적이며 소중한 나만의 추억을 간직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형상화하였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하트를 닮은 빨강 꽃은 금박의 점으로 인해 세로로 길게 느껴지는 시각적 효과를 낸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는 추억의 꽃, 나만의 꽃을 간직하고 있다. 이 봄엔 겨우내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가까운 갤러리로 발길을 돌려보면 어떨까.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폭의 그림에서 생활의 활력을 찾고 나만의 꽃을 돌아볼 여유를 가져보기를 권한다.

■ 엄윤숙 작 '해바라기' ■ 송호준 작 '동백'



■ 장경숙 작 '꿈꾸는 밤'

전시일정 3월16일~31일

신라 천년문화의 보고 경주로 떠나는 봄 여행



■ 감은사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봄을 재촉하던 지난 3월 8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여든 네 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3월 테마여행지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2006년 3월 시작된 테마여행의 첫 번째 여행지로, 첫 여행의 설렘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3월이면 '경주수학여행 다시가기'라는 타이틀로 경주를 찾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이 정기회원 가족들로 북적이다. 특히 이날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정란, 장용균 씨가 함께 동행, 여행의 의미를 더했다.

한 시간여를 달려 경주에 도착하자 이번 테마여행의 답사를 도와줄 문화유산해설가 최승욱 씨가 반갑게 회원가족들을 맞는다. 최승욱 씨의 안내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김유신장군묘와 태종무열왕릉.

여느 왕릉 못지않은 규모와 위용을 자랑하는 김유신장군묘는 봉분 지름만 30m. 무덤을 두른 둘레돌에는 섬세한 솜씨가 돋보이는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어, 1,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화려하고 장엄하기만 하다. 그러나 역사학자 중에는 이런 김유신장군묘의 12지신상과 난간 둘레석 등이 김유신 시대보다 후대인 성덕왕 이후에나 등장한다며 김유신장군묘가 아닌 신라 제35대 경덕왕릉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김유신장군묘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자리한 태종무열왕릉은 김유신장군묘와 달리 봉분만 있는 소박한 왕릉이다. 이 곳 입구에는 국보 제25호인 태종무열왕릉비가 서있다. 이 비의 머릿돌 좌우에는 6마리의 용이 3마리씩 뒤엉켜 여의주를 받들고 있으며, 앞면 중앙에 '태종무열대왕지비(太宗武烈大王之碑)'라 새겨놓고 있어 이 능의 주인공을 밝히고 있다.

태종무열왕릉을 나와 국궁 체험을 위해 호림정이 있는 황성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주 도심에 자리한 황성공원은 신라시대에는 화랑들의 훈련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해마다 10월 초순이면 신라문화제가 열린다. 명궁인 호림정 교장 박동섭 씨와 문화유산해설사 최승욱 씨의 지도로 국궁 체험에 나선 회원가족들은 처음 잡아본 활대가 신기하기만 하다.

오후 일정에 앞서 아삭거리는 콩나물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석굴사원으로 유명한 골굴사로 자리를 옮겼다. 1,500년 전 천축국(인도)에서 건너온 광유스님 일행이 창건한 골굴사는 당시 광유스님 일행들이 자국의 사원 양식을 본따서 창건한 전형적인 석굴사원으로, 여러 개의 동굴군으로 형성된 석굴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곳이 유일하다고 한다. 법당 굴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올라 마애불 앞에 서자 활짝 웃고 있는 부처님이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골굴사는 특히 불교의 전통수행법인 선무도의 본산지로도 유명하다.

골굴사 마애불을 뒤로 하고 달려간 곳은 문무대왕의 자취가 남아있는 감은사지. 경주시내를 벗어나 감은사지에 도착하자 텅 빈 절터에 나란히 서 있는 웅장한 석탑이 회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로 국보 제112호로 지정된 감은사지 동서 3층 석탑으로, 우리나라 석탑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석탑이다.



■ 김유신장군 묘



■ 파도소리길을 따라 펼쳐진 주상절리



- 1. 우리나라의 유일한 석굴사원으로 유명한 골굴사
- 2. 화랑 정신을 체험하기 위한 국궁강습
- 3. 감은사에서 펼쳐진 부산시립합창단 작은음악회



5월에는 경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테마여행게시판
 마감 4월 15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 4월 당첨자

● 엽서신청자

강동년(수영구 남천1동)
 김경연(수영구 민락동)
 김남희(금정구 장전2동)
 안갑선(해운대구 중동)
 이국행(남구 우암동)
 이복희(사상구 주례3동)
 이지영(서구 토성동)
 정영희(북구 금곡동)
 최지원(양산시 물금읍)
 함영규(해운대구 우1동)

● 신규가입자

김안재(부산진구 개금3동)
 김영연(해운대구 우1동)
 문정희(남구 문현1동)
 박기순(연제구 연산1동)
 박명옥(사하구 신평1동)
 박선심(수영구 수영동)
 윤중현(사상구 감전동)
 이진우(남구 용호동)
 장재호(사상구 덕포동)
 홍민호(해운대구 좌동)

신문왕 2년(682년)에 건립된 감은사는 창건 연대를 알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절로, 삼국통일이라는 대과업을 완성했으나 끊임 없는 왜구의 침입에 근심했던 문무대왕이 부처님의 힘으로 왜구를 격퇴하고자 세운 '진국사'의 전신이다. 문무대왕이 절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자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 절을 완공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감은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감은사 금당아래에는 여느 절과는 달리 빈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동해의 용이 된 문무대왕이 드나들며 지친 몸을 쉬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감은사지 동서 3층석탑을 무대로 부산시립합창단 작은음악회가 열렸다. 야외공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무대로 감동을 안겨준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정란, 장용균 씨에게 많은 박수가 쏟아졌다. 무대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며 경주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읍천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문무대왕의 수증릉으로 알려진 문무대왕릉을 지나 도착한 곳은 다양한 형상의 주상절리로 유명한 읍천마을. 자연이 연출한 조각품이라 일컬어지는 주상절리는 분출된 용암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수축되어 생긴 기둥 형태의 바위 무리를 일컫는데, 이 곳의 주상절리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희귀한 형태이다. 사방으로 퍼진 모양이 꽃 같다고 해서 화형주상절리, 중앙의 패인 모습이 백두산 천지와 닮았다 해서 천지구상절리라고 하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아름다운 벽화마을로도 유명한 읍천마을에서 하서항에 이르는 1.7 km 구간은 주상절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파도소리길'이라는 해안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파도소리길을 걷기 시작한 회원들은 짙푸른 동해바다와 다채로운 주상절리가 빛어내는 아름다운 풍광에 연신 탄성을 자아낸다. 역사와 자연이 함께했던 경주여행은 또 하나의 '수학여행'으로 오랫동안 회원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다.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가온아트홀 | 1600-1602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향아트센터 | 1544-1555
수아트홀 | 744-1415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38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 45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 56 New Music
- 57 New Book
- 58 Special Movie
- 59 Special Event



2013 제31회 부산연극제

3월 29일-4월 14일 **중극장,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예매 5천원 할인, 사랑티켓 참가작품)
문 의 | 부산연극협회(645-3759)

▶자유참가작 극단배우창고 '강석봉 베이커리'

3월 29일-4월 3일 평일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소극장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무차별한 공격에서도 매일 새벽 신선한 빵을 굽는 공주제과 제빵사 강석봉을 통해 고유한 자신만의 색깔을 지키며 경쟁자들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변하지 않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극단 배우창고의 '강석봉 베이커리'.

· 작, 연출/박훈영

▶경연작 극단맥 '시골동화'

4월 1일-2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변소 갔다가 똥통에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똥레라고 지었다는 작가 방영웅의 분례기를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똥레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들여다보고 한국여성의 트라우마와 현대사회의 황폐한 실정과 비참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중첩시켜 작품을 풀어낸다.

· 원작/방영웅
· 각색, 연출/이정남

▶경연참가작 극단세진 '뜰 앞의 개고기'

4월 4일-5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12 제5회 전국창작희곡공모전 대상 수상작 '뜰 앞의 개고기'는 서왕암에서 고시 백수 시절을 보낸 형사 유민호와 서왕암의 관하스님과의 인연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양한 유기적인 구성, 선문답을 주고받는 듯한 시청각적 무대로 '깨달은 자들의 경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이란 철학적인 주제의식을 풀어낸다.

· 작/최수영 · 연출/김세진

▶경연참가작 극단이그라 '모함(강빈死花)'

4월 7일-8일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조선 인조 임금 때 왕권을 유지하려고 왕을 옹호하는 자들이 꾸며낸 모함으로 자신의 친자식인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그리고 왕의 손자들까지 무고한 죽음으로 몰고 간 비극적 사건을 무대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면적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기적이고 냉소적이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한다.

· 작/김경화 · 연출/최성우

▶경연참가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운약'

4월 10일-11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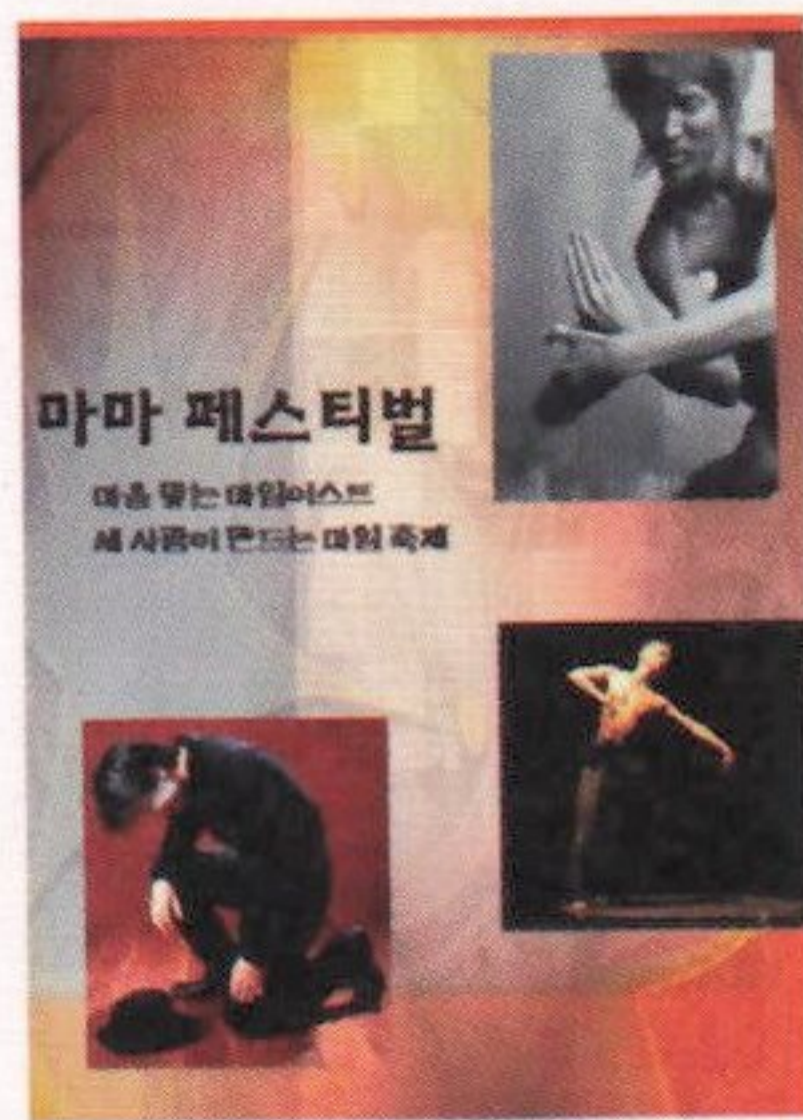
'왜 하필 김침지가 그날 운이 좋았을까?' 라는 최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소설 '운수 좋은 날'의 삶의 이면에 감춰진 모순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 '운약'은 원작 <운수 좋은 날> 그로부터 1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삶의 순간, 선택은 필연적인가 우연적인가, 자의적인가 타의적인가에 관해 질문을 던지며 현실적 인물인 '나(개똥이)'와 초월적 존재인 '팔자' '가면들', 과거의 인물 '아버지'(김침지)와 '어머니'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다.

· 작/양효윤 · 연출/윤우진

▶자유참가작 극단세진 '마마 페스티벌'

4월 10일-14일 평일 오후 7:30,
토,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2009 부산국제연극제, 춘천마임축제, 헤이리 예술인 마을 초청 공연, 전주국제마임축제 등에 참가하며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임리스트 김세진과 이정훈의 창작 마임 무대.

2009년 예술제전 세계멜픽 대회에서 나란히 메달을 수상하며 예술적 능력을 인정받은 김세진과 이정훈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마임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김세진-JINY Story, 이정훈-거미, 외 엔트로피 등

▶경연참가작 극단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워할,戀(연)'

4월 13일-14일 토-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우리 현대의 사랑병증을 치유할 '그리워할,戀(연)'은 고립된 섬에서 티격태격 대하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남편 귀복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본처 이금이와 후처 첫술이를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모습, 한 곳을 향한 사랑의 끝 간 곳, 그리움을 풀어낸다.

· 작, 연출/최은영



부산시립합창단 제145회 정기연주회

새봄맞이합창소리

(The Beautiful Chorus Sound)

4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2013년 부산시립합창단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로 선보이는 '새봄맞이 합창소리'.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구천의 객원 지휘로 르네상스의 다성 합창, 남성, 여성 합창과 현대 합창, 뮤지컬에 이르는 다양

한 레퍼토리로 싱그러운 봄을 노래한다.

객원지휘자 구천은 20년 동안 국립합창단에서 합창 활동을 하며 나영수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지휘 공부를 시작했다.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시작으로 전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합창단 지휘자로 재직한 바 있는 구천은 그동안 세련된 비iting과 뛰어난 음악 해석능력으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사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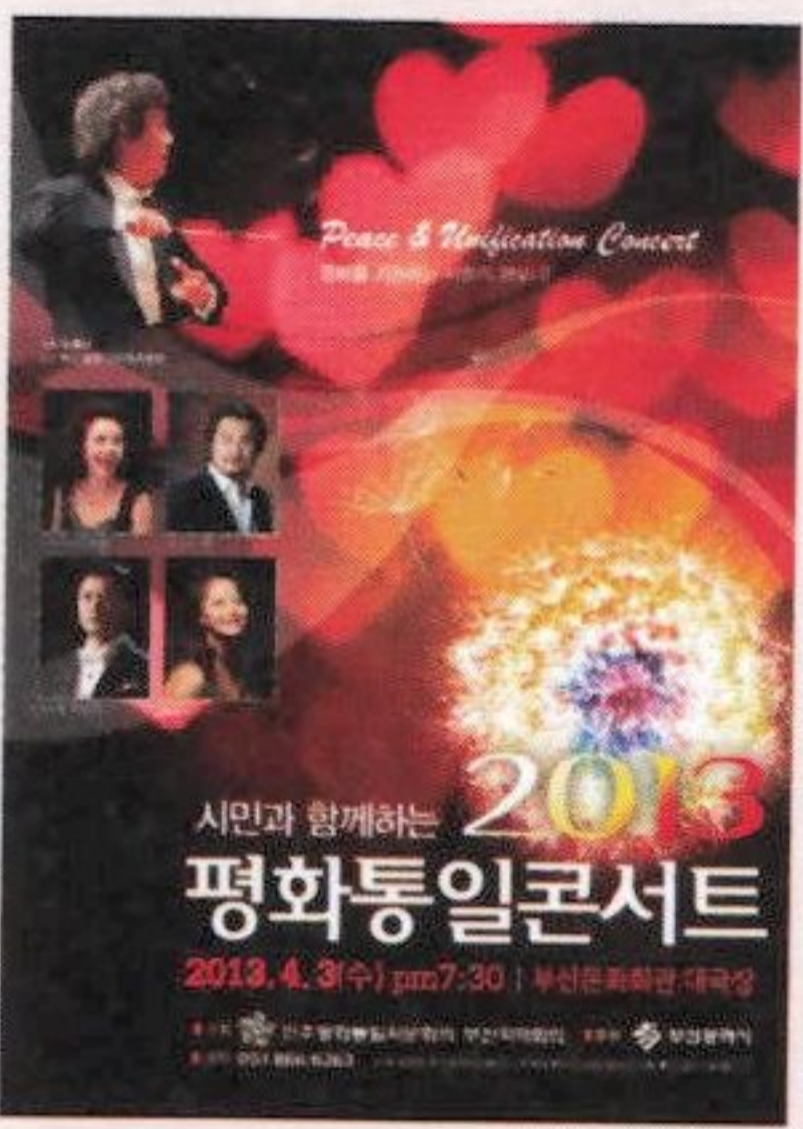
▶프로그램

르네상스/Fyer, Fyer(Thomas Morley), Sicut Cervus(사슴이 시냇물을-Palestrina)
사랑의노래/봉선화(허걸재 곡), 혼자사랑(이건용 곡)
여성합창/바람은 남풍(조혜영 곡), Let It be

남성합창/Amarilli, mia Bella(Giulio Caccini), O Danny boy(Londonderry Air), 하늘(이선택 곡)
합창 음식/시래기(정덕기 곡), 짜장면(이순교 곡) 등 수곡
· 지휘/구천(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시민과 함께하는 2013 평화통일콘서트

4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866-6363)



우리민족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됨을 기원하는 2013 평화통일 콘서트.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기악과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충근의 지

휘, 마리오델모나코 국제콩쿠르 연속 2회 1등, 이리사아 다미 꼬라뎃띠 국제콩쿠르 1등에 빛나는 한국이 자랑하는 소프라노 김유섬, 베냐미노질리, 라우리볼피, 비오티 국제성악콩쿠르 우승자 테너 이현, 이태리 Angelica Catalani 콩쿠르, G.Verdi -Busseto콩쿠르, G.Lauri Volpi 콩쿠르, G.Verdi -Parma 콩쿠르, 오스트리아 F. Tagliavini 콩쿠르 등 8개 콩쿠르에 우승한 바리톤 최종우, 금호 영아티스트로 선정된 유망주 박고은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웅장한 음악 드라마를 펼친다.

▶프로그램

- 베르디/오페라 '춘희' 중 '아 그이인가'
-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 로드리고/아랑훼즈 협주곡 2악장
-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작품 95 4악장 등 수곡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김유섬(창원대학교 교수), 테너 이현(영남대학교 교수), 바리톤 최종우(한세대학교 교수), 트럼펫 박고은(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서울예고 2학년 재학생)

부산 YMCA 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 YMCA 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
(440-3372, 010-2926-8801)



2009년 7월 창단이후 폭 넓은 연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YMCA 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부산YMCA 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가족사랑 기획 음악회, 오페라 출연,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예술성 높고 친근한 연주회로 시민들은 물론 음악평론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

- 무소로그스키/서곡 '민둥산의 하룻밤'
- 하순봉/비바 아리랑
- 생상/첼로협주곡 1번 라단조 협연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6번 '비창'
- 지휘/홍성택
- 협연/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 작곡/하순봉

테너석동호 독창회

4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석동호(861-8275)

노래하는 의사 시인 테너 석동호 독창회. 아마추어 남성 성악가모임인 멜로메니아 성악동호회 회장, 부산시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석동호는 그동안 국제신문 주최 신년음악회를 비롯해 청소년음악회, 금정문화회관 수요일음악회 출연, 블라디보스톡 필하모니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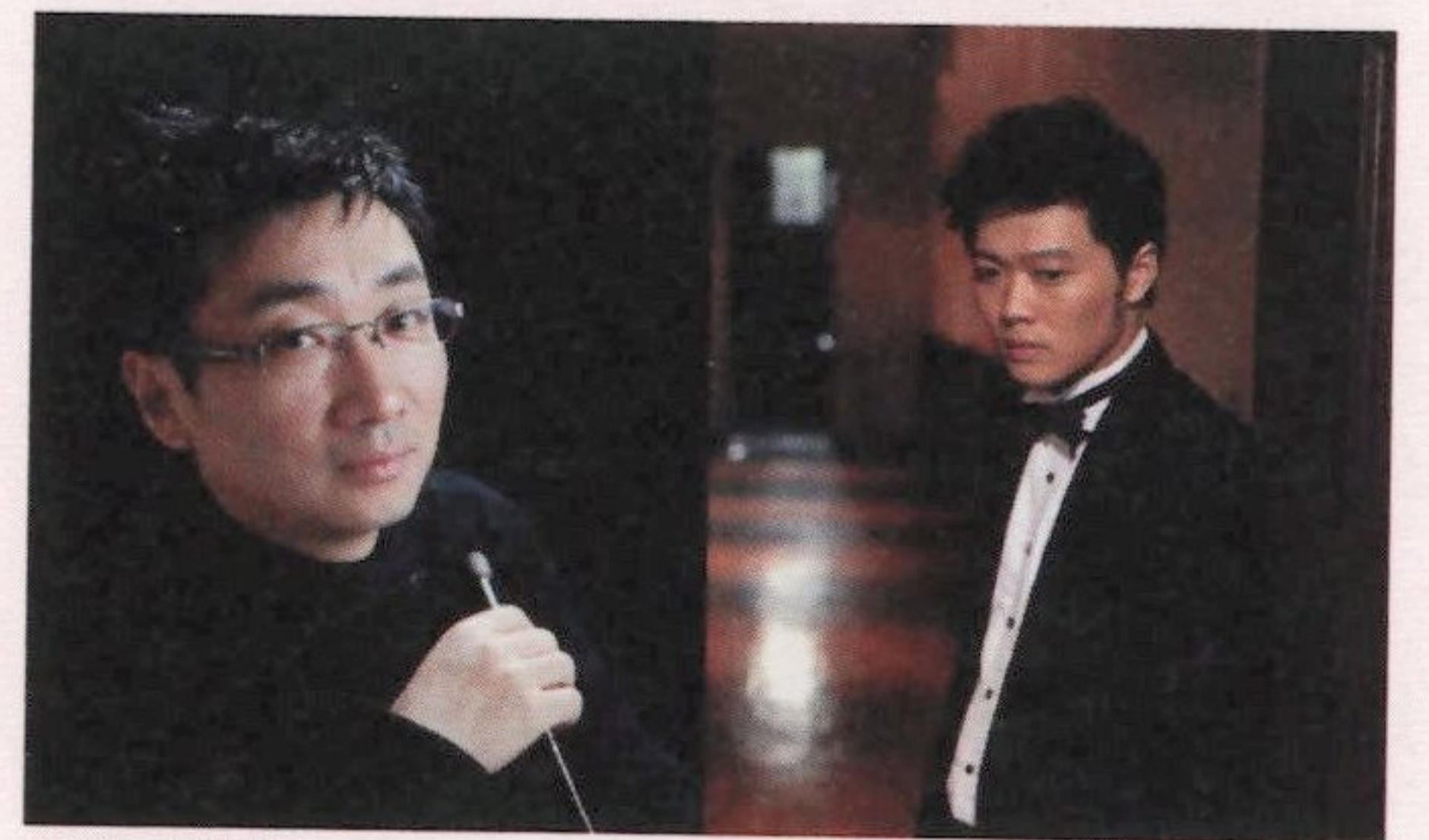
케스트라,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협연 무대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 토스티/기도, 이상 비제/신의 어린 양
-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 박판길/산노을
-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아 그이었던가' 등 수곡
- 소프라노/구민영(이탈리아 Virtuosi della Musica Sacra 소속가수)
- 반주/김경미(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출강)
- 특별출연/석성민(동국대학교 의예과 재학)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9회 정기연주회 '브루크너 심포니 IX'

4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리 신차오

피아노 슈에 사오추

2013년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을 기획,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489회 정기연주회 '브루크너 심포니 IX'.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지휘로 러시아적 정서와 투명감이 흐르는 가운데, 슬프도록 아름답고 로맨틱한 선율이 돋보이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과 브루크너의 미완의 마지막 교향곡 제9번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라이징 스타 슈에 사오츄는 15세부터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기 시작, 2006년 3월 세르비아의 제3회 이시도르 바이지 국제피아노콩쿠르, 청소년 부문 1위에 이어 제11회 미주리 서던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2007년 제7회 파드노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폴란드)의 중국 예선 1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피아노 협주곡 제1번
브루크너/교향곡 제9번
· 지휘/리 신차오 · 피아노/슈에 사오츄



프랑스 최고의 상송 뮤지션 무롱 콘서트

4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S석 4만원·A석3만원·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1600-1803)



그윽하고 섬세한 감성,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균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사랑받고 있는 상송가수 '무롱' 부산콘서트.

오페라단원인 아버지와 작곡가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10세부터 노래를 시작한 무롱은 가수 미셸 뤼갱이 이끄는 빅바자르에서 활동하다 작곡가이자 프로듀스인 테릭 트럭을 만나 독일로 진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독창적인 무대와 상송의 작은 뉘앙스까지 표현하며 프랑스의 감성을 흔들고 있는 무롱은 전설적인 상송가수 에디트 피아프를 잇는 프랑스 대표 상송가수로 각광받고 있다.

▶프로그램

슬픈 사랑노래, 라보엠, 장미빛 인생, 자전거를 타고, 세 개의 종, 떠나지마요, 나팔리, 나는 노래한다, 옛 연인의

노래, 아마도, 아프다, 자바의 여인, 시간이 흘러, 바다, 난 후회하지 않아 등 수곡
· 피아노/테리 트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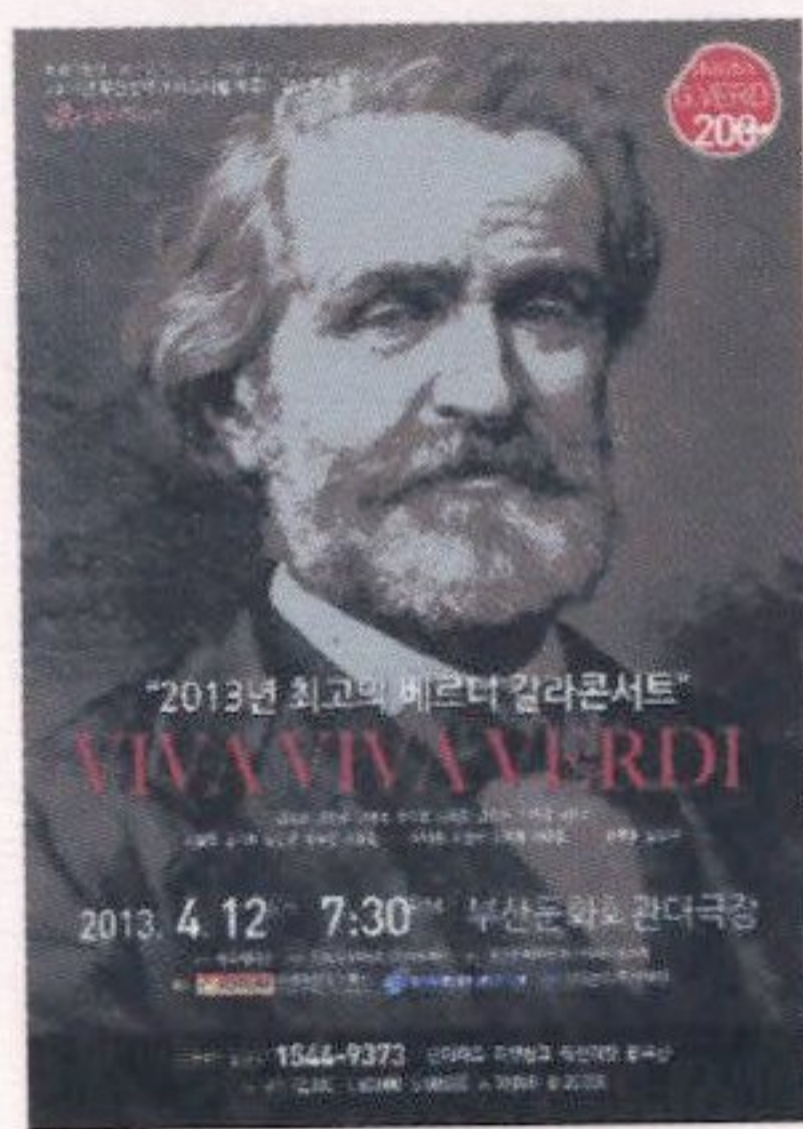


베르디탄생 200주년 기념

솔오페라단 기획 공연 시리즈 I

베르디 갈라콘서트 'VIVA VIVA VERDI'

4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R석 8만원·S석 5만원
A석 3만원·B석 2만원
문 의 | 솔오페라단(1544-9373)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손꼽히는 베르디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솔오페라단이 들려주는 베르디 갈라콘서트 'VIVA VIVA VERDI'.

제1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대상없는 금상,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해외합작부분 대상 연속 2회 수상,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초청작 선정으로 최고의 작품성을 인정받은 솔오페라단이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나부코' 등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작품들을 선곡, 이탈리아 정통 오페라의 진수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나도 한 때는 행복의 마음을 열었다'
- 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그 이름' '여자의 마음' '가신들, 이 천벌을 받을 놈들이'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이상해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그녀를 떠나서는 더 이상 기쁨이 없네'
- 오페라 '운명의 힘' 중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등 수곡
- 예술총감독/김영미(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
- 예술감독/디노 데 팔마(움베르토 조르다노 앙상블 리더)
- 음악코치/홍지혜
- 소프라노/김경희, 김은희, 고예정, 윤지영, 노이름, 김유진, 우선애, 구현진
- 테너/이철성, 김지호, 장진규, 양승엽
- 바리톤/박대용, 조현수, 김종화, 이종훈
- 베이스/유형광, 김일석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43회 정기연주회

4월 13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S석 1만원
문 의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627-8088, 010-8918-1535)



지휘 게라드 오스캠프 피아노 이동섬

열정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열린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43회 정기연주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42회의 정기연주회와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대형오페라 연주, 도시락보내기 등의 자선음악회, 공공관 위탁 초청연주, 시민을 위한 순회야외음악회 등을 기획,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생상/피아노협주곡 제2번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6번 '비창'
· 지휘/게라드 오스캠프
· 협연/이동섬(동의대학교 교수)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시리즈 I

제35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3만원·R석 2만원·A석 1만원
(전석 학생 50% 할인)
문 의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부산음악인 시리즈, 오페라공연, 조수미콘서트, 호세카레라스 독창회, 부산바다축제, 한·일 빅콘서트, KNN OST 콘서트, 기업 메세나음악회 등 수많은 연주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 매김하고 있



지휘 오충근 작곡 정덕기

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새롭게 기획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시리즈 첫 번째 무대.

제30회 부산음악상(지휘부문),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한 고신대학교 오충근 교수가 지휘하고 작곡 포 대표, 작곡 신세대 부회장, 작곡21 부회장, W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작곡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정덕기 교수의 교향적 모음곡 '나의 기억속에서...'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임준희/댄싱 아리랑

정덕기/교향적 모음곡 '나의 기억속에서...'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1번 라단조 작품 13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작곡/정덕기(백석대학교 교수)



아모로제와 함께하는 부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창작 음악 봄의 소리 왈츠

4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모로제성악연구회

(999-5089, 010-3376-2246)



동서대학교 정태미 교수와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태미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아모로제성악연구회의 2013년

정기연주회.

지난해 3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두 번의 정기 연주회를 기획,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하고 있는 아모로제성악연구회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부산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풍성하고 감성적인 봄의 정취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정승원/오케스트라를 위한 '봄의 환상곡' (2013년 제19회 정기연주회 초청작품)

베르디/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하이든/트럼펫 협주곡 올림마장조

오펜바흐/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베르디/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불꽃은 타오르고' 등

· 소프라노/정태미, 이지은, 조신미, 김혜원, 이현정, 권

미현, 구민영

· 메조소프라노/김수현, 박소연

· 협연/한만욱(트럼펫)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연주회

4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지민(010-5460-0541)



1991년 전문 피아니스트들이 폭넓은 연주와 연구활동으로 한국음악과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된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회원들이 들려주는 정기연주회.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회장 경성대학교 황정미 교수를 비롯해 이경옥, 정년경, 고은경, 장진이, 최민경, 강남길, 이윤정, 신애정, 김성숙이 출연, 1950년 이후의 현대 작곡가의 밤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이기병/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Gubaidulina/Musical Toys

Norman Dello Joio/Suite form the Ballet 'On Stage' 등 수곡

· 연주/이경옥, 정년경, 고은경, 장진이, 최민경, 강남길, 이윤정, 신애정, 김성숙, 황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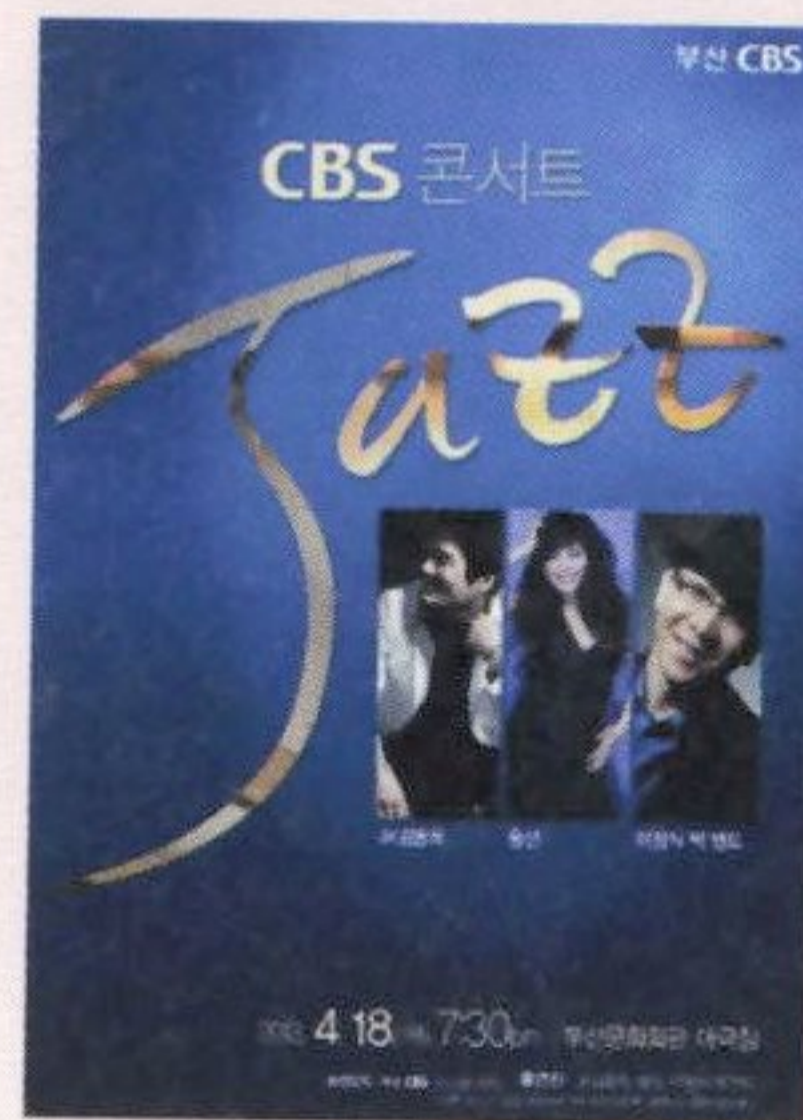
CBS 콘서트

JK김동욱, 웅산with이정식빅밴드

4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CBS총무국(636-0050)



CBS부산방송이 매년 봄 개최하는 고품격 음악회 CBS 콘서트.

재즈 색소포니스트 이정식과 가창력지존 JK김동욱, 재즈디바 웅산 등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출연, 정통 재즈 레퍼토리 뿐만 아니라 올드 팝, 영화음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재즈빅밴드의 세련되고 웅장한 사운드로 들려준다.



제23회 밀알의밤 수화뮤지컬 '꿈의 사람 요셉'

4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밀알선교단

(642-6222, 010-4026-9323)

부산밀알선교단 창립 25주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선보이는 부산밀알선교단의 수화뮤지컬 '꿈의 사람 요셉'.

영화 '이집트 왕자' 등을 통해 이미 대중적으로 소개된 바 있는 성서 속 인물 요셉의 일대기를 수화 뮤지컬로 공연, 장애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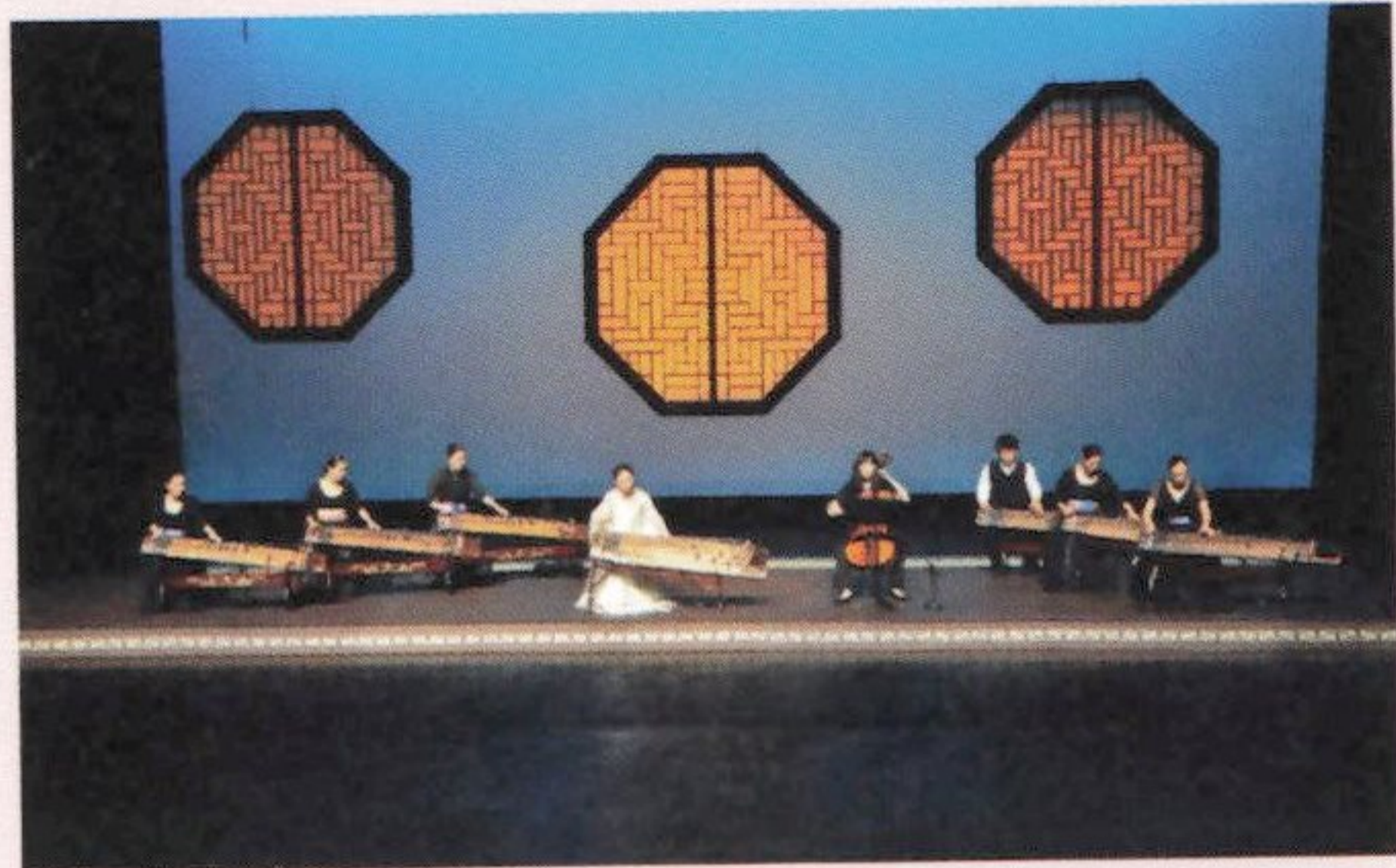
부산거문고솔리스트앙상블 창단연주회
'香演' 1

4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명희(010-8987-4884)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권은영 교수를 비롯해 탁월한 기량과 연륜을 갖춘 거문고 연주자 6인이 보다 깊고 넓은 거문고 음악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결성된 부산



거문고솔리스트의 첫 번째 무대 '香演' 1. 거문고6중주를 위한 '열매'(김현정작곡), 'Fantasy'(박경훈작곡), 거문고&탱고(거문고 팩토리곡), '거문고합주를 위한 육자백이' 부산초연무대와 무용과 함께 극적인 연출로 즐기는 '고구려의 여운'(정대석 작곡) 등 거문고 음악의 깊이와 다이내믹함, 자연의 숭고함과 질박함을 담은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권은영(부산대학교 교수), 전해정(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김명희(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김수민(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해영(브니엘예고 강사), 송다솔(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아마빌레 색소폰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4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은순(010-3580-8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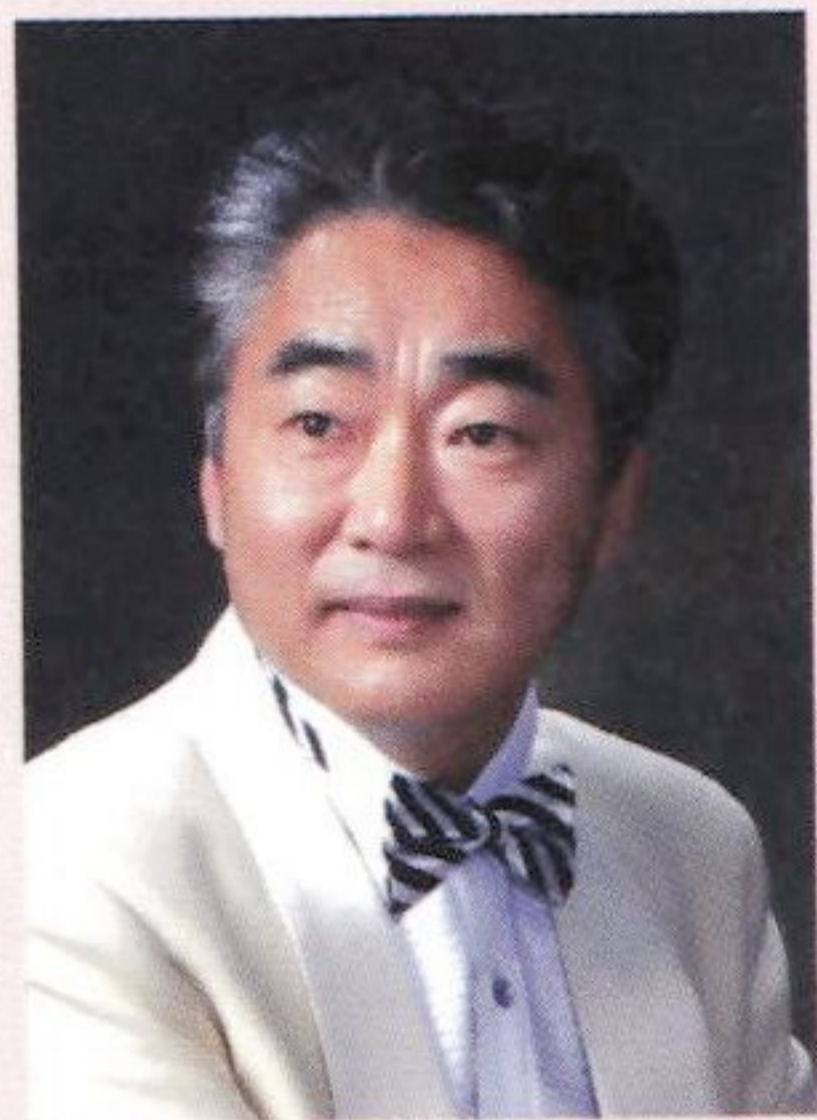
2002년 5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11회의 정기연주회와 180여회의 자선, 초청공연 등을 가져온 순수 아마추어 색소폰 동호회 아마빌레 색소폰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Dancing Amadeus!, You Raise Me Up, 그리운 금강산, 트로트 메들리, 하얀 나비 등 수곡

김영근 작시 창작가곡 발표회

4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영근(010-3567-3723)



부산노회 광성교회 시무장으로, 부산가곡사랑모임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김영근의 시에 재독작곡가 김영식이 곡을 붙인 김영근 작시 창작가곡 발표회. 작곡가 김영식은 서울음대 성악과, 독일 베를린국립음대(HdK) 성악과, 미국 ECUA 신학대학 교회음악학을 졸업하고 현재 재독한인문화예술협회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합창단 지휘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국문화회관 음악강좌 진행자, 독일 교포신문 음악컬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봄날, 기다림, 그리움, 그리운 그대, 하늘 낮은 날, 눈 내리는 밤, 물안대 내린 저녁, 아름다운 오월애, 그리움 그 길목에서, 겨울 강변, 달빛이 흐르는 전경, 그리운 마음, 고향, 겨울강변 등 수곡

- 출연/바리톤 강경원, 소프라노 윤지영, 테너 홍지형,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테너 조윤희, 소프라노 장은영, 바리톤 하병욱, 소프라노 백선아, 피아노 강남길, 첼로 김판수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3

achime, 전기뱀장어

4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서른세번째 주인공 'achime(아침)'과 '전기뱀장어' 부산무대. 종잡을 수 없는 사운드와 톡톡 내뿜는듯한 투명스런 가사들로 인디씬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5년차 중견밴드 아침(achime)은 권선욱(보컬/기타), 김수열(드



럼), 이상규(기타), 김정민(베이스), 김경주(키보드)로 구성된 록 밴드이다. 2008년 9월 마이스페이스 코리아 오디션에 합격하며 음악활동을 시작, 2009년 봉가봉가 레코드에서 데뷔 EP '거짓말꽃'을 발표하며 독특한 세계관을 프로그레시브록에서 뉴웨이브에 이르는 다양한 스타일로 풀어내며 전도 유망한 신인으로 주목 받았다. 솔직한 노래를 들려주는 모던록 밴드 '전기뱀장어'는 최근 정규 1집 '최고의 연애' 발표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부터 '2012 올해의 최고 루키'라는 영예를 얻으며 팬들은 물론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4인조밴드이다. 김민혁(드럼), 황인경(보컬/기타), 김나연(베이스), 김예슬(기타/코러스)로 구성된 전기뱀장어는 2011년 5트랙이 수록된 데뷔 음반 '충진'을 발표했다.

이승미 귀국 피아노독주회

4월 20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승미(010-7703-2985)



동아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뉘른베르크 국립음대(Hochschule für Musik Nuernberg) 전문연주자과정(Diplom Künstlerische Ausbildung)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활발한 연주활동과 더불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승미의 귀국독주회.

유학중 다수의 독주회, 실내악, 반주 등 많은 연주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온 이승미는 학구적인 해

석과 밝고 투명한 색채의 톤을 배합한 음색으로, 특히 바로크와 고전음악에 호평을 받았다.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27 제1번
슈만/알레그로 h-moll 작품 8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35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4월 22일-23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심정연(010-2009-1090)

부산의 피아니스트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이 들려주는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5월과 10월 매년 두 차례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피아노 음악을 소개해온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은 우수신인 발굴을 위한 콩쿠르를 개최, 신인들에게 발표기회를 제공해왔다.

▶ 22일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미국 Walnut Hill School of Arts, Boston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Texas 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김민정은 음교 우승, 선화콩쿠르, 삼익콩쿠르, Anne and Aaron Richmond Competition 등 콩쿠르 입상, 한국피아노학회콩쿠르 전체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라벨/물의 희롱
드뷔시/전주곡 3곡, 기쁨의 섬
쇼팽/발라드 4곡

▶ 23일 솔로와 듀오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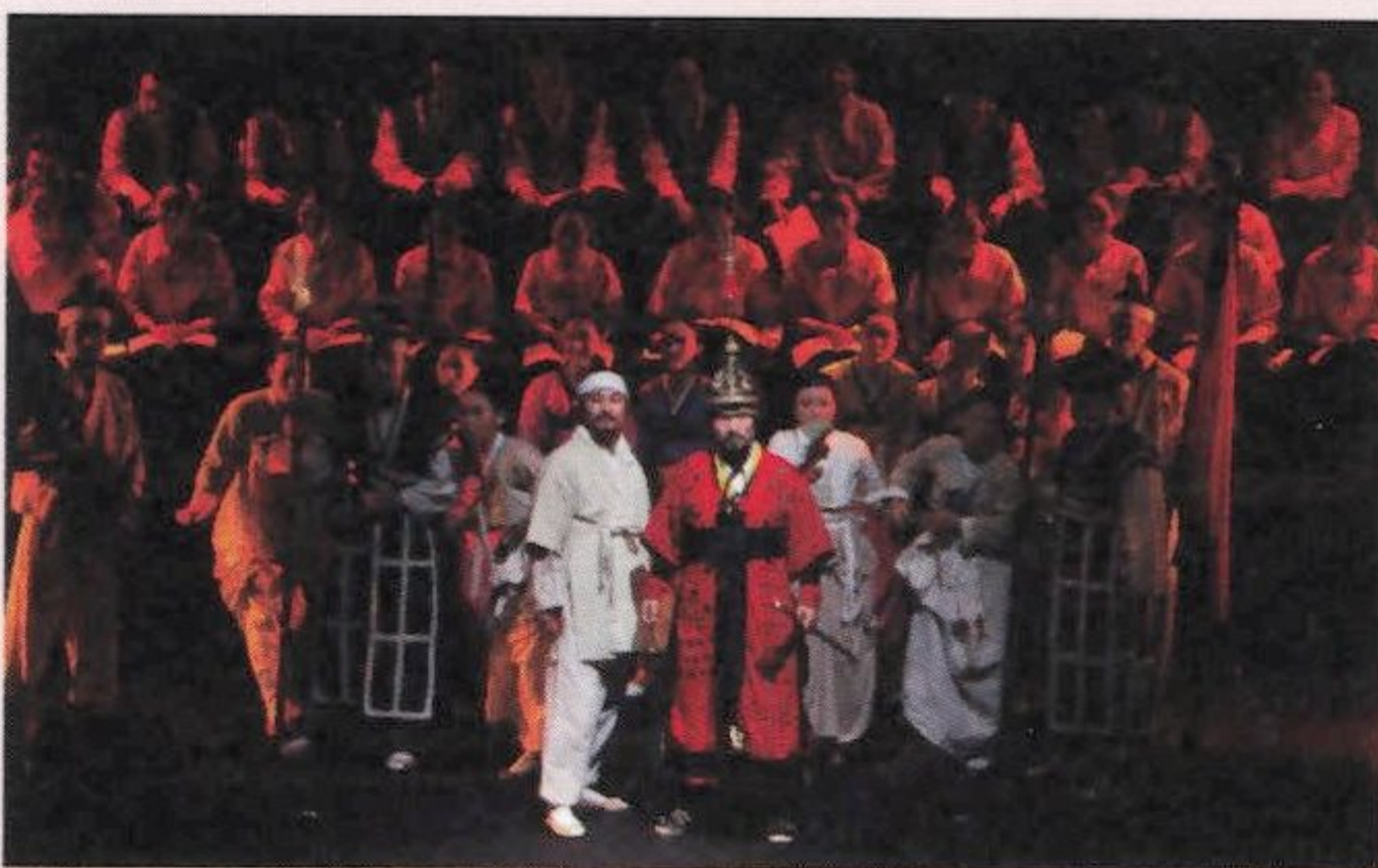
▶ 프로그램

라벨/밤의 가스파르 중 ‘스카르보’
리스트/폴로네이즈 1번
라흐마니노프/Corelli Variation 작품 42

쇼팽/녹턴 작품15 제2번, 스키르프 작품31 제2번
크노르/러시아 포크송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작품8 등
· 연주/조현선(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김은주, 김선영, 조혜영, 김무성(1st piano)&김은아(2nd piano), 허혜정(1st piano)&이수진(2nd piano)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공연
국악칸타타-동래성 붉은 꽃

4월 25일-26일 목-금요일 오후 7:30,
2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왜군에 맞서다 장렬히 전사한 송상현 동래부사의 결의와 인간애, 동래성을 지키다 목숨을 다한 동래읍성민들의 충(忠)과 의(義)를 현대적인 감각의 국악칸타타 형식으로 제작, 큰 호평을 받았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 업그레이드 무대. ‘동래성 붉은 꽃’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의 깊이 있는 음악세계와 웅장한 사운드에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등의 합창, 연극, 무용이 더해진 대규모 총체극으로 부산 동래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인물을 새롭게 재조명한다. 2011년 초연 무대의 단점을 보완,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화려함을 더했다.

· 예술총감독/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연출/이병훈(국립극단 상임연출가)
· 대본/백훈기(예술집단 페테 대표)
· 작곡/강봉천(부산중앙국악원 대표)
· 안무/홍경희(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출연/바리톤 박대용(송상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성악전공자 등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춘향전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이동신 연출 유철우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청중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한낮의 음악선물 웰빙콘서트 2013년 무대 오페라 하이라이트, 2월 ‘리골레토’ 무대에 이어 4월에는 1950년 작곡자 현제명의 지휘로 초연된 한국 최초의 창작 오페라 ‘춘향전’ 하이라이트 무대를 마련한다. 이동신 지휘자의 지휘와 해설, 오페라 전문연출가 유철우의 연출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 작품 속의 주요 장면과 아리아를 성악가들이 직접 연기하며 오페라의 감동을 전해준다.

▶ 프로그램

오페라 ‘춘향전’ 하이라이트-경치좋다 광한루, 오월단오, 온 누리엔 봄빛, 물위에 나는 기러기, 달아 달아 밝은 달, 한번을 보아도 내 사랑, 동편 하늘 밝아온다 등 수곡

· 지휘/해설/이동신 · 연출/유철우
· 소프라노/신민원 · 테너/홍지형
· 바리톤/한정현 · 소프라노/정재연
· 테너/김정하

송지은 피아노 귀국 독주회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송지은(017-0551-6719)

2007년 경성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2013년 Hochschule für
Musik Carl Maria von Weber Dresden을 졸업하고
귀국한 송지은의 귀국 피아노 독주회.

송지은은 Korea Chamber Orchestra Music Com-
petition 2등, Sejong Orchestra Music Competition,
CMS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Concours De
Piano De Brest Diplôme 1er médaille에 입상한 바 있
다.

▶프로그램

바흐/평균율클라비어곡집 제1권 프렐류드와 푸가
BWV.853
슈베르트/소나타 D.537
쇼팽/녹턴 제2번 작품 27, 스케르쑤 제2번 나단조 작품 31
프로코피에프/피아노소나타 제4번 작품 29



라운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4월 27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이상훈(010-2066-1331)



음악을 통해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단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우리 주위의 이웃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라운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전공자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활동
하고 있는 라운제나심포니오케스트라는 연간 10회 이
상의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운제나'는 순수 우리
말로 '기쁜 나, 즐거운 우리' 라는 뜻.

▶프로그램

드볼작/교향곡 제8번 사장조
쇤베르그/뮤지컬 '레미제라블' OST
맨켄/영화 '미녀와 야수' OST
크루&가우디오/뮤지컬 '컨스피러쉬' OST
파헬렐/캐논변주곡 등 수곡
· 지휘/김하균



바리톤 조현수 제3회 독창회

4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조현수(010-7540-1553)



Prato국제성악콩쿠르 1위,
Renzo Helfer 국제성악콩쿠
르 3위, 주세베 루카 재단 선
정 '올해의 젊은 음악가' 상
을 수상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 활동해온 부산의 중견 성
악가 바리톤 조현수 독창회.
현재 부산여자대학 외래교

수, 솔로페라단 상임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현
수는 이번 무대에서 슈베르트, 베토벤의 독일 가곡과
토스티의 이탈리아 가곡으로 봄에 맞는 밝은 외국가곡
과 오페라 '라 파보리타' '에르나니' '나부코' '카르멘'
의 아리아를 들려준다.

부산대학교 은사 김문희 전 부산대학교 교수가 함께 출
연해 이중창을 선사한다.

· 반주/피아니스트 박미은



제 24회 경성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4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경성대학교
(663-4918, 010-8533-4917)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경
성현악합주단이 들려주는 제24회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교수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



드볼작의 세레나데와 같이 현악합주곡으로는 최고의 자
리에 있는 명곡 요세프 슈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비
롯해 생상스의 대홍수 서곡과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 강의 현악 편곡등 봄에 들을 수
있는 주옥같은 명곡으로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요한 스트라우스/왈츠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 강(현악편곡)
바흐/푸가의 기법 중 'Contrapunctus' I
생상스/Le Deluge(대홍수) 중 서곡
요세프 슈/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6 등
· 지휘/임병원(경성대학교 교수)
· 연주/경성현악합주단(악장/신민경)



2013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스페인 YLLANA Production '파가니니'

5월 3일 금요일 오후 7:00, 4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 개
막작 스페인 신체 코미디극
극단 YLLANA Production
의 '파가니니'.

천재음악가 파가니니의 삶과
작품세계를 아름다운 음악메들리로 풀어낸 '파가니니'
는 2009년 부산국제연극제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
면서 역대 참가작 중 관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
았던 작품으로, 부산국제연극제 1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부산을 찾는다.

Music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2일 김경수 두 번째 피리독주회 '바람의 흐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수석, 창원국악관현악단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수 피리 독주회.
▶프로그램
지영희제 박범훈류 피리산조, 대풍류, 푸살-경기시나위, 태평소와 사물놀이

▶9일 장래훈의 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장래훈의 춤.

▶프로그램

무산향, 강선영류 태평무, 이매방류 살풀이춤, 소고춤, 이매방류 승무,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16일 제2회 박은하 거문고 독주회 '거문고 소리'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한국거문고양상블 회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하 거문고 독주회.

▶23일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민속풍류

지난 2009년 전통음악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고 지금까지 전승되어지지 못한 연주곡을 찾아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연주법과 이론을 정립하고자 창단된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무대.

▶프로그램

대풍류, 산조 3중주, 아리랑연곡, 시나위, 호적풍류
· 특별출연/유지숙(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상임단원)

▶30일 박연정의 '망구-길 위에 묻다'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박연정무용단 대표로 있는 춤꾼 박연정의 무대.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3일 부산경남지부 리스트협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김혜린, 신문정, 길금혜, 이명숙, 하승경 등 부산, 경남지부 리스트협회 회원들이 들려주는 리스트 음악의 밤.

▶프로그램

리스트/발라드 제2번, 메피스토 왈츠 제1번, 폴로네이즈, 곤돌라 뱃노래, 타란텔라, 헝가리무곡 제2번

▶10일 크로스오버 재즈 콘서트

플루티스트 오신정, 콘트라베이스 주자 박경호, 피아니스트 이은정, 퍼커션 주자 이요섭이 들려주는 크로스오버 재즈 콘서트.

· 특별출연/인제대학교 플루트양상블 'Ensemble IF'

▶17일 The MuZe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박은정, 첼리스트 문숙연, 바이올리니스트 강고은으로 결성된 양상블 'The MuZe'의 무대.

▶24일 박미은 피아노 독주회

부산대학교와 독일 쾰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반주연구회 회장, 독일가곡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미은 독주회.

쇼아트홀 개관 기념연주회

올레그 시틴(Oleg Shitin)

4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쇼아트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쇼아트홀(744-1415)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예술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올레그 시틴 초청무대.
올레그 시틴은 제6회 이탈리아 국제피아니스트콩쿠르 'S.라흐마니노프' 특별상과 1등상을 수상했다.

Amici della musica 오페라 '잔니 스키키'

4월 3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전공자들로 결성된 Amici della musica가 인간의 욕망과 사랑을 풍자와 해학으로 그려낸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를 선보인다.

· 지도교수/김성진

· 연출/박용민

· 피아노/박선하, 신세라

· 지휘/조현재

제15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쿨

2013. 3. 30(토)
4. 6(토)

국제수준 아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부 문 | 피아노/작곡/성악/중창/현악/관악/국악/실내악

대 상 | 유·초·중·고·대·일반전공·일반비전공

접 수 | 2013년 3월 28일 인터넷 접수

대회일 | 3월 30일/피아노, 작곡 4월 6일/성악, 중창, 현악, 관악, 국악, 실내악

접수처 | www.contest.co.kr(콘테스트) 또는 www.glovil.org

과제곡 | 전 부문 자유곡 1곡 ※자세한 사항 및 작곡은 홈페이지 참조

시 상 | 부산광역시장상, 부산대학교총장상, 문화콘텐츠개발원장상, 글로벌아트홀 관장상, 각 부문별 각 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부문별 최우수상 대상 교육공로상 최우수학원상

주 최 | 글로벌아트홀, 부산대문화콘텐츠개발원

글로벌아트홀 3호선, 4호선 미남역 1번출구 국민은행과 파리바게트 사이길로 4분 도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약도는 홈페이지 참조
T.051)505-5995 F.051)505-5935 E. glovil@hanmail.net http://www.glovil.org

▶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 '끌림'**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4일 Song of Polyphony**

2005년 클래식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결성된 후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남미음악 등 다양한 연주곡으로
관객과 만나온 폴리포니 기타듀오의 무대.

▶ **11일 소울밴드 '아메리카노' 콘서트**

흑인음악에서부터 재즈, 펑키, 어쿠스틱 노래까지 다양
한 장르의 곡을 그들만의 음악적 색깔로 들려주는 소울
밴드 '아메리카노' 콘서트.

▶ **18일 국악으로 여행을 떠나요**

조아라, 백진희, 최유리, 김가나, 정수유, 이지현 등이 활
동하고 있는 국악실내악팀 '도시락'의 전통과 퓨전을
넘나드는 색다른 무대.

▶ **25일 클래식 감성콘서트**

사랑, 행복, 이별, 그리움, 회상 등 네소드 스트링의 앙
상블 연주로 떠나는 추억여행.



▶ **해외관광객을 위한 공연 'Heritage of Korea'**

매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부산을 찾은 해외관광객들에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한
국의 인류무형 문화유산 중 종묘제례악, 처용무, 판소
리, 가곡, 아리랑, 강강술래 등 엄선된 6작품을 선보이
는 특별한 무대.



▶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 **4일 현악 4중주 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 서은아, 비올리스트 김상철, 첼
리스트 서성은이 들려주는 현악앙상블 무대.

▶ **프로그램**

헨델-할보르겐/파사칼리아
드보르작/삼중주 등

▶ **11일 김진희, 박필은 피아노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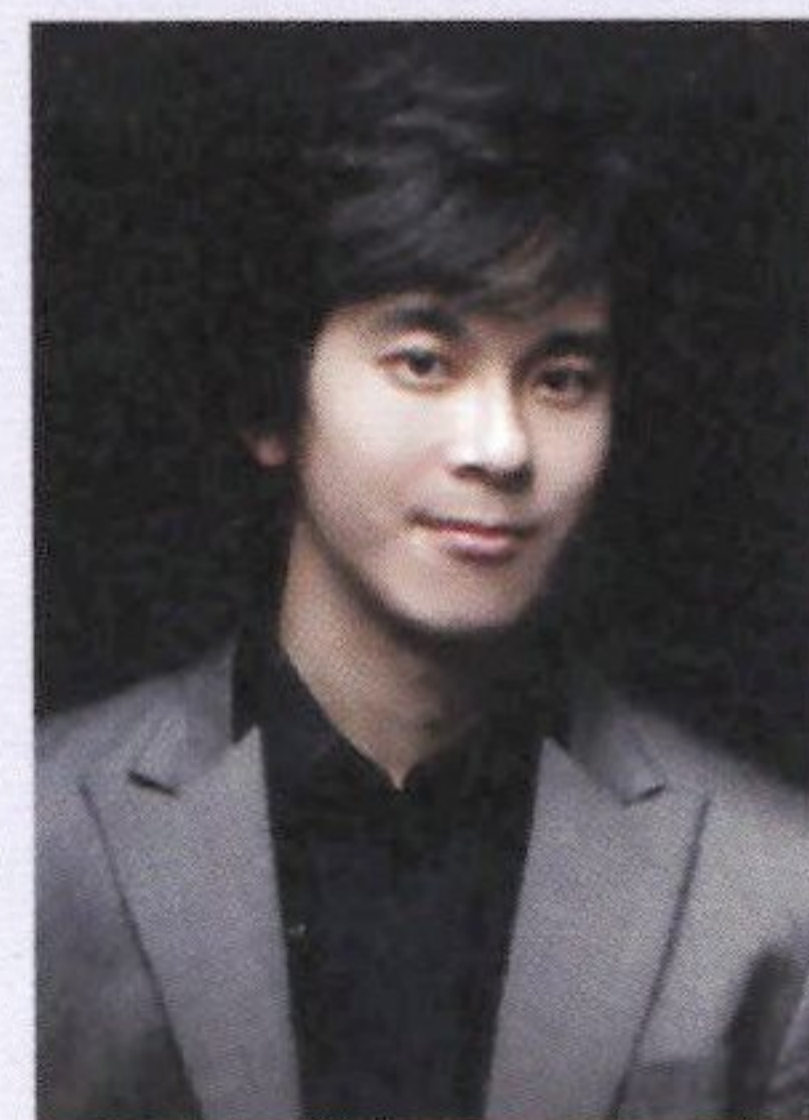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김진희, 박필은이 슈만의 아내였던 클라라
를 사랑한 슈만과 그의 제자 브람스의 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슈만/클라라 비크의 주제에 의한 즉흥곡 작품 5
슈만/환타지 작품 17
브람스/소나타 제2번 작품 2 등

▶ **18일 히데오 고보리 피아노 리사이틀**



일본 오사카음대와 프랑스
파리 에꼴노르말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세계를 무대
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
트 히데오 고보리 연주회.

▶ **프로그램**

에릭 사티/나는 너를 위해
드뷔시/월광

히데오 고보리/루미엘 등 수곡

▶ **25일 이원기 클라리넷 연주회 'Rest'**

동아대학교 기악과와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
재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
동중인 클라리네티스트 이원기 독주회.

▶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제1번 BWV 1001
모차르트/아다지오 K.622 등
· 피아노 이주연

▶ **이임수 클라리넷 독주회**

4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네오클래식(02-587-5961~2)



서울대와 미국 서던 캘리포
니아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하고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클라리
네티스트 이임수 독주회.
이임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제2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 **프로그램**

N. 브루크필러/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위한 이중주 작품 15
로시니/방금 들린 그대 목소리
힌데미트/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위한 소나타 등
· 피아노/장미경



▶ **울속도문화회관 금요 해피콘서트**

4월 5일 금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해피한 금요일의 휴식 같은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
는 울속도문화회관 '금요 해피콘서트' 4월 무대.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 및 동문들이 펼치는 '경성
인과 함께하는 봄의 소리'가 펼쳐진다.



▶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6일 프로그램**

승전무 중 북춤, 남도민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

리랑', 동래학춤, 영남성주굿, 가사 '죽지사', 대풍류, 좌수영어방놀이

▶13일 프로그램

대취타, 통영입춤,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중류', 부채춤, 소리놀이 1+, 설장구춤, 판굿

▶20일 프로그램

항발무, 침향무(황병기 곡), 통영교방진춤, 삼고무, 경기민요 '노랫가락, 창부타령', 영산작법, 사물놀이

▶27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남해안별신굿 수부시나위, 승전무 중 '칼춤', 모듬북과 태평소, 천년만세, 밀양백중놀이춤 등



제15회 테너 이은민 독창회

4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이은민(010-5504-0491)



칸타빌레 남성양상블, 부산성악아카데미, 독일가곡연구회 회원, 양산YWCA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로 활동중인 테너 이은민 독창회. 올해는 이은민이 1993년 독일 귀국 후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 활동을 시작한지 20주

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연주활동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헨델/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베토벤/입맞춤, 아델라이데 말러/연가곡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내 사랑이 결혼을 한다면' 등 수곡



동성화학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조운범의 시네마 클래식 5'

4월 9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클래식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해설로 진행되는 '시네마콘서트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정통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젊은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의 연주로 영화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쇼아트홀 개관 기념연주회

샤운 추(Shaun Choo)

4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수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수아트홀(744-1415)



제2회 아시아태평양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싱가포르 출신의 피아니스트 샤운 추는 그동안 중국 그로트리안-슈타인베그 피아노 콩쿠르, 독일 ZF 뮤직프라이스, 헝가리 쇼팽 콩쿠르 등 세계 유명 콩쿠르에서 7회나 입상해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YAMAHA-KAWAI-STEINWAY
PIANO D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자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 051-753-8963
H.P. 010-9003-8963



연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석사), 에센 국립음대(박사)를 졸업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이 협연한다.

· 지휘/임준오 · 협연/김희정(바이올린)



을숙도 명품콘서트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4월 11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만 11세의 나이에 금호영재 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는 서울국제음악제(2009, 2010)에 최연소 아티스트로 참가한 천재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의 협연무대로 마련되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프로그램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드보르작/교향곡 '신세계로부터' 등
· 연주/T.I.F오케스트라

고은경·금찬이 듀오 리사이틀

4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금찬이(010-2850-6424)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동문인 피아니스트 고은경, 금찬이의 피아노 듀오무대. '독일 작곡가의 밤'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브람스, 베버 등 독일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제2회 아미띠에 정기연주회

4월 13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이지혜(010-2365-0818)



지난해 신라대학교 피아노 전공자들이 모여 창단한 아미띠에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바흐/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
쇼팽/스케르초 제1번, 2번
슈만/알레그로 등



동래문화회관 토요일해피콘서트

4월 13일(토), 27일(토)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 13일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노트'

바이올리니스트 김성은, 첼리스트 박현영, 피아니스트 최정윤으로 결성된 '트리오 노트'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27일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과 함께하는 음악회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전국클래식기타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부산을 대표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의 무대.

제15회 숲속의 열린 음악회

동래구민을 위한 새봄 음악회

4월 16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바이올리니스트 이영주,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소프라노 김현애, 테너 최광현, 피아니스트 허혜진, 김효성이 들려주는 새봄을 여는 음악회.



힐링콘서트

4월 17일 수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조아라(소리), 백진희(작곡, 건반), 최유리(해금), 김가나(대금), 정수유(가야금), 이지현(타악) 등 젊은 국악인들로 결성된 국악퓨전그룹 도시락(都是樂)이 펼치는 색다른 국악 퓨전무대.



독일가곡연구회 제42회 정기연주회

4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독일가곡연구회(010-2692-6856)

1987년 독일어권에서 수학한 음악가들로 창단된 후 독일가곡의 연구와 보급에 힘써온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로, 독일 낭만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슈베르트/달에게, 당신은 나의 안식
멘델스존/첫 제비꽃, 베네치아의 뱃노래



브람스/묘지에서, 꿈을 꾸었네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정서영, 김현애, 윤선기, 양근화, 박나리, 테너 조윤환, 임성규, 바리톤 김종화, 베이스 김정대, 피아니스트 김남숙, 박필은, 이화영선, 곽윤희, 임소영, 정수연, 성민주



브랜드공연 국악뮤지컬 '자갈치 아리랑'

4월 18일-19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부산의 역사와 함께해온 자갈치 시장을 배경으로, 화사하고 고고한 동백꽃을 닮은 부인과 주색잡기에 능한 박한량의 사랑과 결혼 등 삶의 이야기를 영남의 춤과 소리로 풀어낸 국악뮤지컬 '자갈치 아리랑'.



청소년 렉처콘서트

4월 20일 토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표현주의의 대가로 평가받는 작가 칸딘스키, 파울 클레의 작품 감상과 더불어 그 시기에 활동했던 음악가들의 작품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청소년 렉처콘서트.

나눔 콘서트 시리즈3

SONG FOR MOM & KIDS

4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예술기획(0505-700-9798)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따뜻한 플루티스트들이 음악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나눔음악회.

·출연/강선아, 성기업, 황미리, 김예나, 이인애, 김하나, 임다예, 박수빈, 이영송, 김유경, 이나래, 조혜영
·해설/이시후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아인스퀼렛 '모차르트의 밤'

4월 20일 토요일 오후 7: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영, 정아름, 비올리스트 정희경, 첼리스트 윤주연으로 결성된 아인스 퀼렛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사장조 K.525
모차르트/클라리넷 쿤텟 가장조 K.58 등

판타지의 밤

4월 22일(월), 29일(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예술기획(0505-700-9798)

고신대학교 김남숙 교수의 제자이자 동문들이 들려주는 판타지의 밤.

▶22일 프로그램

하이든/판타지 다장조 Hob.17-4
베토벤/판타지 사단조 작품 77 등
·연주/이은진, 윤선혜, 강혜덕, 이희령, 최윤희

▶29일 프로그램

바흐/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BWA 903
모차르트/판타지 제2번 바단조 K.608 등
·연주/이수미, 박민경, 박보경, 신현희, 고태욱

제2회 해운대 노노(No,老) 실버합창단

해운대 노이(Noi)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4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고봉수(010-4434-6605)



지휘자 고봉수가 이끄는 청춘합창단인 해운대 노노(No,老) 실버합창단과 해운대 노이(Noi) 여성합창단이 국내외 가곡에서 가요, 흑인영가, 종교음악, 영화 OST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지휘/고봉수

·특별출연/소프라노 신정순, Passione Trio, 우예슬, 장미(무용)



동래문화회관 목요일링콘서트

도심에서 듣는 풍류 음악회

4월 25일 목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2천원 · 학생 1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퓨전국악그룹 '소리 팔레트'가 '봄바람으로 부는 대금'이라는 테마로 봄의 따스함과 평온함을 담은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제1144회 MBC목요음악회

효원국악관현악단 초청연주회

4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사)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



2000년 3월 부산,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젊은 국악인으로 창단한 효원국악관현악단 초청 MBC목요음악회. 실험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연주로 사랑받고 있는 효원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100여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우리국악의 멋을 알려왔다.

·지휘/홍희철(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부산악기센터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여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해운대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봄의 소리'

4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균일 1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해운대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무대로 마련되는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4월 무대.

· 지휘/백진현

· 협연/김동욱(바이올린)

정태미(소프라노)

이지선(피아노)



제15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최우수 입상자들이 마련하는 축하무대.



글로벌 행복음악회

4월 28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금 기금)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아르츠 콘서트 '러브테마'

4월 30일 화요일 오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3)



아르츠 콘서트 <러브테마>
2013.04.30 화 오전 11시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13년 새롭게 선보이는 금정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루브르 천 번 가 본 남자' 윤운중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로,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대표적인 미술 작품과 음악을 통해 로맨스와 예술이 살아숨쉬는 프랑

스로 문화여행을 떠난다.

▶ 프로그램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

드뷔시/두개의 아라베스크 중 '아라베스크 1번'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꿈 속에서 살고

싶어라' 등

이인아트홀 4월 디너콘서트

1st Anniversary with Prelude

4월 26일 금요일 오후 6:00 이인아트홀

입장료 | 균일 15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 이인아트홀(750-2165)



2003년 고희안(피아노), 최진배(베이스), 리차드 로(테너 색소폰), 한웅원(드럼) 등 버클리음대 재학생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재즈밴드 '프렐류드'의 무대로 마련되는 이인아트홀 개관 1주년 기념무대.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최우수입상자 연주회

4월 27일 토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Play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2012년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수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연극 '그남자 그여자'

2012년 11월 1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초콜릿팩토리(1577-5878)

수줍은 사내 커플과 풋풋한 대학생 커플의 두근거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달콤한 사랑, 그리고 쓰라린 이별와 아련한 추억까지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대학로 최고의 커플 연극 '그남자 그여자' 부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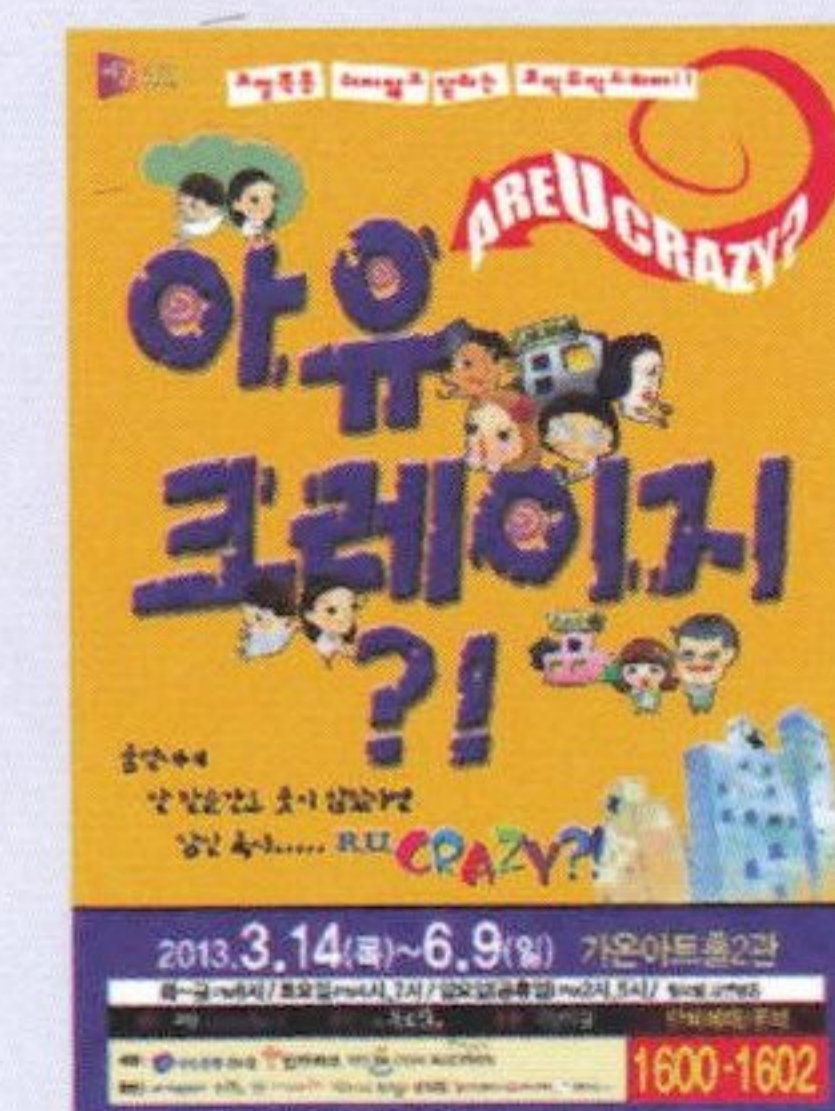
연극 '아유 크레이지'

3월 14일(목)-6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 극단 라임(1600-1602)



정신병원에 위장 입원한 천재박사 김희진과 그의 조수 임윤택, 보수적인 사고를 지닌 괴짜박사 이규인과 실수투성이 초보 간호사 이애리 등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요절복통 해프닝을 그린 코믹극 '아유 크레이지'.

연극 '미치지 않고서야'

3월 15일(금)-5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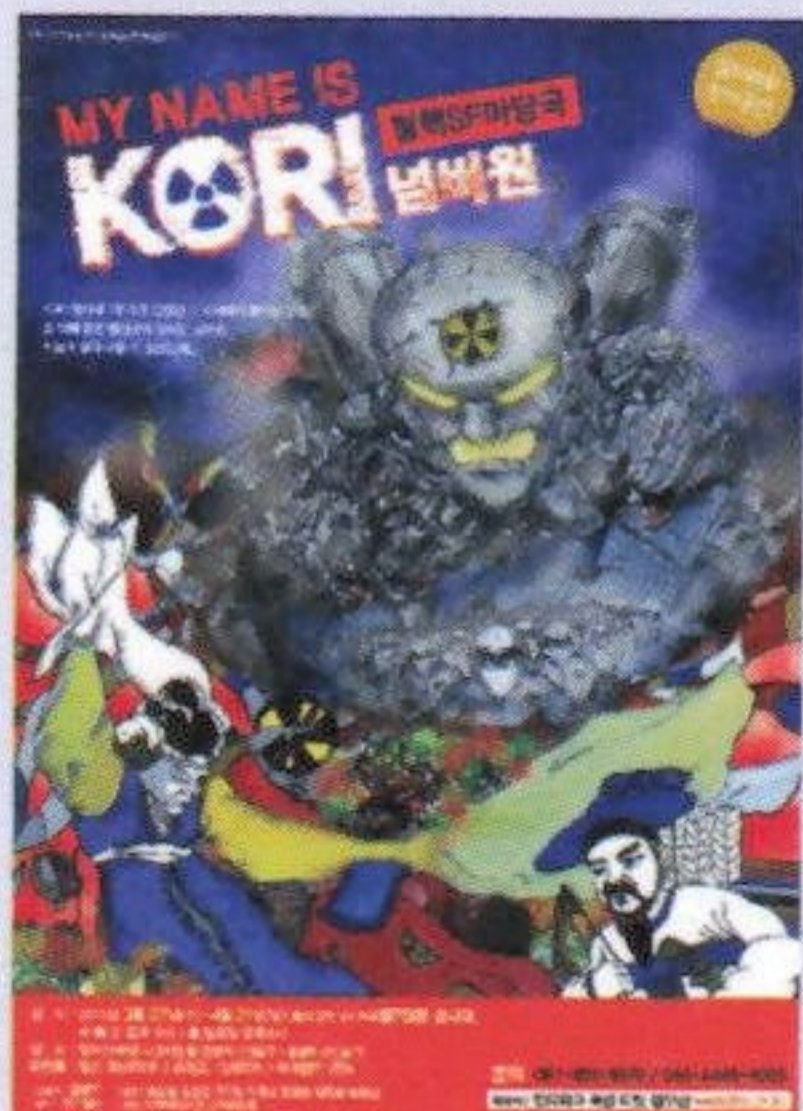


연극 'A love song' '못생겨서 죄송합니다'에 이은 여성 공감 3부작 '미치지 않고서야'.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기 위한 어머니 박정봉의 고군분투가 유쾌한 웃음과 짝한 감동으로 펼쳐진다.
· 작, 연출/김민우
· 출연/황자미, 황하규, 조아라, 김민우



탈핵 SF마당극 'My name is KORI 넘버원'

3월 27일(수)-4월 21일(일) 수-금요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4/7일, 월-화요일 공연없음)
ilter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초중고생 1만 5천원
(예약시 일반 1만 5천원 · 초중고생 1만 1천원)
문의 | 일터소극장(635-5370, www.ilter.or.kr)



수명을 다하고도 멈추지 못하는 고리원전 1호기를 의인화시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발전소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원자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동국판을 펼치는 탈핵SF마당극 'My name is KORI 넘버원'.

· 작, 연출/김영구
· 편곡/최두진 · 음악/김현일
· 출연/윤순심, 김선관, 조기정, 박령순, 전성호, 임정남, 심창신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3월 29일(토)-5월 6일(월) 평일 오후 8:00,
주말 공휴일 오후 3:00, 6:00(3/31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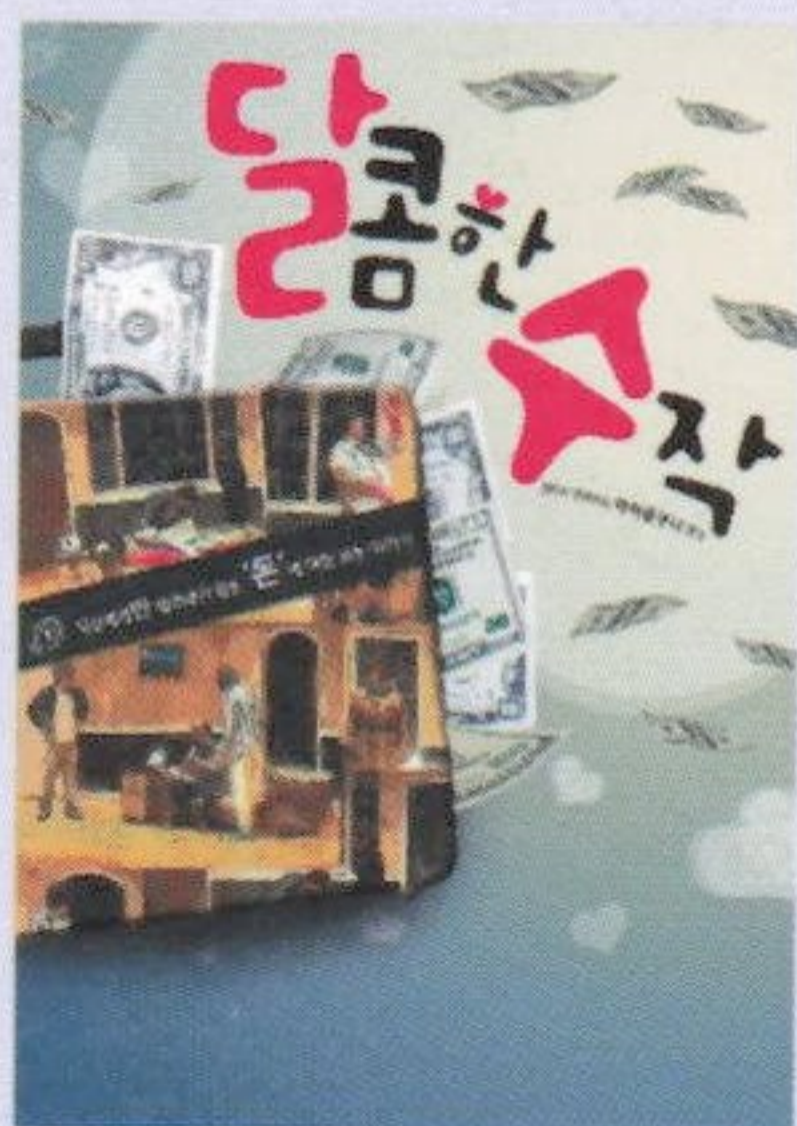


행복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6명의 남녀를 통해 조건없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노래하는 콘서트 뮤지컬.
· 작/함유진 · 연출/김재근
· 작, 편곡/Clay
· 출연/신준호, 정지환, 이진원, 이희재, 송임정, 이선영



리얼 코믹 연극 '달콤한 수작'

3월 29일(금)-6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3/31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탄탄한 구성력과 위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영국의 극작가 마이클 쿠니의 'Cash on delivery'를 원작으로 한 리얼 코믹극 '달콤한 수작'.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상황들과 오합지졸 캐릭터들의 정신없는 대사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 원작/마이클 쿠니
· 각색, 연출/전주협
· 출연/김도한, 김정원, 박상민, 윤준기, 김기환, 김병철, 전현우, 최정아, 김아람, 변은지, 김희진

2013 제31회 부산연극제

3월 29일(금)-4월 1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부산연극계 최대의 축제 제31회 부산연극제.
극단 하늘개인날, 극단 도깨비, 극단 더블 스테이지 등 부산지역 9개 극단이 경연부문에 참가, 6월 열리는 전국연극제 티켓을 놓고 열띤 경연을 펼친다.

▶ 경연작 극단 하늘개인날 '뜰 앞의 개고기'

4월 2일-3일 화-수요일 오후 7:30
2012 제5회 전국창작희곡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 하늘개인날의 '뜰 앞의 개고기'는 주인공인 형사 민호가 절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시절 만났던 관하스님과 의 인연을 회상하며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이다.
· 작/최수영 · 연출/곽종필

▶ 경연작 극단 도깨비 '깊이 묻다'

4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무덤으로 포화상태가 되면서 사망금지령이 내린 마을을 배경으로, 죽은 아버지를 묻기 위한 아들 도굴범의 고군분투가 시작되는데...,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극단 도깨비 '깊이 묻다'.
· 작/김경미 · 연출/최광욱

▶ 경연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모래폭풍'

4월 8일-9일 월-화요일 오후 7:30
2012 제3회 부산신인창작희곡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극단 더블스테이지 '모래폭풍'.
주변환경과 폭력으로부터 고립될 수 밖에 없는 가족을 통해 사람들의 이기심과 야만성을 그린 창작극이다.
· 작/김동현 · 연출/오정국

▶ 경연작 극단 누리에 '기동슈퍼'

4월 11일-12일 목-금요일 오후 7:30

2008년 서천에서 발생한 미스터리 사건인 '기동슈퍼 화재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극단 누리에 '기동슈퍼' 사건을 따라가면서 드러나는 사회 부조리와 그 속에 갈 등을 빛는 사람들을 그린 사회극이다.

· 작/최서희 · 연출/강성우

▶ 자유참가작 뮤직팩토리 라라 '봄의 축제'

4월 13일-14일 토-일요일 오후 5:00



우리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뮤직팩토리 라라가 생동감 넘치는 봄의 소리를 우리의 국악기와 판소리, 민요, 춤으로 들려주는 음악극.

▶ 프로그램

관현악 '세상풍경', 봄노래 연곡, 관현악과 함께하는 '사랑가', 관현악 '광야의 숨결', 상사몽, 마법의 성, 아름다운 나라, LOVE, 사랑사랑사랑

· 음악감독/하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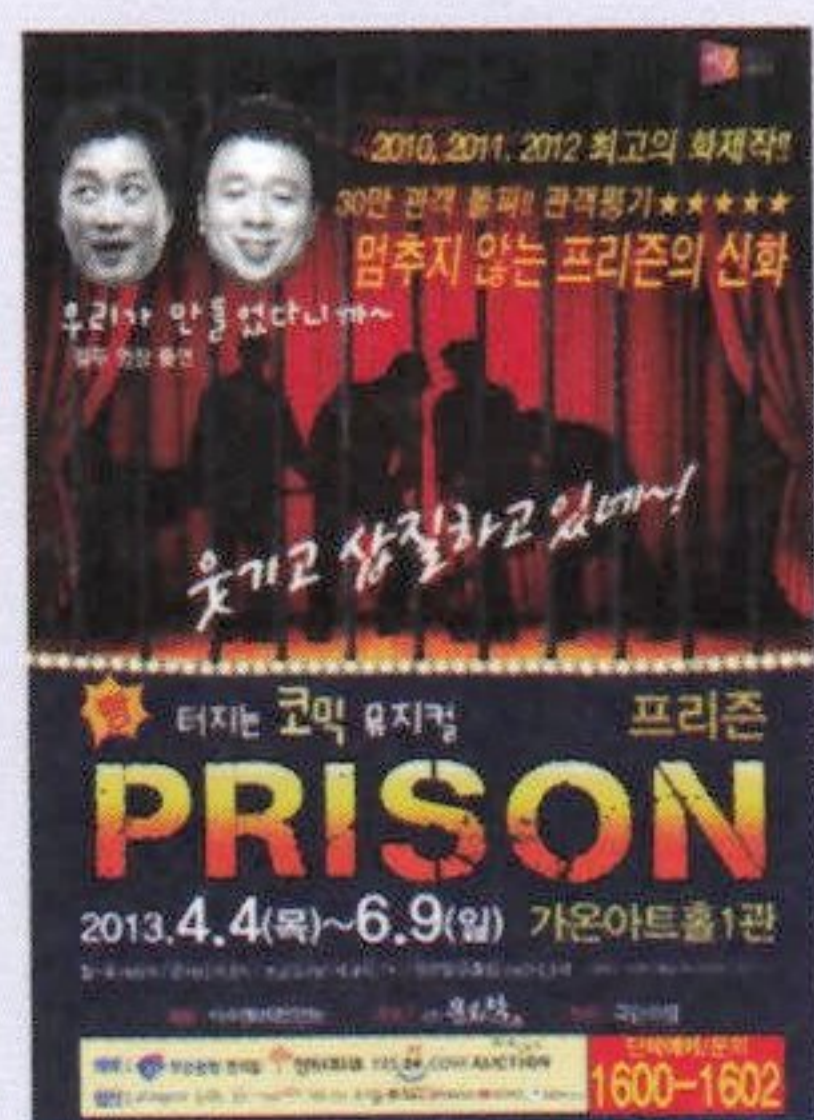


코믹뮤지컬 '프리즌'

4월 4일(목)-5월 31일(금) 평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1:00,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극단 라임(1600-1602)



인기개그맨 컬투가 제작한 코믹뮤지컬 '프리즌'. 가수를 꿈꾸는 탈옥범들의 요절복통 스토리를 담은 '프리즌'은 철저히 준비된 웃음과 자연스러운 애드립에 콘서트와 퍼포먼스, 비보잉, 마술, 개그 등 다채로운 장르가

결합되어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극단 새벽 연극아카데미 22기 워크샵 공연

칠수와 만수

4월 5일 금요일 오후 8:00,
6일 토요일 오후 5:00 **자유바다소극장**
입장료 | 제작후원금 1만원
문 의 | 극단 새벽(245-5919,
saebyeok.communeart.net)



이 시대 연극의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우리네 삶을 담아낸 연극의 필요성을 관객과 공감해온 극단 새벽 연극아카데미 22기 워크샵 무대.

1986년 초연당시 당대 최고의 이슈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사회풍자극 '칠수와 만수'를 선보인다.

· 작/오종우 · 연가지도/이성민, 이현식
· 출연/최상민, 김길수, 이승윤, 윤종혁, 김영주, 임지윤, 강수진, 김동희



창작뮤지컬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4월 5일(금)-4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611-8518)



뮤지컬 '복순이 할배'의 작가 박정우가 새롭게 제작한 부산 창작뮤지컬 2탄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소심하고 숫기없는 초등학교 교사 강희와 순수청년 채힘찬의 운명적인 사랑이 아름다운 음악 속에 펼쳐진다.

· 작/박정우 · 연출/윤성호
· 출연/채민수, 서혜빈, 김범수, 박다숨

전래동화뮤지컬 '어흥! 호랑이와 꽃감'

4월 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4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전래동화 '호랑이와 꽃감'을 각색해 흥겨운 사물놀이로 재미를 더한 전래동화 뮤지컬.



어린이베스트 동화뮤지컬 '사과가 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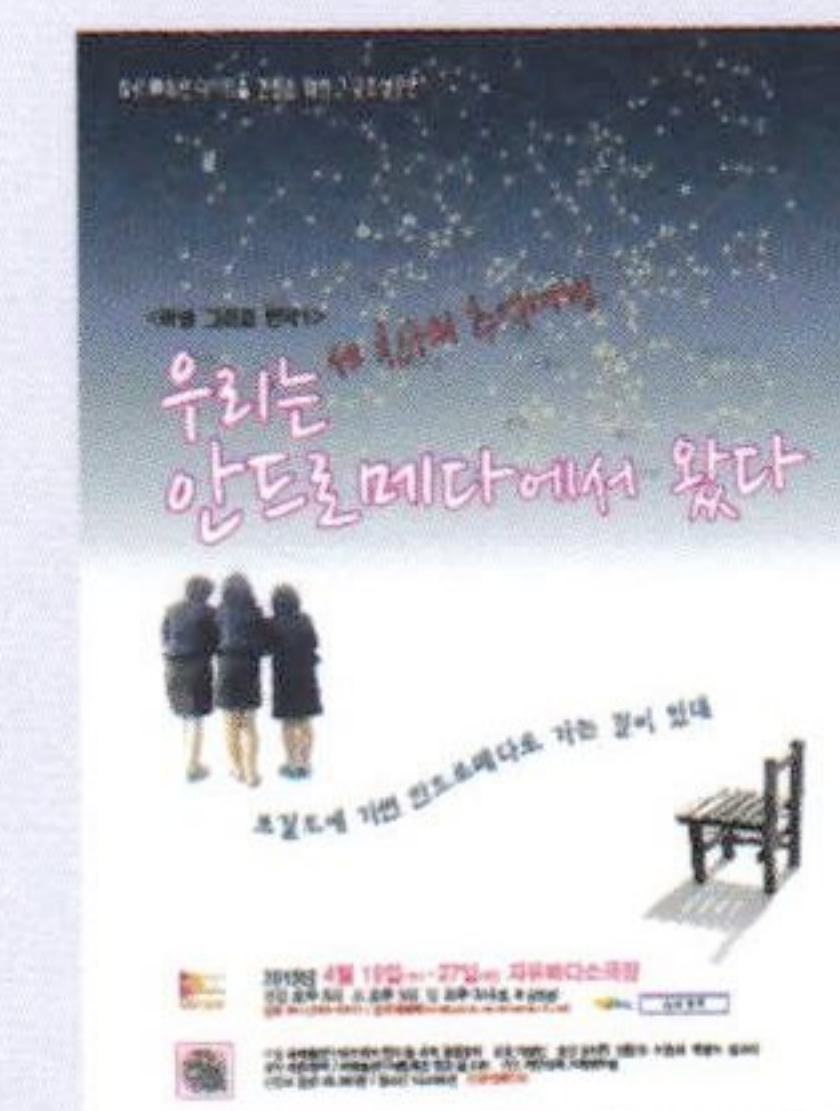
4월 6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7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등장해 커다란 사과를 갇아먹는 단순한 구성 속에서 커다란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동명의 베스트셀러 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사과가 쿵!'.



극예술연구네트워크 '현과 울 사이' 공동창작
우리는 안드로메다에서 왔다

4월 10일(수)-27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요일 오후 3:00(월-화요일 공연없음)
자유바다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학생 1만 5천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 극단 새벽(245-5919,
saebyeok.communeart.net)



여고시절 가출여행의 행선지를 쫓아 보길도로 추억여행을 떠나는 세친구의 과거와 현재를 그린 여성극.

· 연출/이성민
· 출연/유미희, 변현주, 박정아, 정주리(목소리 출연/이현식)

오피스 뮤지컬 '막돼먹은 영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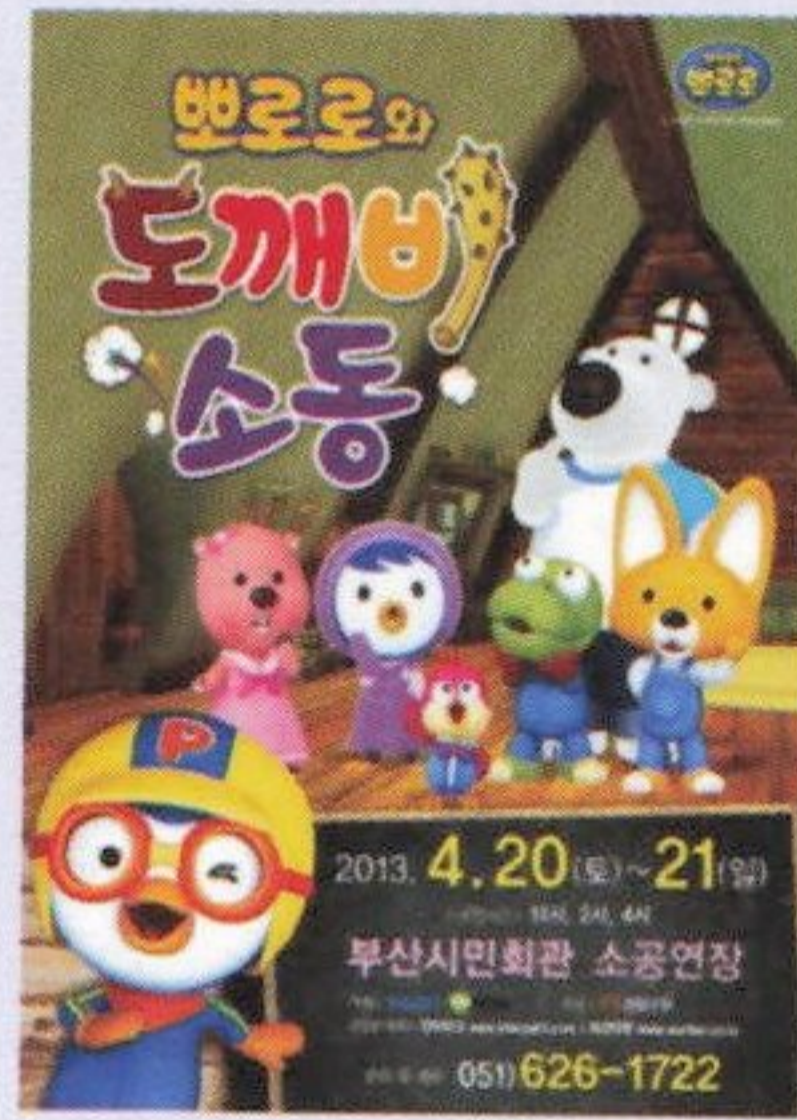
4월 1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14일 일요일
오후 3:00, 6: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6만 6천원 · S석 5만 5천원
A석 4만 4천원
문의 | (주)문화CONG(1688-8998)



직장인들의 폭풍공감을 이끌
어내며 평균 92% 객석 점유
율을 기록했던 뮤지컬 '막돼
먹은 영애씨' 2013년 무대.
막돼먹은 세상에 맞서다 스스
로 막돼먹어버린 주인공 영애
씨의 고군분투 직장생활이 또
한번 유쾌하게 펼쳐진다.

캐릭터뮤지컬 '뽀로로와 도깨비 소동'

4월 20일-2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ES 생활문화(1577-4868)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뽀로로와 도깨비
가 만났다... 뽀로로가 사는
숲 속 마을에 나타난 장난꾸
러기 도깨비와의 한바탕 소
동을 통해 친구와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캐릭터 뮤지컬
'뽀로로와 도깨비 소동'.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작
가 아들 후가드의 '메카로
가는 길'을 각색, 현실속에
서의 메카의 의미와 우리가
가져야 할 신념을 이야기하
는 작품.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박규남, 호민

세계명작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4월 28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안데르센의 단편동화를 각색, 허영에 가득 찬 임금님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어린이 뮤지컬.

연극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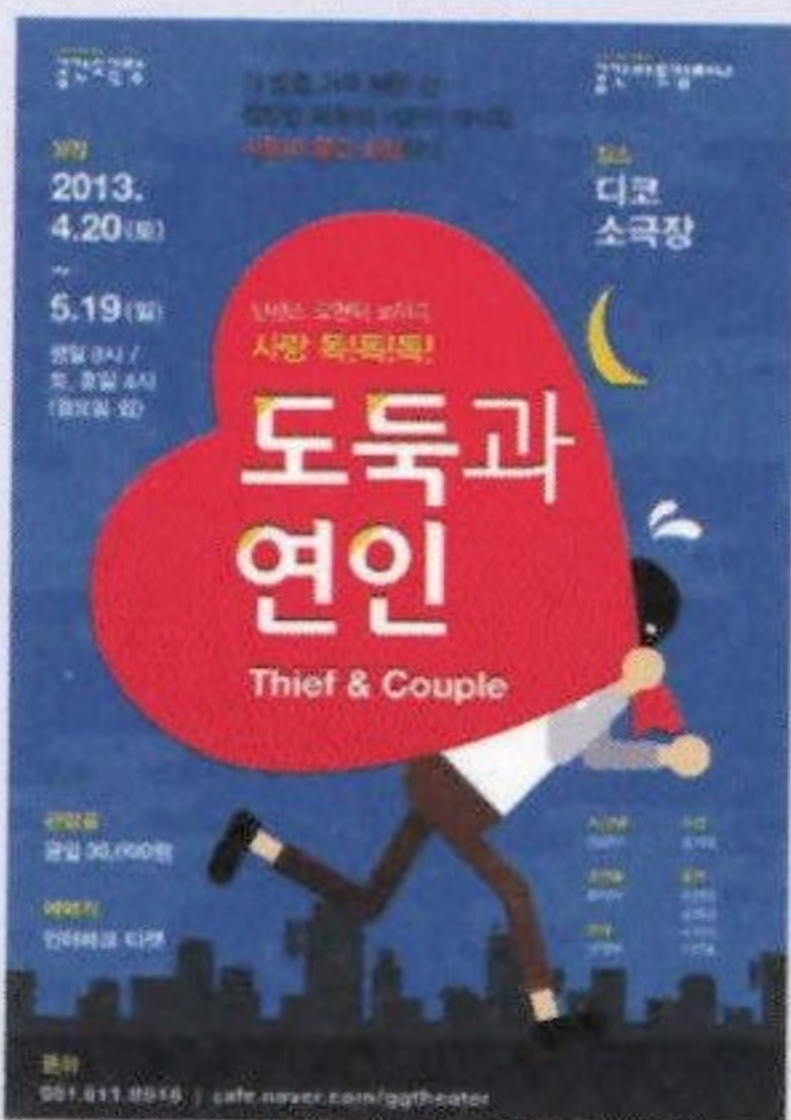
4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2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아서 밀러의 원작 '세일즈맨
의 죽음'을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낸 연극
'아버지'.
대한민국 대표 아버지 이순
재와 전무송이 출연, 무뚝뚝
하지만 내면은 자상한 아버
지 역을 맡아 세상과 가족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가정의 슬픔을 연기한다.

연극 '도둑과 연인'

4월 20일(토)-5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디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cafe.naver.com/ggtheater)



지난해 12월 초연무대로 선
보여 사랑받았던 로맨틱 코
믹극 '사랑 톡톡!'을 새롭
게 업그레이드시킨 무대로,
두 연인과 그들의 원룸에 침
입한 좀도둑이 펼치는 해프
닝을 통해 우리가 잊고있는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 작, 연출/전상배
· 출연/하현관, 강해경, 구미석, 신민호

뮤지컬 '삼총사' 부산 공연

5월 3일-5월 12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7: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입장료 | VIP석 13만원·R석 11만원
S석 8만원·A석 6만원
문의 | 인터파크 공연기획팀(950-6511~2)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최고
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삼총
사' 부산공연
알렉상드르 뒤마의 '삼총
사'를 원작으로, 왕실 총사
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 '달
타냥'과 프랑스 왕의 친위부
대 삼총사 '아토스' '포르토
스' '아라미스'의 모험과 우정을 박진감 넘치게 그리고
있다.

출연
남경주, 신성우, 김법래, 이견명, 김민중, 민영기, 엄기준,
조순창, 손준호, 박진우, 이창민, 규현, Jun. K, 서지영,
김소현, 김아선, 제이민, 예은, 김상현, 김형균 외

세계명작뮤지컬 '신데렐라'

4월 2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1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새엄마와 언니들의 구박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신데
렐라의 이야기를 그린 어린이 뮤지컬.

2013 을숙도 연극열전

극단 아센 '메카, 그 해 따뜻한 겨울'

4월 24일-26일 수-금요일 오후 8:00, 27일 토요
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극단 아센(504-2544)

Dance

무용단 Redstep 기획공연

2013 Remember that... -진화3, To Somebody

4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청소년, 65세 이상 50% 할인)
문의 | 무용단 Redstep(010-2762-1827)



무용단 Redstep의 레퍼토리 중 공연 당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작품들을 엄선해 선보이는 기획무대. 2007년 예술감독 허경미의 초연무대 이후 세 번째로 선보이는 '진화'와 삶에 대한 궁극적 의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존재적 갈등의 상황을 춤 언어로 그려낸 2012년 창작춤 'To Somebody'를 무대에 올린다.

▶작품

진화3(안무/허경미, 출연/박재현)

To Somebody(안무/허경미, 출연/허경미, 신승민, 박광호, 신윤경, 김동석)

Concert

시와, 커피 부산 첫 콘서트

4월 5일 금요일 오후 7:00 장전동 금빛물고기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cafe.daum.net/marcil 게시판 신청)

문의 | 금빛물고기(581-5544)



한낮의 유U; 콘서트 7주년 특집

미성의 황제 조관우 초청공연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문의 | 국제신문(500-5222)



5옥타브를 넘나드는 천상의 목소리 가수 조관우 초청공연으로 마련되는 한낮의 유U; 콘서트 7주년 특집무대. 늬, 님은 먼곳에 등 그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팝핀현준

자전거탄풍경



김광석 다시부르기 - 부산공연

4월 27일 토요일 오후 3:00, 7:3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 S석 8만 8천원
A석 7만 7천원

문의 | 라이브온(1577-6696)

Event

무지크바움 제차 음악교양강좌

자유와 생존: 음악가의 이상과 현실

3월 7일(목)-4월 25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1회 수강료 | 7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부산시민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자 음악평론가인 김창욱의 해설로 진행되는 무지크바움 음악교양강좌.

- 4일 귀족에 둘러싸인 평민예술가: 베토벤
- 11일 비엔나의 보헤미안: 슈베르트
- 18일 부유한 가정, 꿈 같은 삶: 멘델스존
- 25일 비극적 낭만주의자: 슈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이승훈 시인 초청 제120회 시울림 시낭송회

4월 3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예강(010-5516-1867)

- 초청시인/시인 이승훈
- 찬조출연/고충진(클래식 기타리스트)

감동이 있는 시낭송회

제 74회 알바트로스시낭송음악회

유치환 시인 특집 시낭송회

4월 20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김옥균(010-6367-0149)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

제5차 시마당 사투리 시낭송대회

4월 23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안태봉(017-552-0626)

Gallery

오윤 회고전 '나무에 새긴 동래학춤'

2월 20일(수)-4월 14일(일) 미부아트센터
문의 | 미부아트센터(243-3100)

부산 출신의 현대판화미술의 거장 오윤 회고전. 동래학춤 춤사위와 굿, 도깨비, 부자상, 자연 등을 소재로 한 목판화 17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안샤우덱 사진전 '로맨티시즘과 에로티시즘 사이'

2월 28일(목)-4월 28일(일) 이연주갤러리
입장료 | 균일 8천원(만 15세 이상 관람)
문의 | 이연주갤러리(723-4826)

소설가 카프카, 작곡가 스메타나와 더불어 체코 문화에 숭배의 3대 거장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사진작가 안샤우덱 부산 첫 작품전.

로맨티시즘과 에로티시즘의 경계를 줄타기하는 그의 대표작들이 전시된다.

신옥진 기증 작품전-일본근현대미술

3월 1일(금)-7월 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기증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일본 전통미술의 근대화에 초석이 된 화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요코야마 다이칸의 수묵담채화와 로댕의 조수였던 후지카와 유조의 조각 등 13점이 전시된다.

부산시립미술관 2012 신소장품전

3월 1일(금)-5월 5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부산시립미술관이 지난 2012년 구입한 총 44점의 작품 중 32점의 소장작품을 소개하는 2012 신소장품전.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고요한 풍경'

3월 1일(금)-7월 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부산시립미술관 소장작품들 중 힐링에 도움이 되는 '고요, 명상, 침묵, 적막, 고독' 등의 분위기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

손현욱 개인전 '어느 조각가 이야기'

3월 2일(토)-4월 12일(금) 에스플러스 갤러리
문의 | 에스플러스 갤러리(742-3353.)

고은사진미술관 연례 기획_부산 참견錄-강홍구展 '사람의 집-프로세믹스 부산'

3월 2일(토)-5월 9일(목)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 연중기획 '중간보고서'-박진영 개인전 '방랑기'

3월 2일(토)-5월 9일(목)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김선두 초대개인전 '화가의 눈'

3월 15일(금)-4월 16일(화) 갤러리 희
문의 | 갤러리 희(055-383-1962)

파사드 부산 2013

3월 15일(금)-5월 5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15주년,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한국근대사 격동의 50년을 함께 해온 부산사랑과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2013년 첫 기획전.

심문섭 개인전

'Towards an Island-The Art of Earth'

3월 16일(토)-4월 27일(토) 포럼 604
문의 | 갤러리 604(245-5259)

조각계 이단아로 불리는 심문섭의 테라코타, 회화 등 작품 20여점 전시

새람 두 번째 개인전

3월 18일(월)-4월 6일(토) 갤러리 움
문의 | 갤러리 움(557-3369)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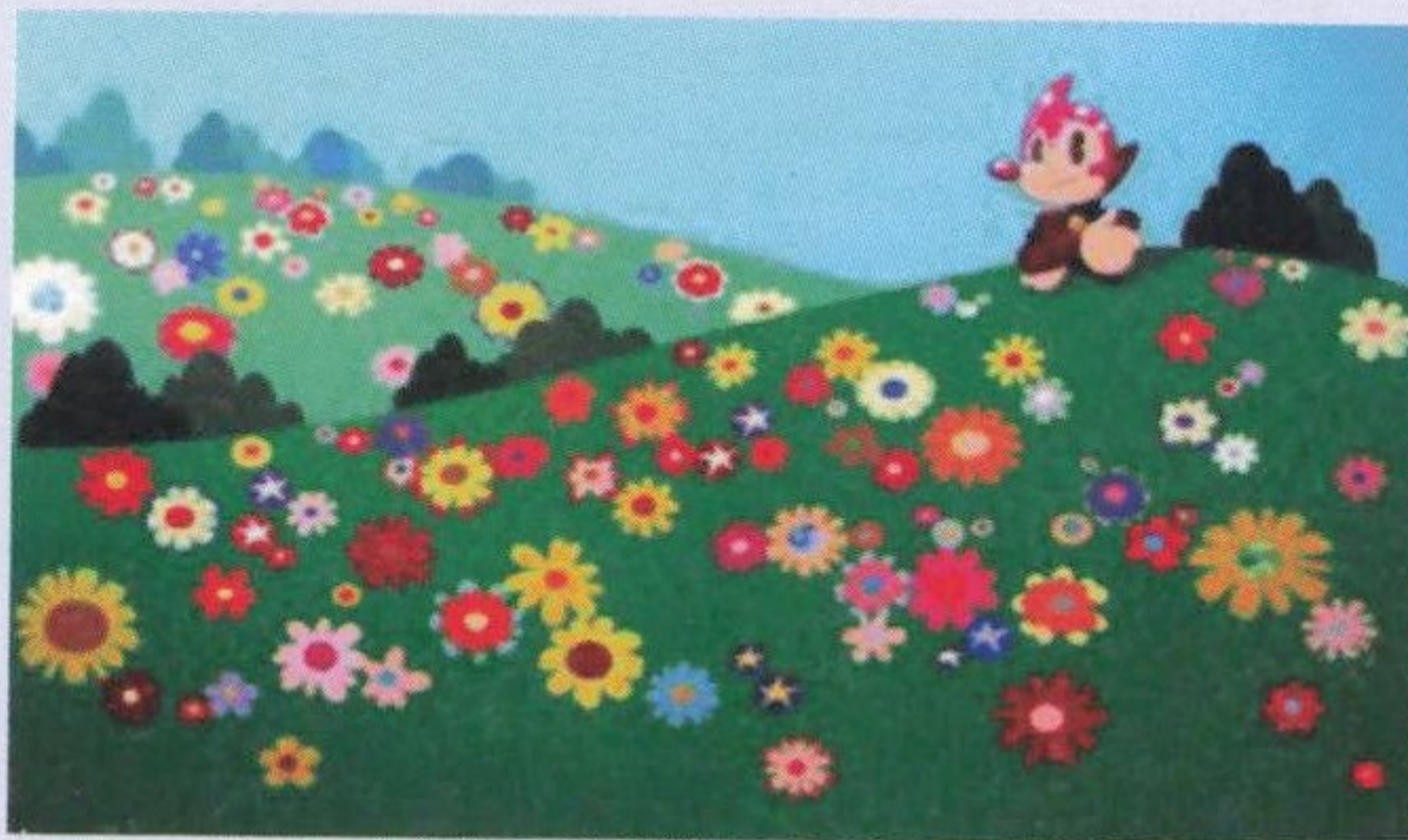
함께 자라는 아이들- 똑똑! 여우야 뭐하니?

3월 23일(토)-7월 2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740-4244)

사람, 나무, 동물 등 가상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감성과 상상의 공간으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기획전. 전시와 연계한 감상과 다양한 체험행사들이 함께 펼쳐진다.

이동기 개인전

3월 29일(금)-4월 28일(일)
조현화랑 부산, 갤러리 다운타운
문의 | 조현화랑 부산(747-8853),
갤러리 다운타운(746-8353)



동시대 대중문화와 현대미술의 흐름에 반응하며 한국 미술계의 팝아트를 개척해온 팝아트 작가 이동기 개인전.

제3회 하얀도화지展

4월 1일(월)-4월 7일(일)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2013 꽃그림전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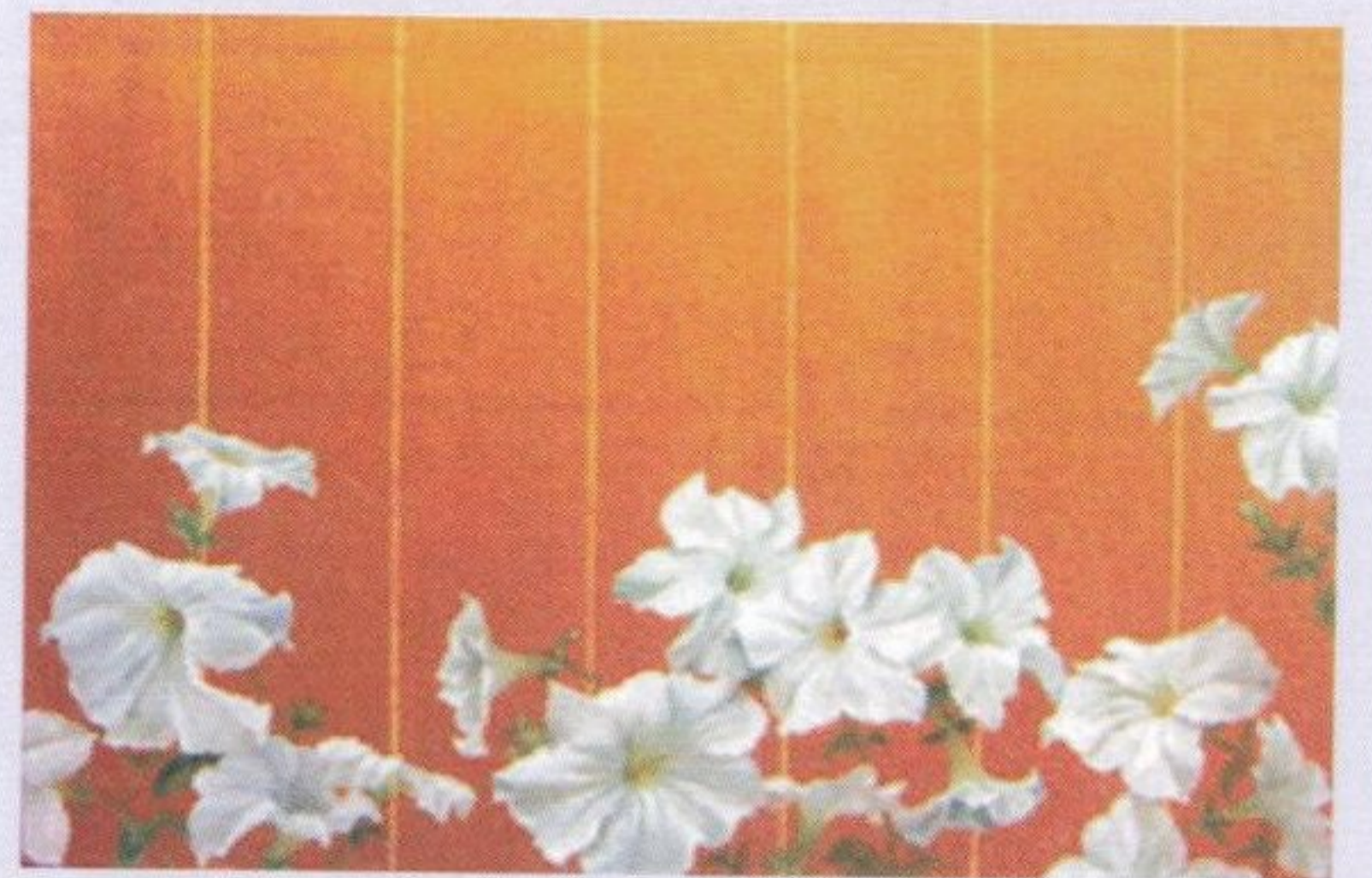
4월 1(월)-4월 10(수)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최광선 작
장미이야기

강현경 '바라보다...'전

4월 2일(화)-4월 27일(토) 갤러리아인
문의 | 갤러리아인(747-2612)



일상속의 소재들을 모티브로, 평범함 속에서 예술의 '고귀함'을 화폭에 담아온 서양화가 강현경 작품전.

이규홍 초대전

4월 11(목)-4월 22(월)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송(頌)울진展

4월 20일(토)-4월 28일(일)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홍경표 작 동해연작

45명의 작가가 울진의아름다운 풍광과 문화를 화폭에 담아낸 '송(頌)울진'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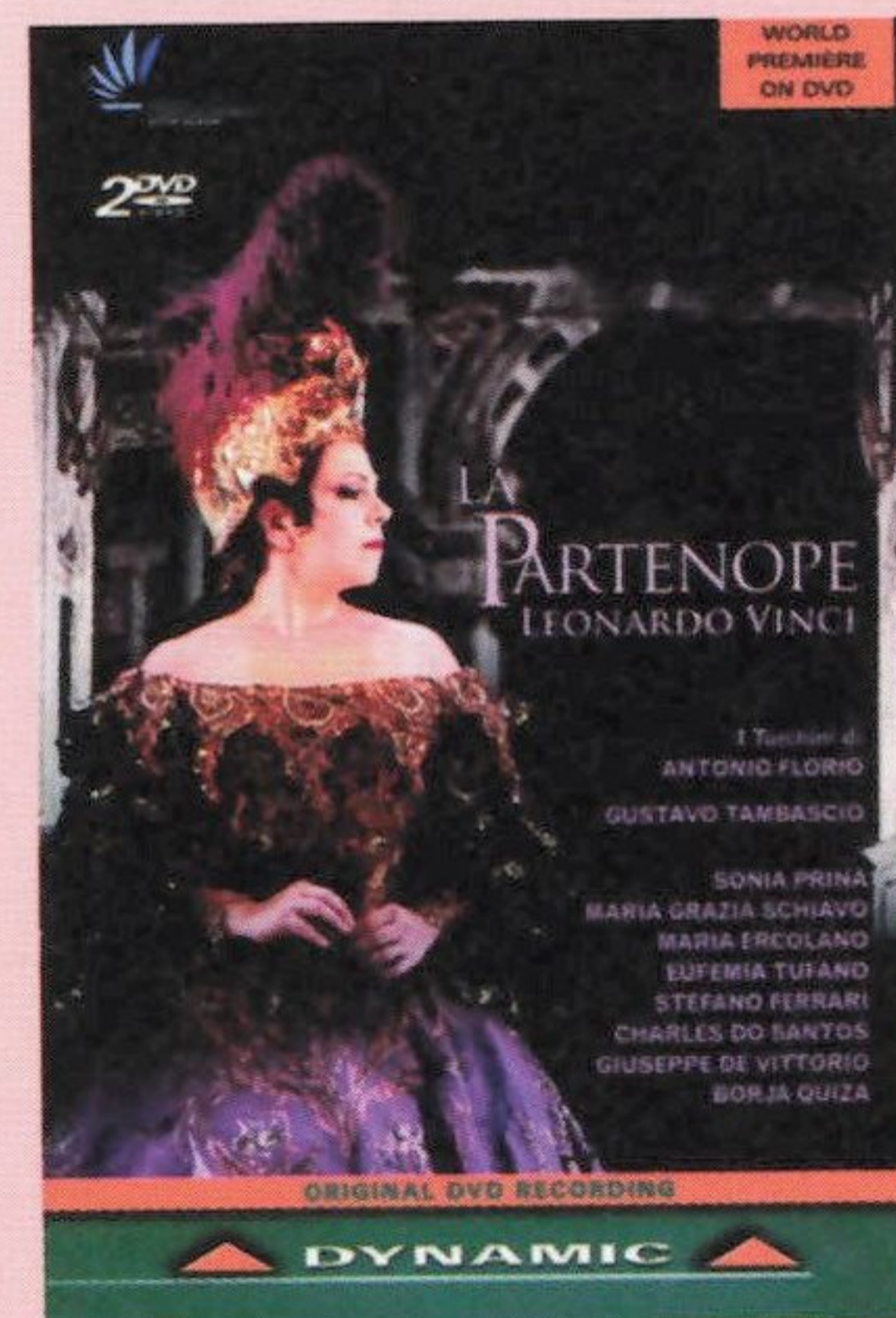


Mozart : Piano Sonatas
Karl Engel(칼 엥겔) (6CD Deluxe Edition Box)

▶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칼 엥겔의 모차르트 소나타 전집
1982년 Teldec에서 녹음된 리즈로, 모차르트에 정평 있는 칼 엥겔의 단정하면서도 정확한 터치와 수수하고 학구적인 피아니즘이 집성된 명연을 들려주고 있다. 5장의 CD로 구성된 모차르트 소나타 전집과 더불어 마치 교과서와도 같은 모범적인 해석을 보여주는 칼 엥겔의 솔로 연주집 등 총 6장의 CD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전집은 디지털 리마스터링의 깨끗한 음질과 더불어 초도 한정판으로만 발매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이라면 반드시 소장할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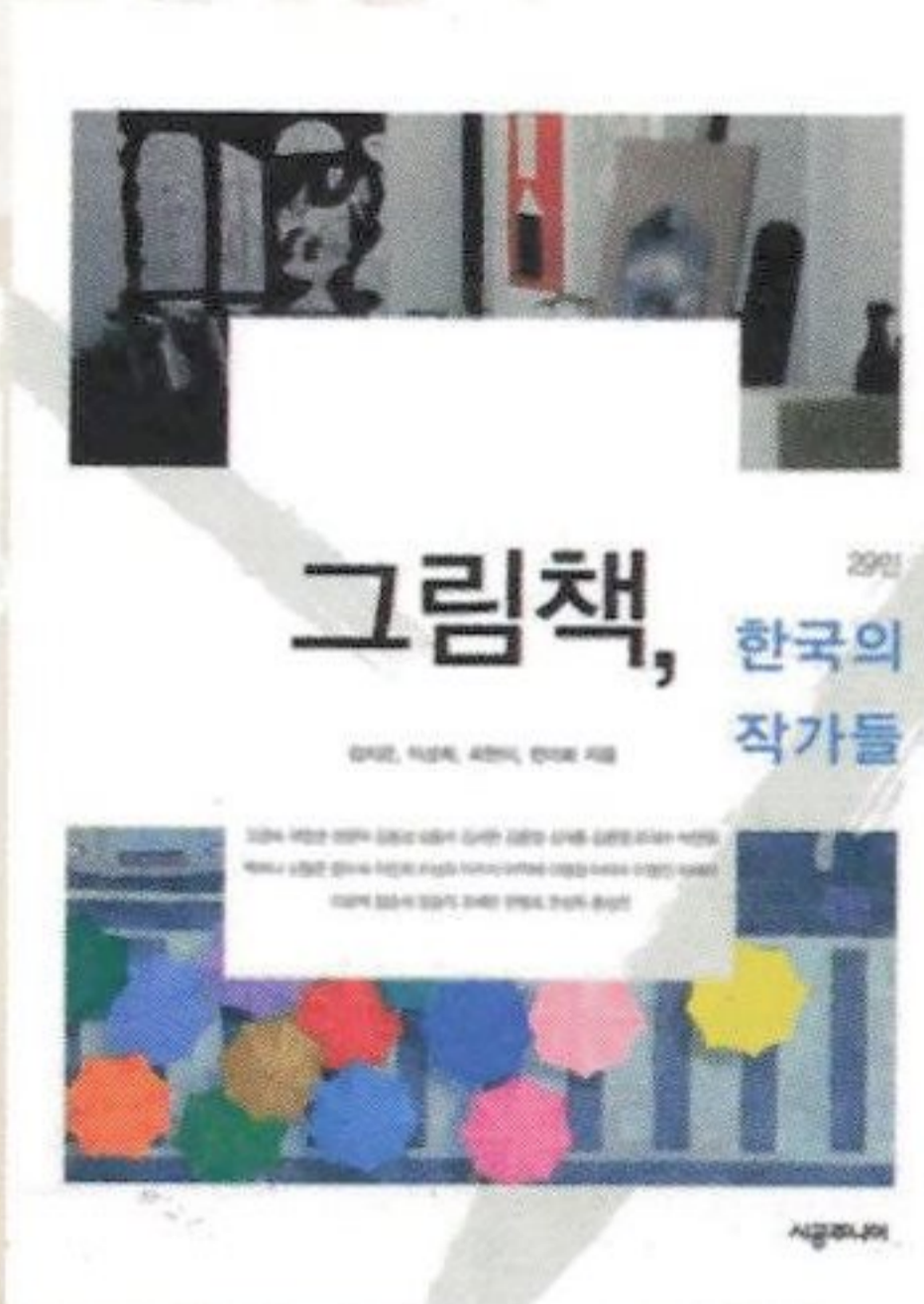
빈치 : 라 파르테노페(La Partenope) [한글자막]
소냐 프리나(파르테노페)/ 마리아 그라치아 스키아보(로스미라)/ 마리아 에르콜라노(아르사체)
에우페미아 투파노(에밀리오) 외/ 이 투르키니(지휘/안토니오 플로리오)

▶ 바로크 오페라의 한 축이 되었던 나폴리 오페라의 영광을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팔방미인과 비슷한 이름을 지닌 작곡가인 레오나르도 빈치는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에 이어서 나폴리 오페라의 절정기를 계승했던 주요 인물로 손꼽힌다. 1725년에 초연되었던 3막의 오페라 <라 파르테노페>는 한 시대를 구가했던 나폴리 오페라의 화려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크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끈다. 나폴리의 기원과 관련된 파르테노페의 이야기는 칼다라, 하세, 사로, 헨델 등등 이 지역과 관련된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서 최소 16편 이상의 오페라로 만들어졌던 인기 소재였다. 본 영상물은 2011년 4월 스페인 무르시아에서 펼쳐졌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이 오페라 최초의 영상물에 해당한다. 연출가 구스타보 탐바스초는 사실적인 무대와 우아하고 고풍스런 의상을 통해서 바로크 오페라의 화려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 메인 작품의 막간마다 막간극을 집어넣는 당시의 전통을 반영하여 벨트라메와 에우릴라라 등 코믹한 등장인물들이 펼쳐는 유쾌한 인테르메초가 각 막의 서두에 삽입되었다



도니체티 : 리타 또는 매 맞는 남편(Rita ou Le mari Battu)
프리스칠레 라플라체(리타)/ 알도 카푸토(페페)/ 알베르토 기날디(가스파르)/ 클라우디오 시모네(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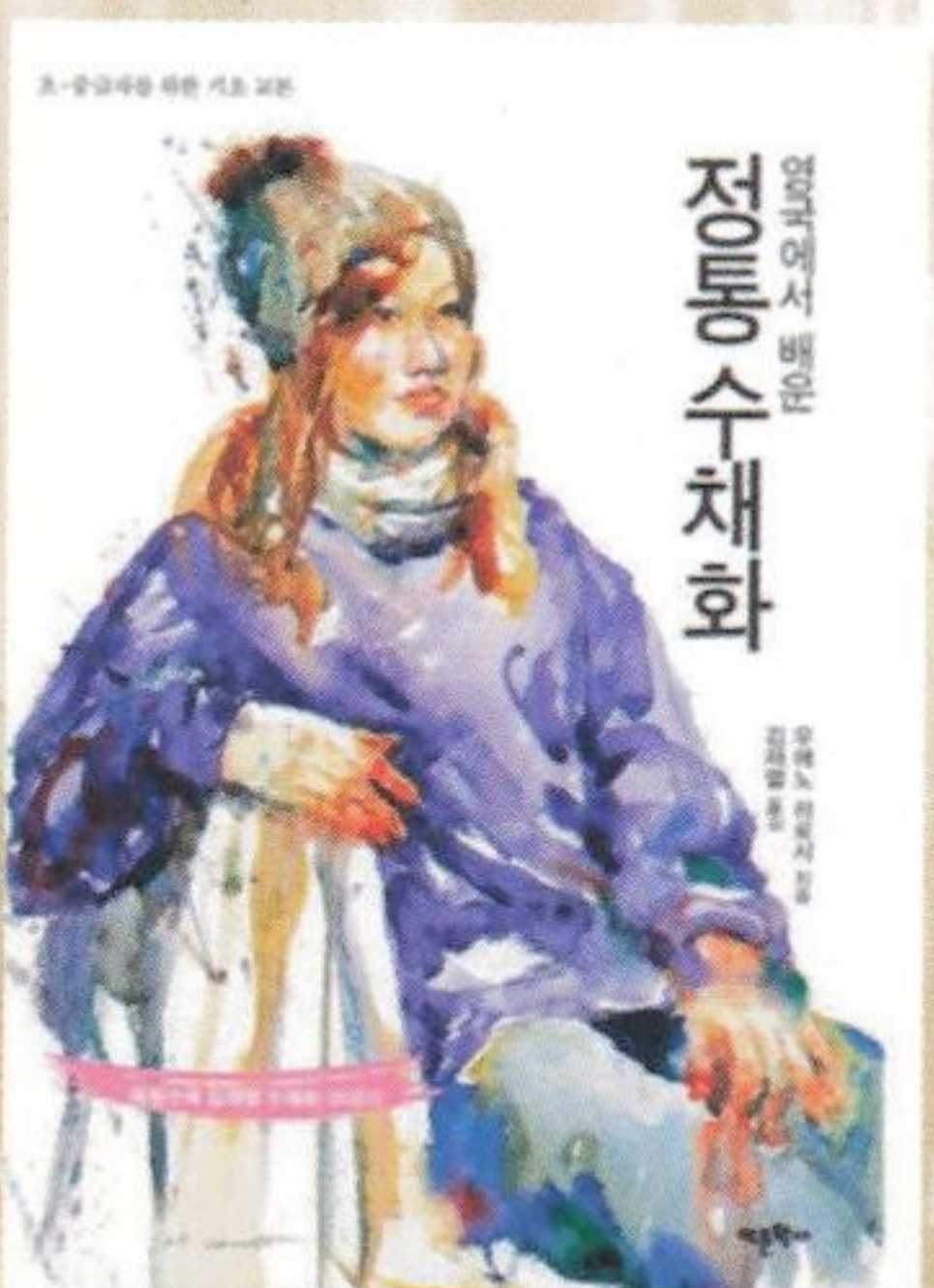
▶ 전 남편과 현재 남편 사이를 오가는 폭력 아내 리타의 아슬아슬한 이야기
도니체티는 선배 로시니, 후배 벨리니와 더불어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를 대표하는 3대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여왕 3부작을 비롯한 정극 역사물에도 능했지만, <사랑의 묘약>이나 <돈 파스칼레>와 같은 희극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자랑했었다. 단막의 희극 소품인 <리타> 역시 코미디에 대한 도니체티의 빼어난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두 남자와 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1841년에 완성되었는데, 작곡가의 생전에는 한 번도 공연되지 못했다가, 도니체티가 죽은 지 12년 뒤인 1860년이 되어서야 <리타, 또는 매 맞는 남편>이라는 지금의 제목으로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되었다. 도니체티가 불과 8일 만에 완성한 이 작품은 여덟 편의 독창 또는 중창이 대사로 연결된 형태의 아담한 소품으로, 현대의 시트콤과 같은 아기자기하고도 생기발랄한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2010년 5월 리에주의 오페라 르와얄 드 왈로니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오리지널 프랑스어 버전으로서는 최초의 레코딩이기도 하다.



그림책, 한국의 작가들

한미화 외 지음 / 시공주니어 / 264p / 2만 3천원

요즘 출간되는 그림책들을 보면서 어머니들은 “왜 내가 어렸을 적에는 이런 그림책이 안 나왔던 것일까”하고 감탄한다. 한 세대 전 출판된 우리나라 그림책과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나온 그림책은 그만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왕자님 공주님 이야기만 나오던 그림책이 언제부터 이렇게 다양해진 것일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들은 언제부터 세계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작가가 된 것일까. 이 책은 그림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소개한다. 2010년 인터넷 포털 서비스 네이버의 전문가 집필 콘텐츠 ‘네이버캐스트’에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 책이다. 매혹적이면서도 낯선 예술을 자기 방식대로 구현해 온 작가들의 시간과 창작의 열정을 네 명의 필자가 나누어 썼다. 사람을 향한 애정, 삶에 대한 열정, 예술혼을 그림책에 투영한 작가 29명의 이야기를 전문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대표 작품은 물론 창작 과정과 창작의 터전을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이미지를 수록하여 작가와 그들의 작품 세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림책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한편, 그림책을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책이다.



영국에서 배운 정통 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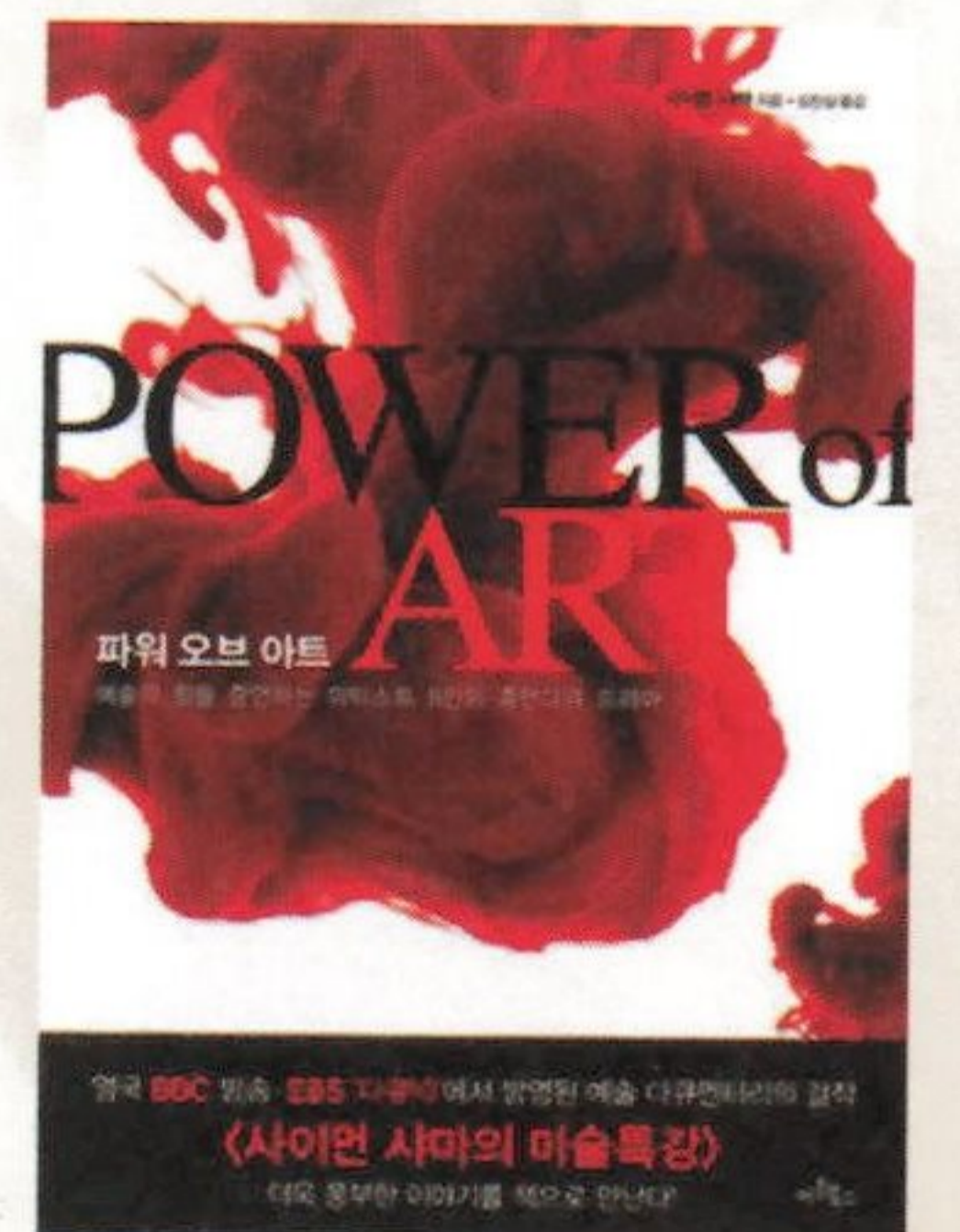
우에노 히로시 지음, 김재열 옮김 / 어문학사 / 224p /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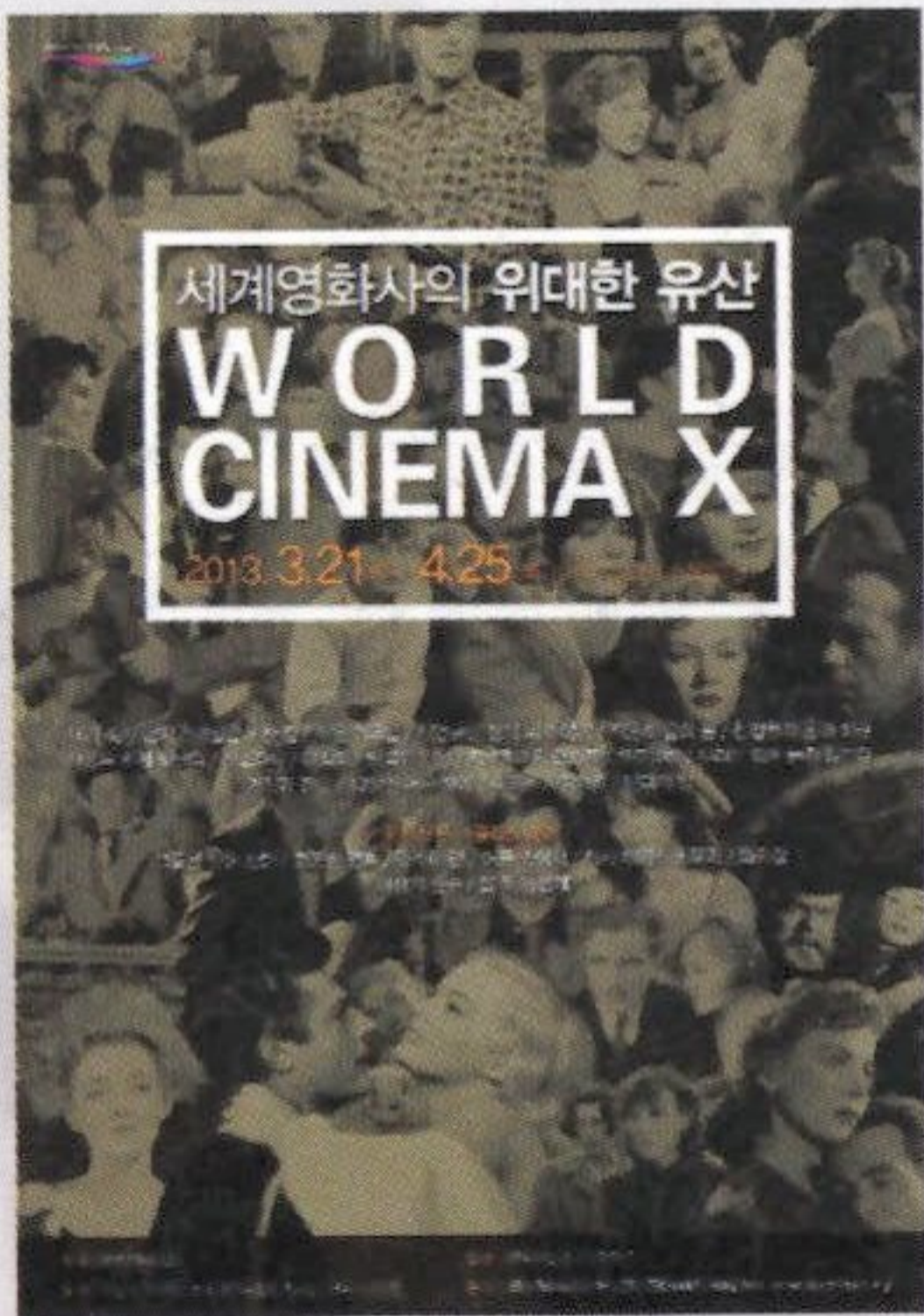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직장인으로 살다가 다니던 회사를 조기 퇴사하고 그림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저자가, 수채화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을 펴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유학을 떠났고, 좋아하는 화가들을 찾아다니며 지도를 받았던 저자는 귀국한 후 작품 전시회를 가지는 한편 수채화교실을 열었다. 이 책은 우에노 히로시의 수채화 교실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채화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고안해 만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수채화를 시작하는 초보자, 또 시작한 지 2~3년이 되었지만 아직 기초가 충분치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책에는 서양의 회화제작 기술이 그대로 담겨졌다. 수채화의 3가지 기본인 ‘드로잉’ ‘톤’ ‘컬러’를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드로잉’에서는 대상의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 재미있는 형태를 연출하는 것을 설명했다. ‘톤’에서는 대상이 가진 명암의 질서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 드라마틱한 명암의 구성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 서술했다. ‘컬러’에서는 왜 색이 보이게 되는가, 혼색의 원리, 색이 탁해진다는 것, 어두운색 밝은 색을 만드는 법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작가의 작품도 실려 있어 지상 전시회를 보는 듯 하다.

파워 오브 아트

사이먼 사마 지음, 김진실 옮김 / 아트북스 / 488p / 2만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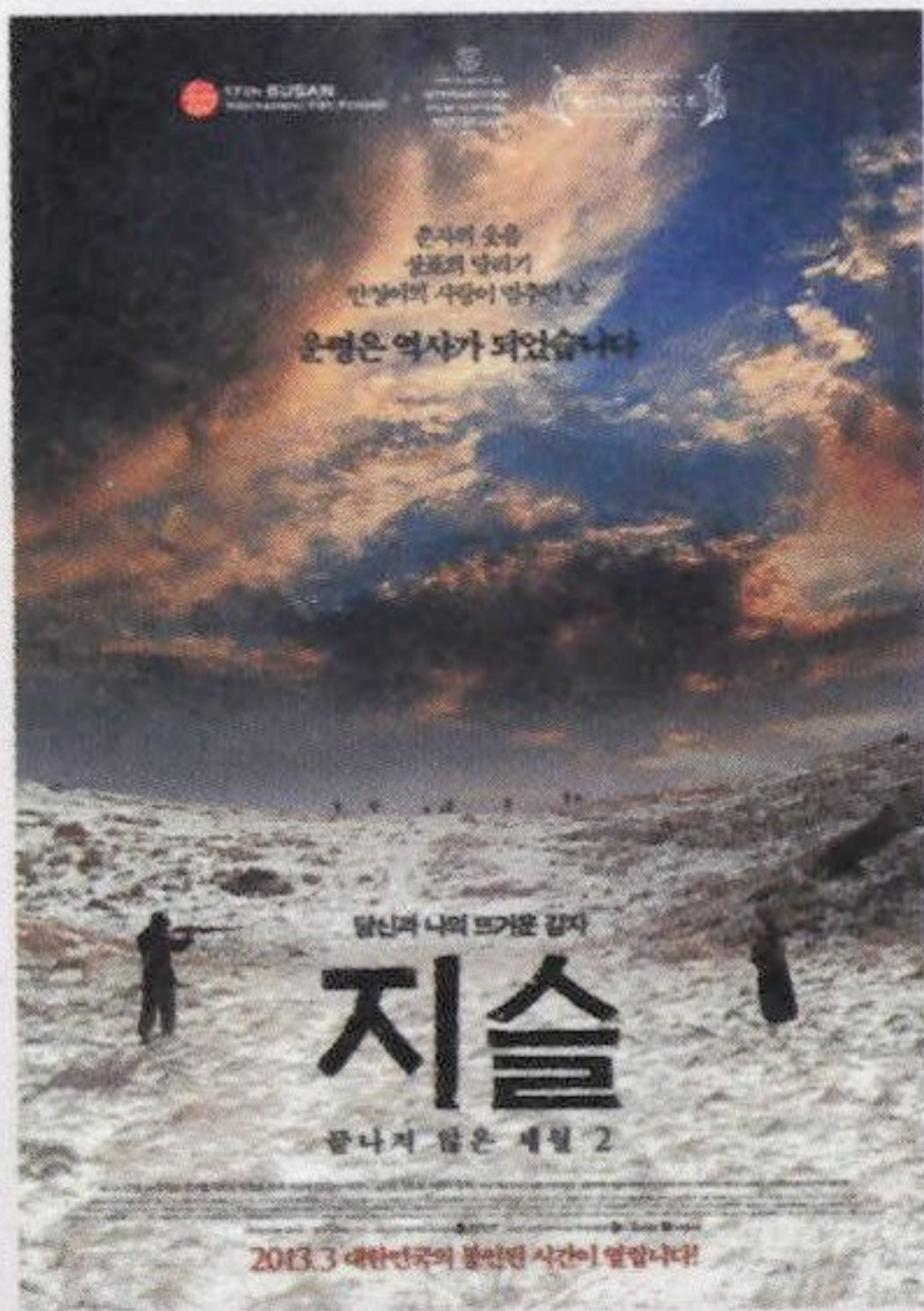
세계적인 미술사학자인 사이먼 사마가 기획한 영국 BBC 방송 프로그램을 토대로 쓴 책으로, 예술의 힘을 증언하는 아티스트 8인의 휴먼다큐 드라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먼 사마의 미술특강>이라는 제목으로 EBS ‘다큐 10’에서 8부작으로 소개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방탕하게 살다 살인을 저질러 쫓기는 신세로 살았지만 종교의 신비와 기적을 손에 잡힐 듯한 현실로 그려낸 카라바조, 차가운 돌조각에 인간의 뜨거운 숨과 욕망을 불어넣어 성인의 종교적 경험을 육체의 희열로 표현한 베르니니, 역사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당대의 몰이해로 그림의 5분의 4를 잘라내버리고 만 렘브란트, 그림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교화하려 했던 다비드, 도덕적 교훈과 시적인 심상이 아름답게 조화된 역사화를 남긴 터너, 평생 사람들과의 소통을 바랐지만 그 소원이 이뤄지기 직전 세상을 떠난 반 고흐, 전쟁에 맞서 예술이 인간의 의분을 담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 피카소, 아무 생각 없이 유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비극의 감정을 일깨워주고자 한 로스코. 이 여덟 명 예술가들의 질곡 많은 삶과 시대의 걸작이 탄생하던 순간들이 숨 가쁘게 펼쳐진다.





세계영화사의 위대한 유산 - 월드시네마 X
3월 21일(목)-4월 25(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세계영화사의 빛나는 걸작들을 소개해온 영화의 전당 '월드시네마' 열 번째 상영회. '월드시네마'는 그동안 영화매니아라면 반드시 봐야 할 교과서적인 걸작은 물론, 위대한 감독들의 대표작과 그들의 알려지지 않은 수작, 낯설지만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할 숨은 걸작 등 영화사의 풍성한 유산을 소개해왔다. 1930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시대적 상황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인간의 내밀한 본성까지 들추어낸 25편의 걸작들을 선보인다. 특유의 유쾌한 코미디로 '루비치 터치'를 만들어낸 에른스트 루비치의 진중한 전쟁드라마 '내가 죽인 남자', '로마의 휴일' '벤허'의 감독 윌리엄 와일러가 인간의 잔인한 탐욕을 그린 실내극 '작은 여우들', 일본의 3대 거장 미조구치 겐지의 역량이 정점에 이른 '산소다유', 페데리코 펠리니의 신랄하고 공격적인 풍자극 '달콤한 인생', 인도의 거장 사트야지트 레이의 또 다른 면모를 만날 수 있는 '뮤직룸',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모던시네마의 개척자 알랭 레네의 '죽도록 사랑하리' 등 장대한 세계영화사에 다채로운 방점을 찍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자니 기타' '이유 없는 반항'을 연출한 장르영화의 대가 니콜라스 레이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보는 '포커스 온 니콜라스 레이'에서는 화면 연출이 돋보이는 데뷔작 '그들은 밤에 산다'를 비롯 특유의 스타일이 살아있는 스릴러 '어둠 속에서' 등 대표작 8편이 상영된다.



'미결의 비극사' 제주 4·3항쟁을 그린 영화 '지슬'

3월 21일(목) 개봉

영화의전당, 국도예술관, 아트씨어터 씨앤씨

'작은 기적'을 일으키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영화 '지슬'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겨진 제주 4·3항쟁을 그린 영화이다. 제주 4·3항쟁은 해방 후인 1948년 4월 3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제주 민중들과 미군정 및 경찰, 반공단체가 충돌하면서 일어난 유혈사태로, 지금까지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결의 비극사'로 남아있다. 영화는 1948년 제주섬사람들이 '해안선 5Km 밖 모든 사람들을 폭도로 간주한다'는 미군정 소개령을 듣고 피난길에 오르며 겪었던 그 혹독한 겨울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차가웠던 시절 속에서 오멸 감독은 그들의 일상을 시종일관 따뜻한 위로의 시선으로 찬찬히 따라간다. 영화 '지슬'은 올해 한국영화 역사상 최초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후 보름 만에 프랑스 브졸국제영화제에서도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수레바퀴상을 수상해 큰 화제가 되었다. 또, 전국 개봉을 앞두고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제주에서 먼저 상영을 시작하면서 2주만에 제주 2개 상영관에서 관객 1만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부산독립영화협회가 배급을 맡아 영화의전당(해운대구)과 국도예술관(남구), 아트씨어터 씨앤씨(중구) 등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상영을 시작한다. 영화명인 '지슬'은 제주 사투리로 '감자'라는 뜻.



제2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원숭이 놀래키려고 닭죽이기'

제3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5월 2일(목)-6일(일) 영화의전당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그동안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나라의 단편영화를 발굴해 소개하는 한편 제작까지 지원하면서 단편영화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왔다. 1980년 12월 국내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전국 규모의 영화제로 출발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1986년까지 격년제로 열렸으나 1987년부터 연례행사로 바뀌면서 그동안 한국단편영화제, 대한민국단편영화제, 한국창작단편영화제, 부산단편영화제,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등의 이름을 거쳐 2010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로 개편됐다. 올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 상영될 작품을 응모한 결과 출품된 작품수만도 국내 967편, 해외 1,258편으로 모두 2,225편.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최초로 2,000편대를 넘겼을 뿐 아니라 지난 29회 영화제 때보다 무려 30% 가까이 늘어난, 역대 최다 출품수를 기록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특히 국내 출품작보다 해외 출품작이 더 많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국제단편영화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올해부터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 조직개편과 더불어 행사규모면에서도 확대, 운영된다. 5월 2일부터 5일간 영화의전당과 남포동 롯데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경쟁작 60편을 포함해 총 150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된다.

제13기 인문고전대학

동서양의 인문학을 폭넓게 조망해 호평 받고 있는 '인문고전대학' 13기 강좌가 4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주 과정으로 펼쳐진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강의를 맡은 이번 강좌에서는 분쟁과 폭력이 넘치는 현재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매주 화요일에는 이부현 위원의 '동양정신으로 서양정신 읽기-금강경과 육식삼십송을 중심으로', 수요일은 김재경 위원의 '셰익스피어로 읽는 폭력, 희생 그리고 정의', 목요일에는 김창준 위원의 '서양 미학과 예술의 역사-원시 예술에서 중세 미학까지' 등 세가지 주제로 펼쳐진다. 이 가운데 '헤겔의 종교철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서양철학 전공자인 이부현 위원이 자신의 전공이 아닌 동양철학으로 서양철학 보기를 시도해 눈길을 끈다. 김창준 위원은 미학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김재경 위원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 '질서의 회복, 완벽한 정의 실현은 왜 완성될 수 없는가'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장소는 부산가톨릭센터이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들은 3강좌 모두 선택할 수 있고 관심있는 강좌만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다. 수강료는 1강좌 5만원, 2강좌 8만원, 3강좌 10만원. 4월 9일까지(일요일 제외)까지 전화로 접수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 문의/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510-0816, cafe.daum.net/literphi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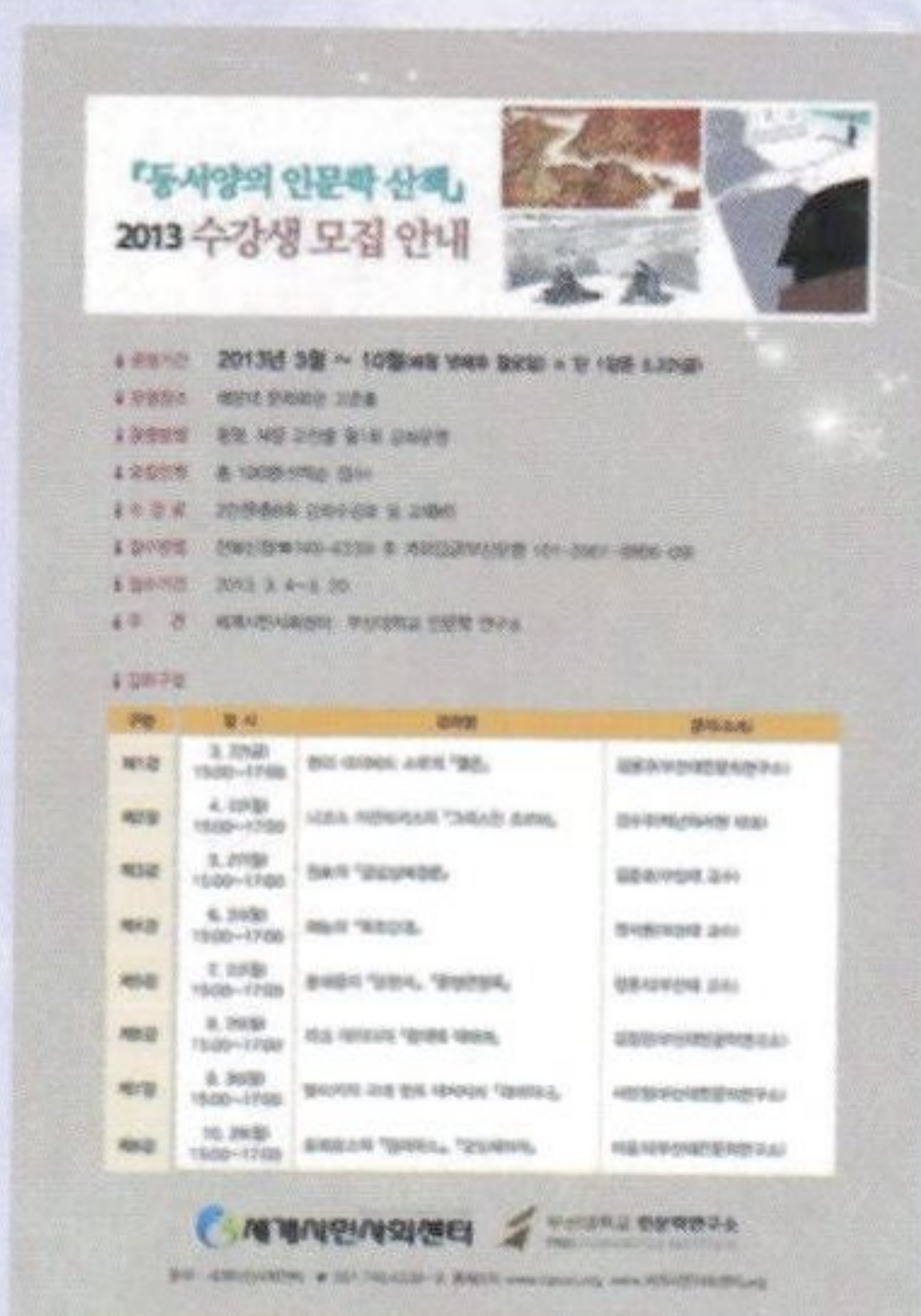
백년어서원 바카데미아 月講 - 중국고전 강의 2 순자, 통섭의 길을 가다 1



'바깥'과 '아카데미'를 합친 '바카데미아'는 대학 바깥에서의 인문학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지난 2009년 김수우 시인이 문을 연 백년어서원은 개원 이래 현재까지 500회가 넘는 인문학강좌를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의 자기 성찰과 공부의 자발성을 강화하기 위해 듣기만 하는 강좌 중심에서 독서, 사유, 글쓰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독서운동으로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백년어서원이 지난해부터 마련해오고 있는 중국고전 강의 두 번째 프로그램 '순자, 통섭의 길을 가다 1'가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순자'. 동아시아 각국의 문학과 사상, 종교 등을 비교 연구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고전을 번역하고 있는 고전학자 정천구 씨가 강의를 맡았다. 순자는 백가(百家)들이 서로 다투던 전국시대 말기에 다양한 학설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섭을 한 사상가로, 유가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한 사상가이다. 한 대(漢代) 이후 중국의 제국질서는 바로 이 순자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4월 1일 '순자, 유가 사상의 집대성과 통섭'을 시작으로 6월 3일 '왕제(王制), 정치제도의 기본은 무엇인가' 등 총 10강으로 진행된다. 수강료 총10강 25만원.

• 문의/백년어서원(465-1915, cafe.daum.net/100fish)

동서양의 인문학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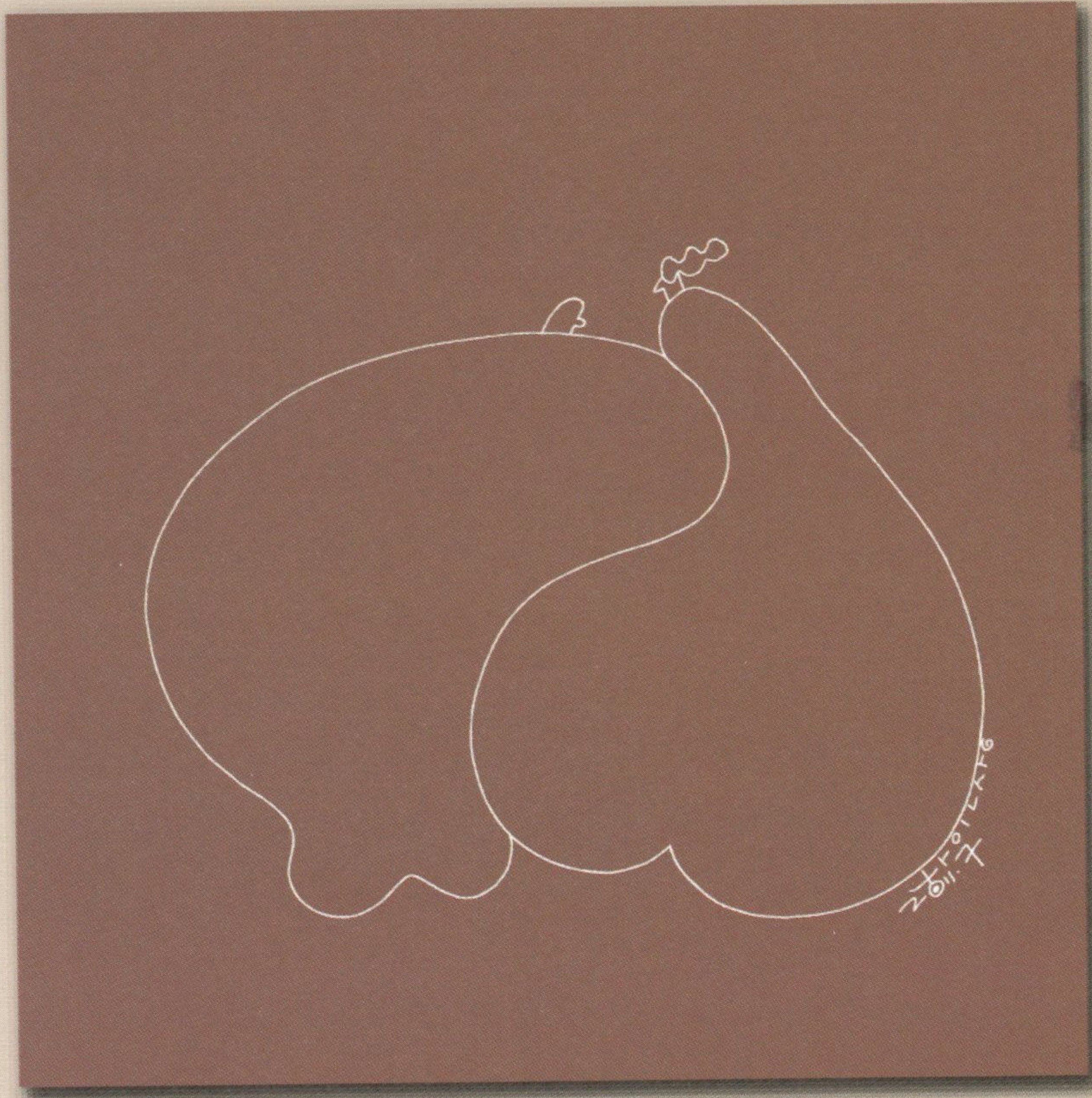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마련하는 인문학 강좌 '동서양의 인문학 산책'이 3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에서 열린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함양하는 고전 강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동서양 인문고전을 통해 위대한 성인의 삶을 되새겨본다. 3월 22일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소장 김용규 교수의 '월든(헨리 데이비드 소로)' 강의에 이어 4월 22일에는 백년어서원 김수우 대표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5월 27일에는 부산대학교 김준호 교수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6월 24일에는 부산대학교 권서용 교수가 혜능의 '육조단경'을 강의한다. 또, 7월 22일에는 부산대학교 정훈식 교수가 홍대용의 '담헌서, 을병연행록', 8월 26일에는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김정현 교수가 자크 데리다의 '환대에 대하여', 9월 30일에는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서민정 교수가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에 대해 강의하며 10월 28일 부산대학교 이호석 교수의 '일리아스 오딧세이아'를 마지막으로 동서양 고전의 향연을 마무리한다. 수강료 2만원이며 선착순으로 100명 모집.

• 문의/세계시민사회센터(749-4339, www.cgcsc.org)

부인상의
생각그림

Metaphortoon

男과 女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넘치는 사랑은 나눠주는 게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가 아니던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메타포투니스트 · 시인



부산시립교향악단 2013 교향악축제 참가 4월 12일 오후 8: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4월 1일부터 17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한화와 함께하는 2013 교향악축제-차세대 예비거장 총집합'에 참가, 4월 12일 클래식애호가들을 만난다.

1989년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첫선을 보인 교향악 축제는 서울과 지역간의 벽을 허무는 국내 오케스트라들의 큰 잔치. 25주년을 맞는 올해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전국의 16개 악단이 참여한다.

4월 9일 리 신차오 지휘, 슈에 샤오쉰 협연으로 정기연주회를 갖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교향악축제-차세대 예비거장'에 선정된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협연으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브루크너 '교향곡 제9번'을 연주한다. 김다솔을 비롯해 권혁주·김수연·이지혜·김윤희·클라라 주미 강, 첼리스트 다니엘 리·이상은, 플루티스트 최나경 등 이번 교향악 축제에서 협연하는 '차세대 예비 거장' 들은 세계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한 연주자들로 평균연령이 27세이다. 협연자 김다솔은 2010년 퀸 엘리자베스, 2011년 뮌헨 ARD, 2012년 스위스 게자 안다 국제 콩쿠르 등에 입상하고 2013년 금호아트홀 상주 음악가 1호로 선정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피아노 김다솔

4월 찾아가는 예술단

본격적인 공연시즌을 맞아 부산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4월에는 10일 내 사랑 부산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에 출연하는 부산시립무용단 공연을 시작으로 합창단의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교향악단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침례병원 환우를 위한 희망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4월 10일(수)	12:30 시청 1층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출연/무용단)
4월 17일(수)	12:30 침례병원 1층 로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침례병원 환우를 위한 희망음악회'(출연/교향악단)
4월 19일(금)	10:00 중앙공원	내 사랑 부산 공연	'제53회 4·19혁명 기념식'(출연/합창단)
4월 24일(수)	12:30 시청 1층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출연/합창단)
4월 26일(금)	19:00 광안리해수욕장	내 사랑 부산 공연	'광안리 어방축제 개막 축하공연'(출연/무용단)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부산문화회관, (주)에스비오와 협약,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의료서비스 제공



부산문화회관과 (주)에스비오가 협약을 체결, 강남 SKY안과에 이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주)에스비오의 협력 병원인 해운대뉴탑치과 이용 시 보철, 교정, 덴처, 임플란트, 스케링 등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_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시카고 UIC치과 해운대점(744-2806)

지난호정답

황태자	루돌프	안숙선
권하	무운	운
적도	페르시아	사
벽장	방카메오	
가라사대	펠보	
익사	하라에	칭
원십계	주	기
톨스토이	울지마	톤즈
킨야	릉간	칸
경칩	역도	산문

3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김명준(연제구 연산동)
초대권 김현숙(남구 대연2동)
 김희중(북구 만덕3동)
 송두성(해운대구 좌2동)
 이지훈(남구 우암1동)

조은극장 김소연(서구 서대신동1가)
초대권 노은주(동구 범일동)
 박정미(사하구 신평동)
 박희주(사상구 감전동)
 최동석(중구 중앙동)

큰집 김교연(사하구 당감2동)
식사권 서주리(연제구 거제2동)
 이복희(사상구 주례3동)
 이옥출(사하구 하단동)
 정경선(사하구 다대2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가로열쇠]

1. 지난 2011년 10월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작품으로 첫 선을 보였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칸타타로, 임진왜란 당시 부산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동래 읍성민들의 구국의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승화시킨 작품.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다시한번 부산 관객과 만난다.
2.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의 장편소설 '백경'의 원제(原題)로, 작품에 등장하는 거대하고 횡포한 흰고래의 이름.
3. 일본의 사회파 추리소설 작가인 미야베 미유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변영주 감독, 이선균, 김민희 주연의 영화.
4. 파도를 이용해 타원형의 널빤지를 타고 파도 속을 교묘히 빠져 나가며 즐기는 놀이. 파도타기.
5. 아프리카 중앙부에 자리한 나라로, 1994년 이후 투치족과 후투족의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등 인종갈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6. 인형의 마디마디를 실로 묶어 사람이 위에서 조정하여 연출하는 인형극. 또는 그 인형.
7.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를 연출한 박찬욱 감독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
8. 러시아 태생의 화가이자 판화가로, 인간의 원초적 향수와 동경, 꿈과 그리움, 사랑과 낭만, 환희와 슬픔 등을 눈부신 색채로 펼쳐보였다.

[세로열쇠]

1. 1925년 일본 서커스단에서 활동하던 동춘 박동수 선생이 30명의 조선 사람을 모아 창단한 후 지금까지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커스단.
2. 1995년 12월에 결성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지원 클럽.
3. 빈고전파의 양식을 확립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5살 때 작곡을 시작한 음악의 천재로, 36세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생애였으나, 기악, 성악 등 전 장르에 걸쳐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4. 중국 명나라의 오승은이 지은 서유기(西遊記)의 주인공. 돌에서 태어난 원숭이로, 세존(世尊)의 명으로 삼장법사를 따라 천축(天竺)에 불법을 구하러 간다.
5. 1859년 진화론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종(種)의 기원(起源)'으로 생물진화론을 주창한 영국의 생물학자.
6. 이탈리아의 작곡가 푸치니의 3막 오페라. 아리아 '미묘한 조화' '별은 빛나건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이 특히 유명하다.
7. 아서 밀러의 대표작 '세일즈맨의 죽음'을 동시대의 감성에 맞게 재창작한 연극으로, 대한민국 대표 아버지 이순재와 전무송이 이 시대 아버지의 고뇌를 연기한다. 부산에서는 4월 19일과 20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3년 4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14. 감탄사인 '야'의 옛말. ○○○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15. 그 전해에 발표된 미국영화 및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영화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 오스카상.
17.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거문고의 명인 백아가 자기의 소리를 잘 이해해 준 벗 종자기가 죽자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여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19. 해운대구 수영강변에 조성된 정보통신, 영상, 오락, 국제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 산업단지. 라틴어로 100이란 숫자와 도시를 결합시켜 '100% 완벽한 최첨단 미래도시를 지향한다'는 뜻의 이름으로, 공모를 통해 결정되었다.
22. 영국의 세계적인 4인조 록그룹인 비틀스의 중심멤버. 평화운동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1980년 12월 8일 뉴욕에서 한 광팬의 총격으로 살해됐다.
24.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간 유지된다.
26. 지름 22cm의 비금속성의 공을 굴려 약 20미터 전방에 정삼각형으로 세워 둔, 열 개의 판을 많이 쓰러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27. 민속 음악에 쓰는 타악기의 하나. 낫쇠로 대야같이 만들어, 울의 한쪽에 두 개의 구멍을 내어 끈을 꿰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데 음색이 부드럽고 장중하다.

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13. 일본의 대표적인 현악기. 고양이 가죽이나 개 가죽을 붙인 공명 상자에 기다란 손가락판을 달고 비단실을 끈 세 줄의 현을 그 위에 친 것으로, 무릎 위에 비스듬히 엮고 발목(撥木)으로 줄을 튕겨 연주한다.
15.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무인족(武人族). 활쏘기에 지장이 없도록 오른쪽 가슴을 도려내었다 하여 부쳐진 이름이라 한다.
16. 고기가 한창 잡힐 때에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
18. 악보에서 음의 장단과 고저를 나타내는 기호.
20. 두 손을 땅에 짚고 두 다리를 공중으로 쳐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넘는 재주. 공중제비.
21. 구체적인 홍보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구매의욕을 유발하는 광고기법. ○○는 본래 '남자를 애타게 하는 여자'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23. 세상을 등진 고독한 킬러와 누구에게도 사랑받아 본 적 없는 12세 소녀의 가슴 아픈 사랑과 우정을 그린 영화. 1995년 개봉 당시 전국 관객 150만 명을 동원했으며 최근 새로운 편집본으로 재개봉됐다.
25. 불교 의식에서 추는 춤. 크게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이 있다.


April 2013 Program Guide

4 2013
April

Grand theater Medium theater Small theater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P.Y.O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 B.M.J.C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p>🎻 The 145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Spring Concert' 19:30 10,000/7,000/5,000/B.P.O(607-3141-2)</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The Country Story' 19:3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Yang Seok Bong's Bakery' 19:3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Peacefully Unification Concert 19:30 Invitation/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866-6363)</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The Country Story' 19:3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Yang Seok Bong's Bakery' 19:3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The 8th Regular Concert of Neo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Busan YMCA(440-3372)</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The Dog Meat in front of garden' 19:3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The Dog Meat in front of garden' 19:3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Busan Citizens Theatre Festival 14:00, 15:00, 16:00 Free/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The Frame' 17:0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The Frame' 19:3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Busan Citizens Theatre Festival 14:00, 15:00, 16:00, 17:00 Free/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The 489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Bruckner Symphony IX' 19:30 10,000/7,000/5,000/B.P.O(607-3111-3)</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The Frame' 17:0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The Frame' 19:3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Busan Citizens Theatre Festival 14:00, 15:00, 16:00, 17:00 Free/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The 43t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Symphony 19:30 20,000/10,000/Incorean Symphony Orchestra(626-8081)</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Bamonsa Theater Company 17:0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Mama Festival' 17:0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7	8	9	10	11	12	13	
<p>🎻 The 35th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Rachmaninov Symphony Series 1' 19:30 30,000/20,000/10,000/BusanSymphonyOrchestra(621-4577)</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Bamonsa Theater Company 17:0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Mama Festival' 17:0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Amorse's Regular Concert 19:30 10,000/Amorse's(999-5089, 010-3376-2246)</p> <p>🎻 The 13rd Regular Concert of Korea Piano Society 19:30 Invitation/Kim Jimin(999-5257, 010-5440-0541)</p> <p>🎻 The Sign Language Musical 'Josep, Dream man' 19:30 10,000/Kim Chungyeon(642-6222, 010-4026-9323)</p> <p>🎻 The 1st regular concert of Busan Geomungo Solist Ensemble 19:30 10,000/Busan Geomungo Solist Ensemble(010-8987-4884)</p>	<p>🎻 The 12nd Regular Concert of Amabile Saxophone Orchestra 19:30 Free/Amabile Saxophone Orchestra(010-3580-8661)</p> <p>🎻 Kim Yeonggeum's Song Cycle Recital 19:30 Invitation/Kim Yeonggeum(010-3567-3723)</p> <p>🎻 The Concert, Under the sky, Vol.33 20:00 30,000/B.C.C(607-6058)</p> <p>🎻 Saturday Regular Stage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p>🎻 Lee Seungmi Piano Recital 19:00 Invitation/Lee Seungmi (010-7703-2985)</p>				
14	15	16	17	18	19	20	
<p>🎻 The 35th Regular Concert of Pianist Festival 19:30 10,000/Sim Jeongyeon(010-2009-1090)</p> <p>🎻 Jo Yunhwan Class Concert 19:30 Free/Jo Yunhwan(010-8455-2383)</p>	<p>🎻 The 35th Regular Concert of Pianist Festival 19:30 10,000/Sim Jeongyeon(010-2009-1090)</p> <p>🎻 The 35th Regular Concert of Pianist Festival 19:30 10,000/Sim Jeongyeon(010-2009-1090)</p> <p>🎻 Joint Recital 19:00 Free/Kim Kyungryung(010-4528-3871)</p>	<p>🎻 Musical 'Aladin & Magiclamp' 10:15, 11:20 5,000/Kidssam(010-6358-5449)</p>	<p>🎻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Korea Traditional version Cantata 'The Red Flower at the Castle' 19:30 20,000/15,000/10,000/B.M.T.O(607-3121-4)</p> <p>🎻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3 The Well-being Concert-Opera Highlight 2 'Chunhyang story 11:00 10,000/B.P.O(607-3111-3)</p> <p>🎻 Song Ji Eun's Piano Recital 19:30 Invitation/Song Ji Eun(017-0551-6719)</p> <p>🎻 The 5th Regular Concert of Raonjena Symphony Orchestra 18:00 10,000/Lee Sanghun(010-2066-1331)</p> <p>🎻 Saturday Regular Stage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21	22	23	24	25	26	27	
<p>🎻 The 3rd Regular Concert of Bariton Cho Hyeonsu Recital 17:00 10,000/Cho Hyeonsu(010-7540-1553)</p>	<p>🎻 The 24th Regular Concert of Kyungsung String Chamber Orchestra 19:30 Free/Kyungsung String Chamber Orchestra (663-4918, 010-8533-4917)</p> <p>🎻 Episode 1 Concert 19:00 Free/Lee Kwangyeom(010-9326-0078)</p>						
28	29	30					
							

2013년 4월 공연일정

4 2013 April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8	29	30			전사실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4월 2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크로노스 앙상블



▶ 프로그램

비발디/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작품 3-8

바흐/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작품 1060

멘델스존/무언가(無言歌) 제30번 가장조 '봄 노래' 작품 62-6

드보르작/유모레스크 작품 101-7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5번

애니메이션 주제곡 메들리

• 출연 Violin. 이장호 조양희 김은아 신민정 박언정 우소라 이승재

Viola. 박소영 김상철

Cello. 김판수 박영주

Double bass. 박희철

Oboe. 류재환

Piano. 이성희(객원)

4월 27일 글로리콰이어 편(fun)편한 음악회



▶ 프로그램

합창/우리는(우효원 편곡), 아리랑(백현주 편곡)

테너 솔로/Amazing Grace,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영화 라이언 킹 ost)

중창/you raise me up, o sole mio

테너 솔로/그대 하나만(the one), 안되겠더라(드라마 각시탈 ost)

소프라노 솔로/월랑대표아적심(등려군), over the rainbow(영화 오즈의 마법사 ost)

합창2/Through the eye of love(영화 Ice castle ost), Swing low swing chariot, Tequila samba Guy turner

· 대표/김민수(금석 대표이사) · 상임지휘/이정철

· 트레이너/이재원 · 반주/박성미, 최여진

· 소프라노/김미경, 구민강, 권민정, 류미숙, 박미영, 박순덕, 박진영, 석정현, 소현명, 이유진, 진미진, 최윤이, 한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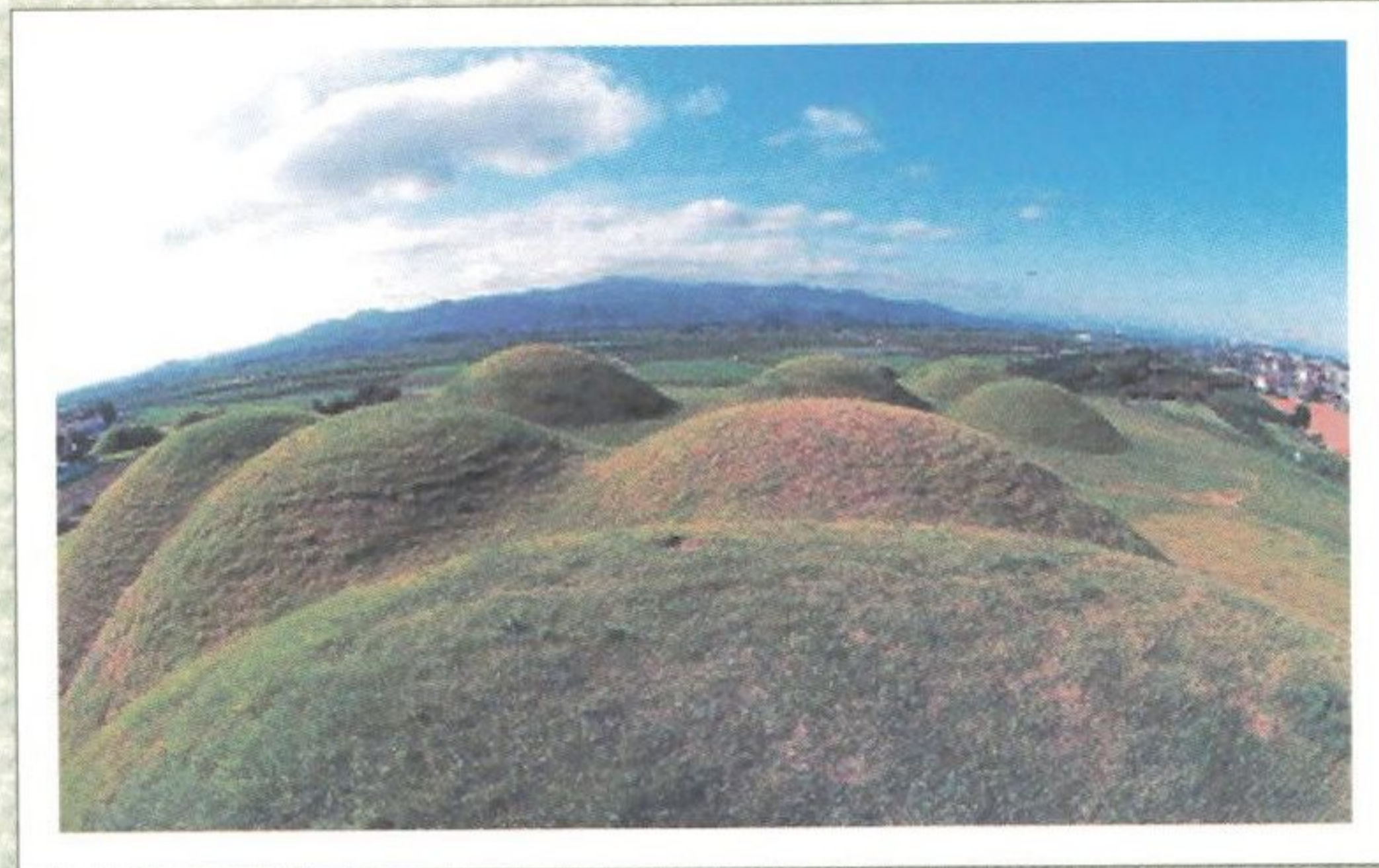
· 알토/강혜정, 김미경, 김미연, 남혜선, 박희나, 배정혜, 백순, 석라현, 장민지

· 테너/송인무, 박영식, 이기석, 이재원, 김민수, sisco loga

· 베이스/김민수, 윤홍식, 문상철, 고승민, 김동현, 최운재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삼성현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경산 2013년 5월 10일(금)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삼성현(원호·설총·일연)의 훌륭한 정신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산으로 떠나는 봄 여행.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400년간 존속한 압독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임당·조영동 고분군을 시작으로 영남대학교 박물관, 계정숲 등에서 경산의 풍광을 즐겨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경산도착, 임당·조영동 고분군, 영남대학교 박물관 답사
- 12:30 중식
- 13:30 자인향교, 계정숲, 한장군묘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동해바다의 생명을 품고 있는 포항 2013년 6월 14일(금)

동해바다의 생명, 열정을 품고 있는 항구도시 포항으로 떠나는 초여름 여행. 포스코와 포스코역사관, 동해안 최대의 상설시장인 죽도어시장, 해공선사의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있는 고찰 오어를 둘러보며 포항의 초여름을 즐겨본다.

- 09:36 부전역 출발
- 12:13 포항 도착, 포스코로 이동
- 12:30 중식
- 13:00 포스코역사관, 포스코 공장견학
- 15:00 오어사로 이동, 오어사 탐방
- 16:30 죽도시장 방문 후 신경주역으로 이동
- 19:00 부산으로 출발
- 19:30 부산역 도착



2013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함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busan.go.kr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April Vol.256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56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56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 Yesterday

조덕배 소극장 콘서트

2013. 5. 24. Fri. PM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문의 :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 공연과 051.607.6057



센텀점



Since 1985

20%
Discount



10%
Discount

MOZ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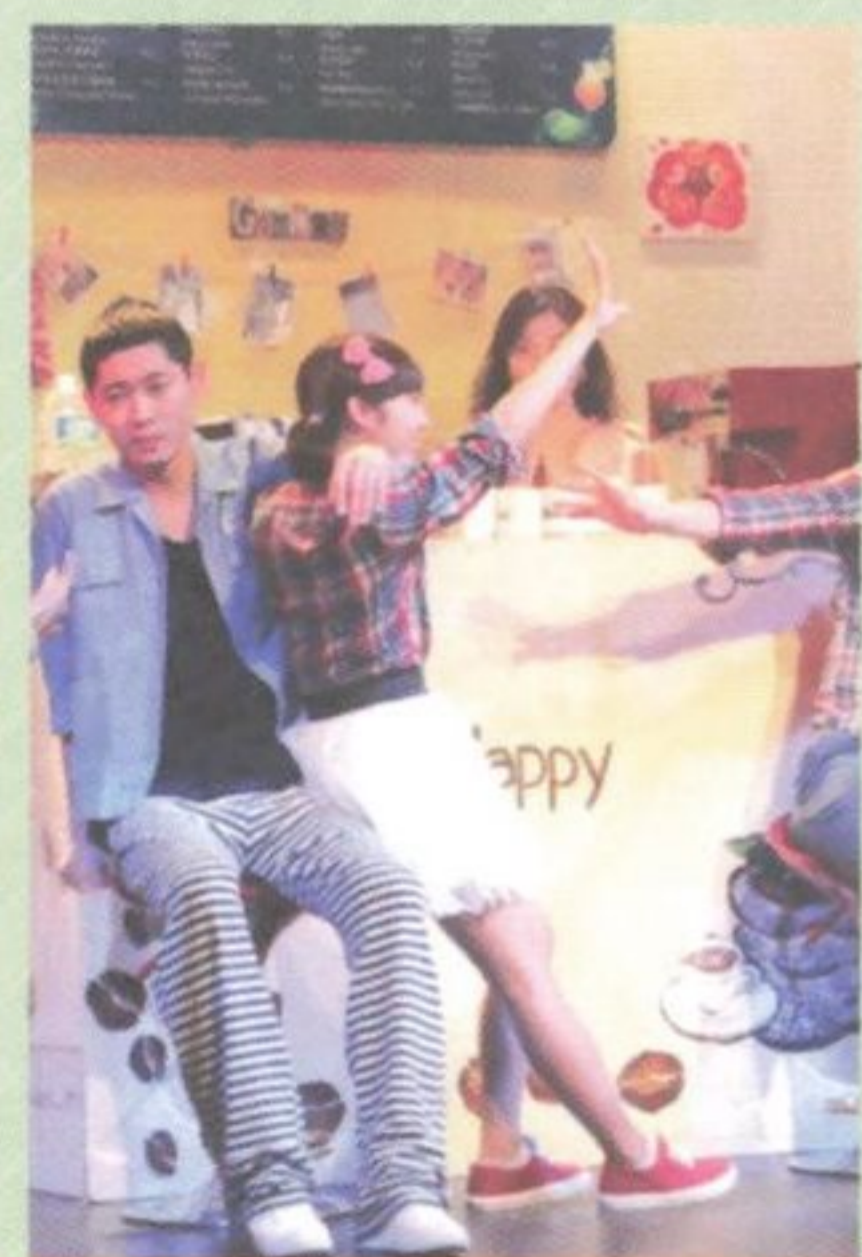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20%
Discount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30%
Discount

연극
도둑과 연인

토다이 센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터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2013.3.29(금)-5.6(월)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연극 '도둑과 연인'

2013.4.20(토)-5.19(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디코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April Vol.256

culture.busan.go.kr

2013년 5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주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광고 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NO

|가요합창의 밤|
Concert

정열 Red 슬픔 Blue
꿈 Green



지휘_ 오세종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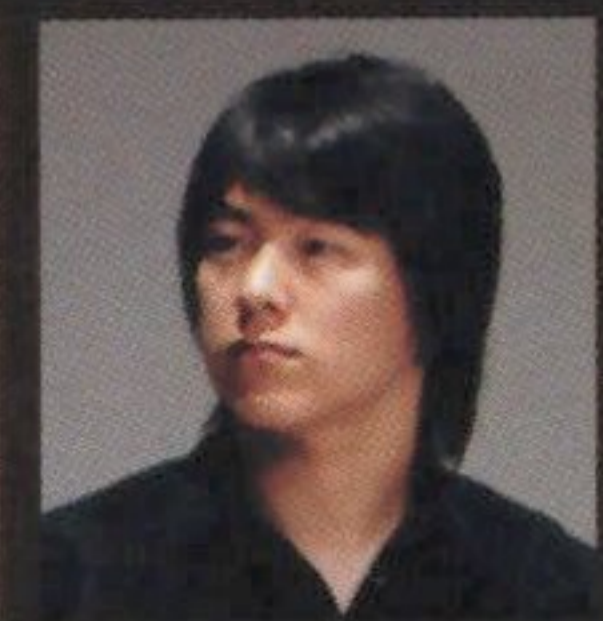
피아노_ 이승윤
이경미

특별출연

가수 윤형주

사회 이미연(전SBS리포터)

협연



바이올린 조미혜

드럼 김진훈

기타 김정태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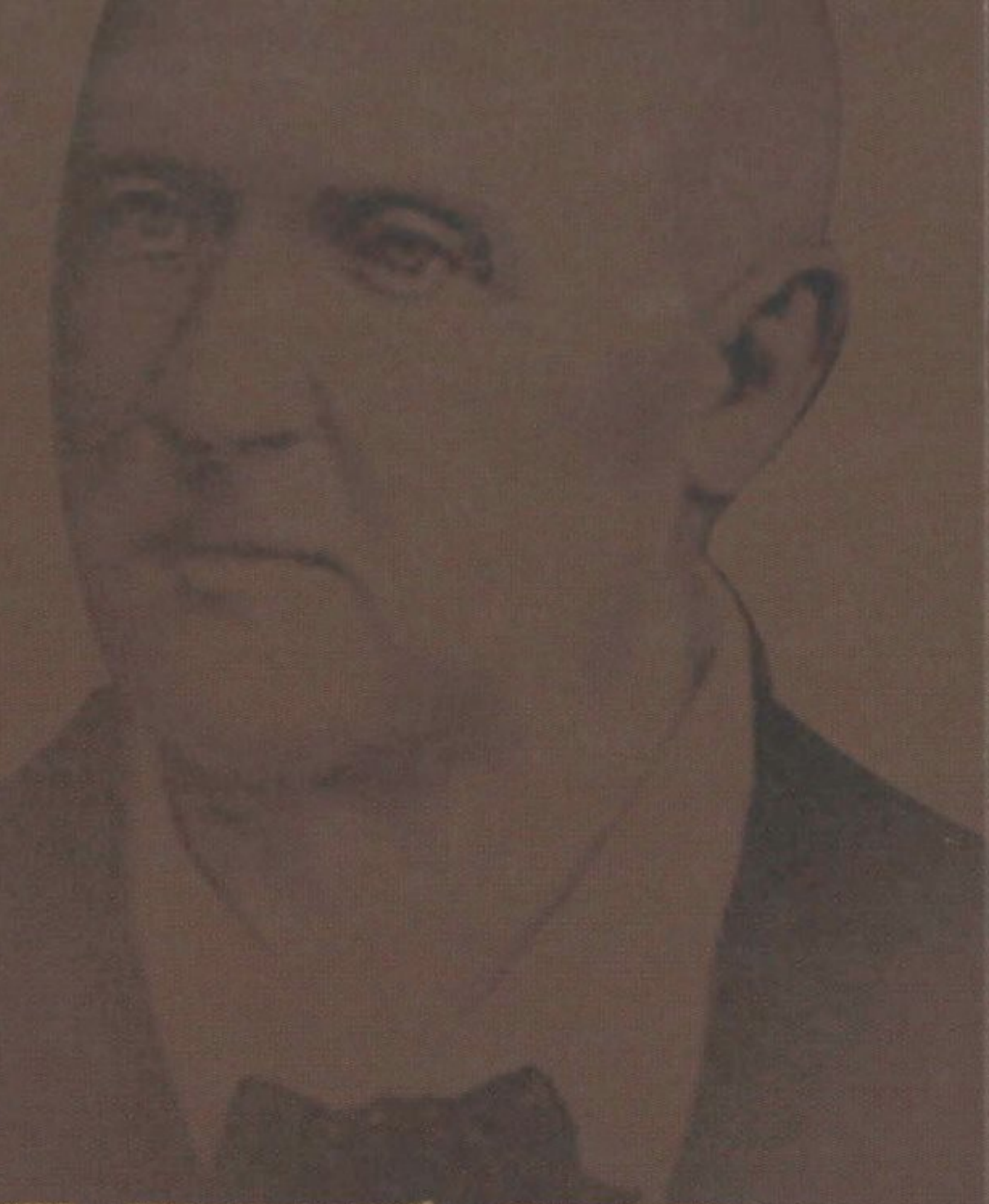
- Red(정열)
 -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박경희 곡) 외 3곡
- Green(슬픔)
 -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최백호 곡) 외 3곡
- Blue(꿈)
 - 그 겨울의 찻집(조용필 곡) 외 곡

2013.5.15(수)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9회 정기연주회



BRUCKNER SYMPHONY IX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9회 정기연주회 브루크너 심포니 9



지휘 리 신차오
Li Xincao



피아노 슈에 샤오츄
Xue Xiaoqiu

Program.

- 차이코프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Tchaikovsky | Piano Concerto No. 1
- 브루크너 | 교향곡 제9번
Bruckner | Symphony No. 9

2013. 4. 9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